

研究報告 62
1983. 12.

農村人口移動에 관한 社會學的 研究

尹 汝 德 (招請研究員)

閔 尚 基 (責任研究員)

庾 喆 仁 (研 究 員)

金 鍾 採 (研 究 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머 리 말

産業化·工業化와 더불어 1960年代 후반부터 農村人口가 급격히 감소됨으로써 農村社會는 構造的인 側面에서 격심한 變化가 일어났다. 農村人口의 급격한 減少는 農村과 都市간의 人口流出入에 의한 純移動이 農村에 不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서 기인된 現象으로서 이는 農村에서의 押出要因(push factor)과 都市에서의 吸入要因(pull factor)의 複合된 結果에 의한 것이다. 農村人口의 급격한 減少는 農村社會뿐만 아니라 都市社會에도 지대한 社會·經濟的 問題를 야기시키고 있어 國民經濟의 安定的 成長과 國家資源의 效率的 利用 및 國家安保를 위해서도 農村과 都市간의 人口의 適正維持는 必要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農村人口의 減少要因이 무엇이며, 그것이 産業化 過程과 어떠한 脈絡을 가지고 있고, 또 農村人口의 減少를 防止할 수 있는 對策方案은 무엇인가에 대한 규명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報告書는 農村人口의 감소추이를 産業化와 관련하여 규명하고 아울러 農村人口의 減少原因과 農村人口의 減少가 農村社會에 미치는 影響 및 農村人口移動에 따른 流出者와 非流出者간에 형성되는 經濟的 特性을 중심으로 農村人口移動에 관한 諸般現象을 규명하였다.

끝으로 이 報告書는 農村社會研究室에 의해 이루어졌고 研究結果는 研究者의 見解로서 當研究院의 公式見解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1983. 12.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 甫 炫

빈 면

目 次

第 1 章 序 論	1
第 2 章 産業化와 離農	
1. 離農의 概念과 그 重要性	3
2. 離農의 推移	6
3. 離農과 農業構造	12
4. 離農의 社會的 要因	29
第 3 章 家族과 人口移動：村落人口學的 接近	
1. 問題의 제기	47
2. 資料의 性格	51
3. 調査部落의 人口構造	52
4. 家族構造 變化	64
5. 家族員의 人口移動	68
6. 村落人口學의 方向	81
第 4 章 農村人口移動을 통한 經濟的 關係：마을, 農家 및 지역간을 중심으로	
1. 調査地域의 人口流出	87
2. 마을 水準으로 본 經濟關係	95
3. 農家水準에서 본 經濟關係	113
4. 農村人口移動과 都市—農村間의 接合現象	125
5. 要 約	134
第 5 章 社會變動으로서의 離農	
1. 社會變動과 離農現象	136
2. 研究의 問題點과 앞으로의 方向	141

表 目 次

第 2 章

表 2 - 1	農村人口의 규모 (1980)	5
表 2 - 2	農村人口와 農家人口 (1980)	6
表 2 - 3	기간별 移動方向에 따른 移動人口比率	7
表 2 - 4	시기별 농가인구 및 호수, 1949 ~ 1982	8
表 2 - 5	日本의 農家人口 變化	8
表 2 - 6	농가인구의 流出推定, 1962 ~ 1981	9
表 2 - 7	總出産率	10
表 2 - 8	農家所得의 相對的 地位變動	14
表 2 - 9	農家所得의 構成, 1965 ~ 1981	16
表 2 - 10	耕地規模別 農家所得중 農業所得의 비율	17
表 2 - 11	耕地規模別 農家戶數 및 구성비 추이	20
表 2 - 12	耕地規模別 農業所得의 가계비 충족도 추이	26
表 2 - 13	農家の 地位別 就業者 (1963 ~ 1982)	28
表 2 - 14	離農類型別 階層構成의 推定, 1961 ~ 1975	29
表 2 - 15	性, 연령 및 배우관계별 이동인구 (15 세이상)	30
表 2 - 16	교육정도별 移動人口 (6 세이상)	32
表 2 - 17	職業 (대분류) 별 移動人口 (14 세이상)	33
表 2 - 18	單身流出者の 출신농가규모	34
表 2 - 19	타지역으로부터 서울로 轉職된 근로자의 지역별 분담비	37
表 2 - 20	서울의 人口移入趨勢	75

第3章

表 3 - 1	調査對象 家族	58
表 3 - 2	姓氏別 部落居住期間(人洞)	58
表 3 - 3	人口構成에 관한 都市·農村의 比較	61
表 3 - 4	部落의 人口動態	62
表 3 - 5	家族員의 構成	64
表 3 - 6	家口主의 연령別 家族形態(人洞).....	65
表 3 - 7	家口主의 연령別 家族形態(口洞).....	65
表 3 - 8	家族人員別 家族數(人洞)	67
表 3 - 9	家族人員別 家族數(口洞)	67
表 3 - 10	出他理由.....	68
表 3 - 11	出他理由別 出他地(人洞, 單身移動의 경우)	69
表 3 - 12	出他理由別 出他地(口洞, 單身移動의 경우)	70
表 3 - 13	時期別 出他者의 移住地와 出他理由 (人洞, 單身移動)	71
表 3 - 14	時期別 出他者의 出他地와 出他理由 (口洞, 單身移動)	71
表 3 - 15	出他理由別 出他時의 性·연령(人洞).....	72
表 3 - 16	出他理由別 出他時의 性·연령(口洞).....	73
表 3 - 17	單身出他者와 現家口主와의 관계(人洞)	74
表 3 - 18	單身出他者와 現家口主와의 관계(口洞)	74
表 3 - 19	同居子女와 出他子女의 연령비교(人洞).....	75
表 3 - 20	同居子女와 出他子女의 연령비교(口洞).....	76
表 3 - 21	1960 年代 이후 귀환이동자(人洞)	77
表 3 - 22	1960 年代 이후 귀환이동자(口洞)	78
表 3 - 23	家口移動의 事例	79
表 3 - 24	全家族轉入의 時期	80

第 4 章

表 4 - 1	가족과의 관계별 떠나간 해	88
表 4 - 2	가족과의 관계별 당시 혼인상태	89
表 4 - 3	가족과의 관계별 떠나간 이유	89
表 4 - 4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유	90
表 4 - 5	이농이유별 떠나간 해	91
表 4 - 6	이농이유별 당시 혼인상태	92
表 4 - 7	이농이유별 당시 나이	92
表 4 - 8	이농이유별 최초 이주지	92
表 4 - 9	이주의사	93
表 4 - 10	아직 못 나간 이유	93
表 4 - 11	現在 居住地別로 본 農村人口移動者	94
表 4 - 12	經濟關係 類型別 關係者	96
表 4 - 13	經營主와 關係別 資本流出的 經濟關係者	98
表 4 - 14	經營主와의 關係別 離村者의 數	99
表 4 - 15	經營主와 關係別 資本流入의 經濟關係者	100
表 4 - 16	本家에서 送金한 現金額別 經濟關係	101
表 4 - 17	本家로 送金된 現金額別 經濟關係	102
表 4 - 18	보낸 現物종류별 經濟關係	104
表 4 - 19	받은 現物종류별 經濟關係	104
表 4 - 20	本家에서 流出된 總資本額數別 經濟關係	105
表 4 - 21	本家로 流入된 總資本額數別 經濟關係	106
表 4 - 22	現金의 送金目的別 經濟關係	107
表 4 - 23	本家에서의 現金使用處別 經濟關係	108
表 4 - 24	職業別 資本流出的 經濟關係	109
表 4 - 25	職業別 資本流入의 經濟關係	110
表 4 - 26	資本流出入額으로 본 손익	112
表 4 - 27	經濟關係 類型別 關係者	114
表 4 - 28	經營主와 關係別 經濟關係	115

表 4 - 29	本家에서 送金한 現金額別 經濟關係	116
表 4 - 30	本家로 送金된 現金額別 經濟關係	117
表 4 - 31	本家에서 流出한 總資本額別 經濟關係	117
表 4 - 32	本家로 流入된 總資本額別 經濟關係	118
表 4 - 33	現金의 送金目的別 經濟關係	119
表 4 - 34	本家에서의 現金使用處別 經濟關係	120
表 4 - 35	職業別 階層間 資本流出的 經濟關係	122
表 4 - 36	職業別 階層間 資本流入의 經濟關係	123
表 4 - 37	資本流出入額으로 본 損益	124
表 4 - 38	經營主와 關係別 資本流出入額	128
表 4 - 39	職業別 都市地域別 資本流出入額	131
表 4 - 40	目的別 送金한 現金額	132
表 4 - 41	사용처별 현금유입액	133

第 5 章

表 5 - 1	농촌전통부문, 도시전통부문, 근대부문의 취업자수의 변화	139
---------	-----------------------------------	-----

圖 目 次

第 2 章

圖 2 - 1	Duncan 의 古典的인 生態學模衡	4
圖 2 - 2	한국농촌사회 연구를 위해 修正된 生態學模型	4
圖 2 - 3	농가인구, 농가호수 및 농업취업자의 변화	11
圖 2 - 4	이농의 類型과 특징	35
圖 2 - 5	1960 ~ 70 년대 國土開發의 基本認識	36
圖 2 - 6	시설별 농촌주민 만족도	39

第 3 章

圖 3 - 1	人口變動과 家族構成	50
圖 3 - 2	人洞의 김해許氏 系譜	54
圖 3 - 3	人洞의 마을지도	55
圖 3 - 4	口洞 관음정골의 마을지도	56
圖 3 - 5	口洞 초당골의 마을지도	57
圖 3 - 6	人洞의 성별·연령층 人口構造	60
圖 3 - 7	口洞의 성별·연령층 人口構造	60
圖 3 - 8	韓國家族의 變化	66

第 5 章

圖 5 - 1	부문별 취업자수의 변화(1959~79)	140
---------	-----------------------	-----

第 1 章

序 論

1960 ~ 70 년대를 통한 産業化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農業의 位置 및 農村社會의 構造를 크게 變化시켰다. 그 변화 중 가장 基本的이면서도 重要的한 것 중의 하나가 離村向都型 人口移動이다.

農家人口는 1960 년의 14,559,271 명(58.3 %)에서 그 相對的 比重이 계속 底下하고 1967 년부터는 絶對數도 감소하기 시작한다. 1982 년에는 9,688,000 명(24.6 %)으로 이 기간중 농가인구는 반 이상이 줄어든 것이다.

離農은 農村住民의 都市로의 移動(農村人口의 감소)와 農家人口의 非農家人口로의 轉換(農家人口의 감소) 및 農業人口의 脫農業化(농업 就業人口의 감소)등 서로 중첩되며 相互作用하는 現象들이 複合된 것으로 그 實態 및 原因을 파악하고 過程, 經路, 結果 및 問題點을 究明하는 것은 社會의 構成을 理解하고 國家社會의 發展方向을 가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매우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離農研究는 離農을 人口學的 現象으로만 취급하여 다른 社會現象, 社會變動과의 관계 또는 離農을 통한 都市·農村간의 관련성을 解明하려는 시도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연구는 이러한 問題意識에서 출발하여 離農의 原因과 離農者의 社會的 特性, 이들이 本家(農村)와 맺는 관계, 農村家族構造 및 村落構造에 미친 영향 등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이농연구는 그 분석수준으로 보아

移住者, 家族, 地域社會, 全體社會 등으로 이루어지나 資料의 성격상 이번에는 移住者와 家族 및 地域社會에만 연구범위를 한정하고 都市와 農村의 巨視的 構造의 분석에는 이르지 못했다. 또한 農村人口移動은 農村에서 떠나오는 것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고 都市 쪽으로 移入해 들어오는 것으로도 파악될 수 있는데 이 측면의 분석에도 미흡하다 하겠다. 이는 다음 기회에 보완하여 離農現象을 全體社會와의 관련성 속에서 評價·解析할 수 있도록 하겠다.

本研究의 構成順序는 제 2 장에서 國家의 社會開發政策의 方向과 관련하여 全國水準의 資料와 既存의 研究를 바탕으로 離農의 類型과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準據틀(Frame of Reference)을 形成할 수 있도록 하고 제 3 장에서는 본 研究院의 調查資料를 바탕으로 村落水準의 人口變動 및 家族構造의 變化를 살펴보고 제 4 장에서는 조사대상 8 개부락을 標本으로 하여 農村과 都市간에 형성되는 관계를 經濟的인 側面에 국한하여 考察하고 제 5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分析을 바탕으로 産業化의 過程에서 離農이 갖는 意義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研究方向을 제시하려고 한다.

第 2 章

産業化와 離農

1. 離農의 概念과 그 重要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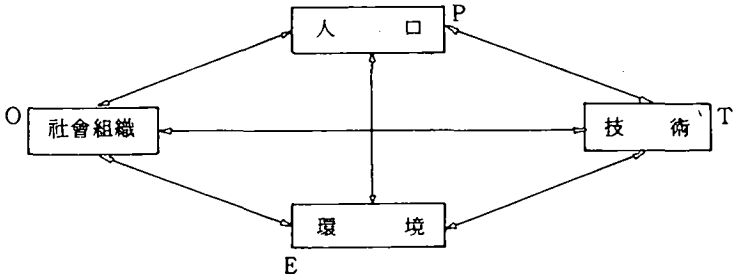
급격한 産業化와 그에 따른 農業構造의 變化를 보려고 할 때 人口構造의 特性과 變化 즉 離村向都의 人口移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하나의 必然的 過程이 되다시피 하고 있다. 이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농촌의 人口變化가 크기 때문에 농촌 자체의 변화나 農村과 都市와의 관계의 변화를 人口의 측면에서 분석 설명하는 것이 農村社會 및 全體社會의 변화를 실감하고 쉽게 理解할 수 있기 때문이다.

李萬甲등은 우리 나라 農村의 生態學的 要因 가운데 外部的 條件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人口이고 다음이 經濟活動과 生活環境이며 社會組織과 價值體系는 그중 가장 늦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古典的인 生態學 模型을 수정한 새로운 模型을 제시한 바 있다.¹⁾

즉 Duncan이²⁾ 人間이 環境의 變化에 適應해 가는 네 가지 기본적인 要因으로 人口(Population), 組織(Organization), 環境(Environment), 技術(Techhology)을 들고 이들 네 要素간의 相互作用 體系(POET 體系)로 人間生態學을 발전시킨 것에 비해, 오늘날 韓國 農村이 外部的 條件과

人口變化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模型을 제시한 것이다<圖2-1, 圖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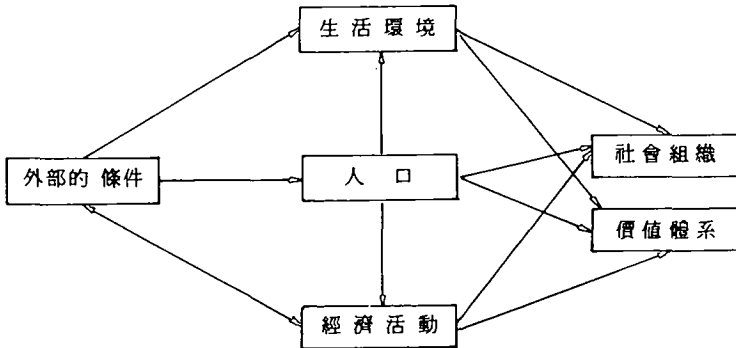
圖2-1. Duncan의 古典的 生態學 模型



P : Population O : Organization
E : Environment T : Technology

資料 : Duncan Otis, "Human ecology and population studies" in Phillip M. Hanser and otis Duncan(eds),「The study of Population」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金璟東, 「現代의 社會學」, 博英社, 1978, pp.114-116.
洪東植外, 「農村社會學」, 法文社, 1982, pp. 53-63 참조.

圖2-2. 韓國農村社會研究을 위해 修正된 生態學 模型



資料 : 李萬甲外, 「새로운 工業區地의 形成이 農村社會構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 考察」, SNU, 人口 및 發展問題研究所, 1979. p.88 참조.

그런데 이러한 農村人口의 離村向都의 人口移動, 즉 離農의 推移를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用語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離農”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農村으로부터 都市로의 人口移動을 생각하게 되며 따라서 農村人口의 減少가 곧 離農인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農村地域의 범위 또는 都市地域의 범위(人口規模)가 어디까지이며 農村과 都市의 社會·文化的 特性은 어떻게 다른가 또 도시·농촌의 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 각 研究機關의 統計에서도 行政區域(市, 郡, 面)을 기본단위로 할때 각각 다른 구분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農村人口數와 比率을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¹⁾ <表2-1 참조>.

表2-1. 農村人口의 規模, 1980*

單位: 1,000 名, %

區分方式	行 政 區 域			備 考
	面	邑	市	
I	11,463 (30.6)	25,973 (69.4)	都市人口	內 務 部
II**	農村人口	12,561 (33.6)	24,875 (66.4)	國土開發研究院
III		16,003 (42.7)	21,433 (57.3)	韓 國 人 口 保 健 研 究 院

* 1980年度 人口센서스

** 面과 人口 2萬以下の 邑 人口

“農村人口”와 “農家人口”의 概念은 흔히 혼동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begin{aligned} \text{農村人口} &= \text{農村 農家人口} + \text{農村 非農家人口} \\ \text{農家人口} &= \text{都市 農家人口} + \text{農村 農家人口} \end{aligned}$$

1980년의 경우 農家人口의 88.8%가 農村 農家人口이며 農村人口의 76.5%가 農家人口이다<表2-2 참조>.

表2-2. 農村人口와 農家人口, 1980

單位: 1,000 名, %

	人 口		計
	農 家 人 口	非 農 家 人 口	
都 市	1,214 (4.9)	23,661 (95.1)	24,875 (100.0) (66.4)
農 村	9,613 (76.5)	2,948 (23.5)	12,561 (100.0) (33.6)
計	10,827 (28.9)	26,609 (71.1)	37,436 (100.0)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農家人口”라는 概念은 農水産部 農業센서스 통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⁵⁾ 그러나 이는 300명(10a) 이하의 경지 규모를 가진 農家가 제외된다는 점에서 農村人口 또는 農業人口와는 내용상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센서스 통계의 “農家人口”를 기본으로 하고 이로부터의 離脫을 좁은 의미의 離農으로 定義하나 서술 목적상 “農家, 農村, 農業으로부터의 離脫”을 넓은 의미의 離農으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며 兩者를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표시하려고 한다.

2. 離農의 推移

가. 農村人口의 감소

農村人口의 規模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은 다음의 네 가지가 있다. 첫째, 農村地域의 자연증가율(출생률-사망률), 둘째, 都市-農村間 人口의 社會的 移動(net migration), 셋째, 既存 市의 行政區域 확장, 마지막으로 農村地域이 새로운 市로 승격되는 데서 오는 農村人口의 감소가 그것이다. 따라서 농촌인구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순수한 社會的 移動(net

migration)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편입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行政的 要因과는 상관없이 農村(郡部)에서 都市(市部)로의 人口 移動을 나타내는 것이 <表2-3>이다. 이는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에서 5년전 거주지를 조사하여 그것이 郡部였으면 農村, 市部였으면 도시로 구분하여 집계한 것으로 1962~66년 58만, 1966~1970년 182만, 1971~1975년 175만, 1976~1980년 252만의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移住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년대 이후 한국 농촌인구의 감소는, 60년대 후반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70년대 전반에는 감소추세가 줄었다가 70년대 후반에 다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表2-3. 期間別 移動方向에 따른 移動人口 比率

移動方向	1962~1966*		1966~1970		1971~1975		1976~1980	
	移動人口	%	移動人口	%	移動人口	%	移動人口	%
都市→都市	500,433	34.7	1,532,142	34.9	2,275,056	44.2	3,855,300	50.6
農村→都市	587,597	40.7	1,826,665	41.6	1,754,336	34.1	2,523,782	33.1
都市→農村	153,550	10.7	387,075	8.8	558,318	10.8	681,108	8.9
農村→農村	200,601	13.9	648,566	14.8	563,284	10.9	558,269	7.3
計	1,442,181	100.0	4,394,448	100.0	5,150,994	100.0	7,618,459	100.0

* 김형국, "Social Factors of Migration from Rural to Urban Areas in the Case of Korea", 「환경농총」, 1980.

資料: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1970, 1975, 1980.

나. 農家人口의 감소

農家人口의 이동을 알아보기 위한 <表2-4>는 農家人口와 農家戶數 및 그 비율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 이는 日本의 農家人口 變化와 비교하여 볼 때 흥미있는 자료가 된다<表2-5 參照>. <表2-6>에서는 이에 기초하여 農家人口의 流出量을 推定한 것이다. 여기서는 農家人口의 자연증가율을 전국인구의 자연증가율과 같다고 가정⁶⁾하고<表2-7 參照>, 매년의 流出量을 추정한 것인데, 그 결과는 1963~66년 100만, 1967~70년 287만, 1971

表2-4. 時期別 農家人口 및 戶數, 1949~1982

()안은 센서스

年 度	總人口 (1,000명)	農家戶數 (1,000戶)	農家人口 (1,000명)	農家人口比 (%)	戶 當 農家人口 (명)	戶 當 耕地面積 (a)
1949	20,167 ¹⁾	2,474	14,416	83.0	5.83	
1955	21,502 ²⁾	2,219	13,300	61.9	5.99	90.0
1960	24,989 (24,982) ³⁾	2,350	14,559	58.3	6.20	86.2
1965	28,670	2,507	15,812	55.2	6.31	90.0
1970	31,435 (30,882)	2,483	14,422	45.9 (46.7)	5.81	92.5
1975	35,281 (34,707)	2,379	13,244	37.5 (38.2)	5.57	94.1
1980	38,124 (37,436)	2,155	10,827	28.4 (28.9)	5.02	101.8
1981	8,723	2,030	9,999	25.8	4.93	107.8
1982	39,331		9,688	24.6		

1) 제 1 회 총인구조조사로서 1949. 5. 1 실시

2) 제 1 회 간이인구조조사로서 1955. 9. 1 실시

3) 정부수립후 처음으로 실시한 인구, 주택, 농업의 대규모적인 국세조사로서
1960년 12월 1 일 0시 현재로 실시한 결과, 외국인이 포함되었음.

자료: 농수산부, 「농림통계연보」 각년호.

表2-5. 日本의 農家人口 變化

單位: 1,000명

年 度	總 人 口 (A)	農 家 人 口 (B)	B / A
1950	83,200	37,812	45.4
1955	89,276	36,347	40.7
1960	93,419	34,411	36.8
1965	98,275	30,083	30.6
1970	103,720	26,282	25.3
1975	111,940	23,197	20.7
1980	117,057	21,366	18.3
1981	117,009	21,339	18.2
1982	118,450	21,089	17.8

資料: 總理府 統計局, 「日本統計年鑑」, 1979.

新農林社, 「'81農業機械年鑑」, 1981.

表2-6. 農家人口의 流出推定, 1962~81

年 度	總 人 口 ¹⁾ 增 加 率	農 家 人 口 ²⁾ (1,000명)	豫 想 ³⁾ 農 家 人 口 (1,000명)	農 家 人 口 ⁴⁾ 流 出 量 (1,000명)	農 家 相 對 ⁵⁾ 所 得
1961	3.00	14,509			
1962	2.90	15,097	14,944	- 153	
1963	2.82	15,266	15,535	268	
1964	2.65	15,553	15,697	144	
1965	2.57	15,812	15,965	154	1.09
1966	2.55	15,781	16,218	437	0.88
1967	2.36	16,078	16,183	105	0.67
1968	2.35	15,908	16,458	550	0.69
1969	2.29	15,589	16,281	693	0.71
1970	2.21	14,422	15,946	1,524	0.75
1971	1.99	14,712	14,740	29	0.88
1972	1.89	14,677	15,005	328	0.91
1973	1.78	14,645	14,954	310	0.91
1974	1.73	13,459	14,905	1,446	1.03
1975	1.70	13,244	13,692	448	1.02
1976	1.61	12,785	13,469	684	0.93
1977	1.57	12,309	12,991	682	0.89
1978	1.53	11,527	12,502	975	0.75
1979	1.53	10,883	11,704	820	0.67
1980	1.57	10,827	11,050	223	0.69
1981	1.57	9,999	10,997	998	0.72

1) 經濟企劃院, 「주요업무지표」, 1982.

2) <表2>와 같음.

3) 예상농가인구(P_2) = P_1 (전년도 농가인구) $\times r_1$ (전년도 증가율)

4) 농가인구유출량 = 3) - 2)

5) 농가상대소득 = $\frac{\text{농가 가구당 실질소득}}{\text{근로자 가구당 실질소득}}$ <表2-8 參照>

表2-7. 總 出 産 率

單位：1,000 명 당

年 度	全 國	3 大 都 市	其 他 都 市	郡 部
1960	6,006	4,496	5,380	6,759
1961	5,838	4,166	4,935	6,610
1962	5,558	3,961	4,738	6,191
1963	5,462	3,767	4,562	6,156
1964	4,921	3,344	4,118	5,579
1965	4,519	3,086	3,356	5,414
1966	4,757	3,131	3,454	5,822
1967	4,242	3,103	3,344	5,007
1968	4,523	3,222	3,463	5,362
1969	4,120	3,136	3,309	4,820
1970	4,124	3,286	3,465	4,703
1971	4,171	3,346	3,874	4,792
1972	4,195	—	—	—
1973	3,929	—	—	—
1974	3,591	—	—	—
1975	3,500	—	—	—

資料：經濟企劃院, 「한국의 사회지표」, 1981.

~75年 255 만, 1976~82년 484 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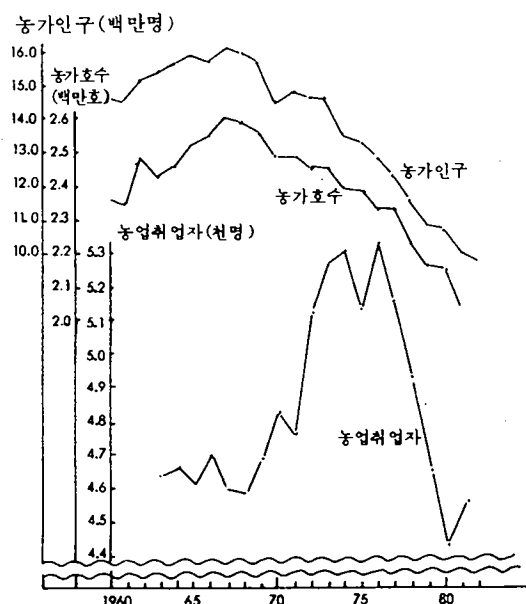
농가인구의 감소추세도 농촌인구의 감소와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60년대 전반에는 농가인구의 감소(勞動力流出)가 농촌인구의 감소(유출)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는 유출된 농가인구가 정확하게는 非農家人口化한 것으로 도시지역에서의 農家の 非農家化를 포함한 것이다. 농촌 지역에서의 農家の 非農家化는 반드시 농촌으로부터의 人口移動(=勞動力流出)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60년대 전반에는 유출된 농가인구의 다수가 농촌지역을 떠나지 않았음이 지적되고 있다.⁷⁾ 그들은 일단 농촌지역에서 제 3차 産業 등에 종사한 것으로, 60년대 특히 그 전반의 농촌인구의 都市로의 移動의 중심은 오히려 非農家 農村人口의 移動이었다.⁸⁾

그러나 60년대 후반 농가인구 감소가 농촌인구 감소를 대폭 앞서고 있는 것은 이 시기 이후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移動의 대부분을 農家人口가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農家人口의 대부분이 脫農과 동시에 직접 도시로 移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60년대 이후의 농촌·농가인구의 감소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韓國의 離農은 60년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는 6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였고, 70년대 전반에 약간 둔화되지만 70년대 후반에 들면 한층 격화되고 있다. 둘째, 60년대 전반의 농촌인구의 감소는 非農家人口의 移動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農家人口는 脫農한 경우에도 농촌에 그대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60년대 후반 이후는 농촌인구 감소의 대부분을 농가인구가 차지하며 離農=都市로의 移動이 증가하였다.

이상에서 본 農家人口 및 農家戶數, 農業就業者의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본 것이 <圖2-3>이다.

圖2-3. 農家人口, 農家戶數 및 農業就業者의 變化



資料: 農水産部, 「농림통계연보」 및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各年호

여기서 보면 農家人口와 戶數는 67년까지 증가추세에 있지만 68년부터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감소하기 시작한다.兩者(農家人口와 戶數)가 동시에 감소추세로 전환하는 것은 이때의 離農의 형태가 家族을 동반한 全家族 離農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農業就業者의 변화는 좀더 늦어져 70년대 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70년대 초까지 신품종 재배, 米價支持政策으로 농업이 상대적으로 高所得을 유지하던 시기이며, 새마을운동의 영향과 勞動力의 質的 低下(여성화, 고령화)를 통하여 勞動力을 충원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3. 離農과 農業構造

가. 農業政策 변화와 離農

이 절에서는 離農에 영향을 미친 要因들을 農業內部와 外部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60年代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해방以後의 격동과 전쟁으로 대량의 人口移動을 경험하였다. 1950年代까지만 해도 工業生産은 GNP의 10% 内外를 차지하였고 農業이 높은 비중을 가짐으로써 農業生産의 품·종이 경기변동의 가장 큰 要因일 정도였고⁹⁾ 都市로부터의 고용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戰後 경제재건과 경기안정에 지대한 역할을 한 원조가 1958年以後 점차 감소하면서 第1次 經濟開發計劃이 실시되면서부터 都市에 있어서 雇傭機會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60年代 前半의 輸入代替型 工業化시기에는 고용기회의 확대가 農村人口를 직접 흡수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都市에 체류하고 있던 잠재적 失業者와 農村의 非農業人口를 흡수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60年代 후반 이후 經濟가 수출지향적 工業化로 전환하면서부터 경기변동에 의한 고용기회의 확대는 확대와 축소를 거듭하면서 農村의 農家人口를 흡수해 나갔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離農은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다 할 수 있

을 것이다.¹⁰⁾

70年代 초반에는 적극적인 農業開發에 역점을 둔 3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1972~1976)의 수행으로 대규모의 기반조성사업과 生産者 價格支持政策(69년부터 시작된 이중곡가제, 4대 농업시책 및 新品種개량)에 중점을 둔 주곡자급화로 시책방향을 전환하였으며 투자계획에 있어서도 농업 부문의 비중을 크게 확대 농업생산의 확충이나 農家所得支持의 양면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다.

<表2-8>은 農家所得과 都市 근로자 家口의 所得을 비교한 것으로 70年代 초반의 農家所得이 都市 근로자 家口의 그것과 거의 대등 또는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離農추세가 둔화된 것도 물론이다. 71년부터 시작된 새마을 運動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후에 米價政策이 후퇴하고 78년 이후 3年 연속홍작(기상재해)이 겹쳐 農家實質所得은 둔화되었고 離農은 다시 증가하였다.

4次 5個年計劃期間에 들어서면 3次計劃期間에 있어서 일단 달성된 주곡자급과 都·農間의 所得隔差 성과에 대한 매우 낙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農業 투자의 비율을 상당히 낮추고 政策目標을 “농어촌경제의 구조적 개선”으로 바꾸어 기본시책의 방향을 ① 쌀, 보리의 자급 유지화와 밀, 콩, 옥수수 등 부족양곡의 수입을 통한 식량공급안정, ② 農外所得源의 開發에 의한 所得增大와 농어촌 生活環境의 改善 등으로 설정하였다.

흔히 전환기의 農政으로 불리는 이 時期의 農業成長은 2次 계획기간과 마찬가지로 연평균 0.9%의 매우 저조한 성장율을 보였고 계획기간내 시도된 開放農政¹¹⁾으로의 전환과 함께 식량자급율의 급속한 저락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經濟政策 및 제도의 변화가 농업구조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表2-8. 農家所得의 相對的 地位變動

單位: 원

		家口當名目所得		家口當實質所得(1975年價格)		
		農 家	勤勞者	農 家 ¹⁾ (A)	勤勞者 ²⁾ (B)	(A) / (B)
實 效	1965	112,201	112,560	447,016	409,309	1.09
	1966	130,176	161,520	464,914	526,124	0.88
	1967	149,470	248,640	493,300	733,451	0.67
	1968	178,959	285,960	527,903	760,532	0.69
	1969	217,874	333,600	561,531	788,652	0.71
	1970	255,804	381,240	580,054	776,456	0.75
	1971	356,382	451,920	715,627	811,346	0.88
	1972	429,394	517,400	761,337	831,833	0.91
	1973	480,711	550,200	780,375	857,009	0.91
	1974	674,451	644,520	835,751	807,669	1.03
	1975	872,933	859,320	872,933	859,320	1.02
	1976	1,156,254	1,151,760	925,744	998,925	0.93
	1977	1,432,809	1,405,080	980,034	1,106,362	0.89
	1978	1,884,200	1,916,280	991,163	1,318,844	0.75
	1979	2,227,483	2,629,556	1,030,288	1,529,701	0.67
	1980	2,693,110	3,205,152	999,299	1,448,329	0.69
	1981	3,687,856	3,817,224	1,005,139	1,398,763	0.72
年平均 增加率	1965~70	—	—	5.3	13.7	—
	1970~75	—	—	8.5	2.0	—
	1975~80	—	—	2.7	11.0	—

1) 農家購入價指數(1975=100)로 더플레이트한 것임.

2) 全都市消費者物價指數(1975=100)로 더플레이트한 것임.

資料: 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鄭英一, “農家所得構造의 推移와 政策方向”, 韓國農業政策學會, 「農村工業開發과 農業構造調整」, p.40에서 引用.

나. 農家所得構成의 變化*

農家所得은 보통 自營農業에서 얻는 農業所得, 自營 兼業所得 事業以外收入 등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되며 兼業所得과 事業以外收入을 합쳐 農外所得이라고 부른다. 엄밀히 볼 때 이렇게 분류된 農家所得에는 農業勞賃과 農地賃賃料라는 農業活動에 관련된 所得項目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외의 수입속에는 農家성원의 노동 및 재산소득에 해당하는 經營所得 이외에 送金補助나 被贈收入과 같은 移轉所得이 포함되어 있어 農外所得의 概念이 약간 불분명해지는 약점은 있으나 이점에 유의하면서 일상적인 분류를 따라 보기로 하자.

<表2-9>는 全農家平均으로 본 세 가지 소득의 推移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農家所得 전체 중에서 (지역) 農業所得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자.

이는 1965년의 19%, 1974년의 76%, 1975년의 82%, 1980년의 65%, 1981년의 67%로 전체적으로는 약간의 低落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추세적 저하가 두드러진 것은 70년대 후반 이래의 일이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工業化가 상당히 진전된 1975년의 農家の 農業所得構成比가 10년전인 1965년보다 오히려 높아진 점이다. 이러한 수치는 산술적으로는 農業所得과 農外所得의 增加率의 差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實態面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農家の 農外所得源이 안정된 基盤을 지니지 못하고 있어 農家所得의 크기는 農業所得의 신장여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정은 70년대 후반에 와서 農外所得의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表2-6>에서 이 시기 農家所得의 실질적인 증가가 매우 부진했던 사실을 감안해서 보면 農外所得 자체의 확대에 의한다기 보다는 農業所得增加의 부진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 부분은 鄭英一, “農家所得構造의 推移와 政策方向”, 韓國農政政策學會 심포지움 주제 논문 「農村工費開發과 農政構造調査」, 1983. 7. 9에 크게 힘입어 정리된 것이다. 이 논문은 뒤에 「農政政策研究」, 제 5 권 제 1 호(1983. 12)에 수록되어 있다.

表2-9. 農家所得의 構成

	農業所得/農家所得	給料·其他勞賃/ 事業以外收入	送金補助·被贈/ 事業以外收入
1965	0.79	0.30	0.36
1966	0.78	0.35	0.35
1967	0.78	0.34	0.34
1968	0.77	0.36	0.35
1969	0.77	0.34	0.37
1970	0.76	0.37	0.37
1971	0.82	0.39	0.35
1972	0.82	0.38	0.34
1973	0.81	0.40	0.31
1974	0.80	0.39	0.33
1975	0.82	0.43	0.33
1976	0.80	0.40	0.26
1977	0.72	0.36	0.33
1978	0.72	0.36	0.38
1979	0.69	0.38	0.38
1980	0.65	0.35	0.41
1981	0.67	0.33	0.43
1964~66 平均	0.80	0.34	0.35
1969~71 "	0.78	0.37	0.36
1974~76 "	0.81	0.41	0.31
1979~81 "	0.67	0.35	0.41

資料：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査 結果報告」.

이러한 農家所得 구성의 性質을 바탕으로 본다면 4次 計劃以來의 政策 方向에서 제시되고 있는 農外所得의 확대를 통한 農家所得 향상은 아직 현실 基礎를 내리지 못하고 있지 않나 싶어진다.

특히 離農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경지규모별 農業所得의 구성이다. <表2-10>에서 보면 0.5ha 미만의 영세농의 農家所得중 農業所得의 비중은 1964~66년의 60% 水準에서 1979~81년의 36%로 크게 低落되었으며 이 계층의 農業所得의 비중감소는 주로 70년대 후반에 일어난 일임을 알

表2-10. 耕地規模別 自家所得中 農外所得의 比率

	평 균	0.5ha미만	0.5~ 1.0ha	1.0~ 1.5ha	1.5~ 2.0ha	2.0ha이상
1964~66 평균	0.80	0.60	0.79	0.86	0.86	0.90
1969~71 "	0.78	0.53	0.76	0.86	0.85	0.87
1974~76 "	0.81	0.58	0.79	0.86	0.88	0.90
1979~81 "	0.67	0.36	0.64	0.74	0.79	0.83

資料：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査 結果報告」.

수 있다.

1979~81년에 0.5~1.0 ha층의 農家에 있어서도 農外所得의 比重이 36 % 水準으로 높아진 점을 볼 수 있으나 中·上層의 農家は 여전히 대부분의 所得을 自營農業에서 얻는 전통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본다.

이렇게 볼때 總農家の 약 3분의 1 을 차지하는 70여만의 영세농은 근년의 政策선회 과정속에서 自營農業을 통한 農家로서의 존속이 거의 불가능해졌으며 이러한 조건의 變化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0.5~1.0 ha층의 小農層에 대해서도 점차로 파급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실은 4次計劃 이래의 政策轉換이 農村의 다수의 低所得層의 農業所得源을 줄임으로써 종래 방식의 급속한 離農 또는 農村地域에서의 비농업부문 就業을 통한 農外所得에의 의존을 불가피하게 촉진시키는 촉매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령 새로운 政策基調 아래서 政府가 의도하는 農村地域의 農外所得源 확충이 순조로이 진행되지 못한다면 農村地域에서 生活基盤을 상실하는 영세농층의 대규모의 離村 向都라는 社會移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는 農業지지가 아닌 다른 형태의 막대한 社會的 비용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다.

또 農家經濟調査 항목에서 農業勞賃을 제외한 기타 노임과 給料所得은 농가성원이 自家에서 동거하면서 非農業部門에 고용되어 얻는 勤勞所得으로써 農外所得源의 주종을 차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 推移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贈金보조와 被贈收入은 형식상으로는 移轉所得源으로 分類되나 실질적으로는 農家の 직계 자녀등이 都市나 工業園地 등에 별거

하면서 벌어들인 勞勤所得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약간의 순수한 의미의 생계보조를 위한 피증수입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가령 農村地域에 충분한 비농 고용기회가 창출되어 통근 兼業形態의 취업이 광범하게 이루어 진다고 하면 그 대부분은 급료 기타 노임의 항목으로 분류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먼저 事業以外 收入 중에서 非農部門 勞賃所得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4~66년의 34%, 1969~71년의 37%, 1974~76년의 41%, 1979~81년의 35%로써 추세적인 增加를 찾아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農外所得의 주종을 이루어야 할 이들 項目의 比重이 의외로 낮은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農家の 경지구모별로 볼 때도 0.5ha 미만이 1979~81年間に 45% 수준으로 약간 높은 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계층간의 차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한편 農家の 事業以外 收入 中에서 송금보조 및 피증收入이 차지하는 比重이 1964~66年 35%, 1969~71년의 36%, 1974~76년의 31%, 1979~81년의 41%를 각각 보이고 있어 農家所得의 절대적 상대적 지위가 비교적 유리할 때는 그 比重이 증가하는 규칙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는 農家에 대한 가계 보조적인 성격의 移轉支拂이 이 項目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으며 이들 項目의 총체적인 比重의 감소는 커녕 최근년에 오히려 增加를 보이고 있는 것은 農家の 출근 겸업기회가 제약되어 있다는 고용기회의 地域分布에 별다른 好轉要因을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이 比率의 農家계층간의 차를 보면 上層으로 갈수록 송금보조 및 피증收入의 比率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규칙성이 전기간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고용기회의 제약과 임금 격차의 현저한 존재라는 노동수급 사정 아래서 상층농 출신의 자녀들이 都市의 非農部門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얻음으로써 本家에의 송금이나 보조의 여력이 될 것이라는 사정을 반영하는 결과일지도 모른다.

지금까지의 고찰을 토대로 해서 보면 農業支持政策의 후퇴라는 政策여건의 변화 속에서 農家全般 그중에서도 특히 영세농의 農外所得 확충의 必

要件은 긴박한 현실적 課題로 된데에 비해 農家の 農外所得構造는 여전히 허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어, 農外所得 확대의 여전이 마련되지 못한 속에서 農業所得 지지의 급속한 후퇴는 현저한 都農間 所得隔差의 확대를 다시 초래함으로써 60년대 말에 경험했던 바람직하지 못한 社會的 移動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다. 農家階層構造 및 勞動力構造의 變化

離農에 따른 農家階層 構造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지면적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물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農民의 계층적 성격을 결정짓는 직접적인 指標는 生産手段의 크기 그 자체가 아니라 生産手段의 규모에 基礎를 둔 勞動力의 고용, 피고용 관계이며 따라서 경지규모라는 지표에 의한 農家區分 그 자체가 農民諸階層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同一한 크기의 경지면적이라 하더라도 토지가 아닌 자연의 성질(예컨대 비옥도등)이나 지리적 위치, 土地 소유관계등에 따라 그 의의가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세째는 農業技術의 發達에 따라 農業經營에서 경지가 가지는 상대적인 중요성이 변화한다는 점이다. 특히 畜産施設 원예 등 보다 집약적인 農業 부문에선 경지규모에 따른 경영구분에 큰 한계가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農業內部的 要因 이외에도 兼業化 및 農外所得의 增加, 부분家族 離農에 의한 家族의 分散에 따른 別居家族의 가계보조등 農業外部의 관계에 의해서도 農家の 계층적 지위는 달라진다. 따라서 農家の 계층적 지위를 農業內部에서만이 아니라 韓國社會의 全體構造 속에서 파악하려고 할 때는 새로운 階層의 指標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農業內部에서만 관계를 고찰하려는 데 있어, 土地는 현재의 농업기술하에선 농업의 경영규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生産手段이라는 점과 전국 규모의 통계적 관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단 경지규모를 계층을 파악하는 지표로 보고 논의를 계속하려고 한다.

表 2 - 11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및 구성비추이

單位 : 호, (%)

연 도	0.3 ha 미 만				0.3-0.5	0.5 - 1.0
	경종의 농 업경영가구	0.3 ha 미만		소 계		
		1.0~1.5	1.5~2.0			
1951	-	-	-	-	932,615 (42.6)	781,910 (35.7)
1952	-	-	-	-	1,005,930 (41.3)	770,021 (34.5)
1953	-	-	-	-	1,011,032 (45.0)	768,600 (34.2)
1954	-	-	-	-	991,951 (44.4)	771,762 (34.5)
1955	-	-	-	420,402 (19.0)	534,414 (24.1)	689,745 (31.1)
1956	-	-	-	419,660 (19.1)	522,530 (23.7)	676,108 (30.7)
1957	-	-	-	421,936 (19.1)	523,298 (23.7)	672,328 (30.4)
1958	-	-	-	421,408 (19.0)	515,313 (23.2)	673,900 (30.4)
1959	-	-	-	430,132 (18.8)	528,038 (23.3)	688,303 (30.4)
1960	-	-	-	463,415 (19.7)	545,209 (23.2)	706,689 (30.1)
1961	-	-	-	440,328 (18.9)	506,361 (21.8)	740,999 (31.8)
1962	-	-	-	490,349 (19.9)	522,986 (21.2)	803,162 (32.5)
1963	-	-	-	489,653 (20.3)	519,585 (21.5)	761,015 (31.5)
1964	-	-	-	466,098 (19.0)	512,689 (20.9)	782,499 (31.9)
1965	-	69,843 (2.8)	360,982 (14.4)	430,825 (17.2)	470,015 (18.7)	793,864 (31.7)
1966	-	72,654 (2.9)	357,577 (14.1)	430,231 (17.0)	463,654 (18.2)	818,121 (32.2)
1967	-	95,413 (3.7)	364,367 (14.1)	459,780 (17.8)	459,568 (17.8)	829,258 (32.0)

表2-11 계속

연 도	1.0- 1.5	1.5 - 2.0	2.0 -3.0	3.0 이상	합 계	총농가호수지수 (1967년=100)
1951	372,370 (17.0)		93,401 (4.3)	3,034 (0.1)	2,183,930	85
1952	363,318 (16.2)		91,255 (4.1)	3,038 (0.1)	2,233,562	86
1953	370,848 (16.5)		95,722 (4.3)	2,930 (0.1)	2,249,132	87
1954	374,465 (16.8)		92,709 (4.1)	3,571 (0.1)	2,234,458	86
1955	445,632 (20.1)		122,441 (5.5)	5,551 (0.2)	2,218,185	86
1956	448,981 (20.4)		125,113 (5.7)	8,157 (0.4)	2,200,549	85
1957	455,855 (20.6)		129,574 (5.8)	7,923 (0.4)	2,210,914	85
1958	463,323 (20.9)		137,900 (6.2)	6,479 (0.3)	2,218,323	86
1959	474,247 (20.9)		139,810 (6.2)	6,889 (0.4)	2,267,419	88
1960	485,933 (20.7)		141,371 (6.0)	6,889 (0.3)	2,349,506	91
1961	490,688 (21.1)		142,680 (6.1)	6,060 (0.3)	2,327,116	90
1962	505,093 (20.5)		140,598 (5.7)	7,265 (0.3)	2,469,453	95
1963	497,398 (20.6)		138,999 (5.8)	8,943 (0.4)	2,415,593	93
1964	525,672 (21.0)		147,835 (6.0)	15,515 (0.3)	2,450,308	95
1965	414,723 (16.5)	228,582 (9.1)	139,599 (5.6)	29,291 (1.2)	2,506,899	97
1966	434,923 (17.1)	222,034 (8.7)	136,713 (5.4)	34,598 (1.4)	2,540,274	98

表 2-11 계속

연 도	0.3 ha 미 만				0.3 - 0.5	0.5 - 1.0
	경종의 농 업경영가구	0.3 ha 미 만		소 계		
		1.0~1.5	1.5~2.0			
1968	57,471 (2.2)	57,057 (2.2)	352,926 (13.7)	467,454 (18.1)	447,820 (17.4)	820,173 (31.8)
1969	59,110 (2.3)	53,547 (2.1)	346,264 (13.6)	458,921 (18.0)	442,160 (17.4)	807,442 (31.7)
1970	72,117 (2.9)	26,359 (1.0)	364,534 (14.7)	463,010 (18.6)	395,902 (15.9)	824,347 (33.2)
1971	83,965 (3.4)	49,744 (2.0)	336,627 (13.6)	470,336 (19.0)	423,437 (17.1)	786,268 (31.7)
1972	85,025 (3.5)	48,638 (2.0)	337,640 (13.8)	471,303 (19.3)	415,300 (16.9)	776,816 (31.7)
1973	84,557 (3.5)	52,947 (2.2)	324,686 (13.2)	462,190 (18.9)	417,170 (17.0)	771,028 (31.5)
1974	112,528 (4.7)	10,075 (0.4)	294,450 (12.4)	417,053 (17.5)	368,366 (15.5)	808,704 (34.0)
1975	94,322 (4.0)	1,923 (0.1)	307,850 (12.9)	404,095 (17.0)	381,210 (16.0)	828,157 (34.8)
1976	106,035 (4.5)	4,939 (0.2)	303,836 (13.0)	414,810 (17.7)	379,972 (16.2)	814,367 (34.9)
1977	113,649 (4.9)	4,311 (0.2)	302,029 (13.1)	419,989 (18.2)	379,741 (16.5)	795,331 (34.5)
1978	83,575 (3.8)	1,272 (0.1)	273,525 (12.3)	358,372 (16.2)	356,407 (16.0)	799,211 (35.9)
1979	81,900 (3.8)	2,408 (0.1)	278,595 (12.9)	362,903 (16.8)	362,574 (16.8)	764,203 (35.3)
1980	27,877 (1.3)	1,187 (0.7)	273,659 (12.7)	302,723 (14.7)	323,852 (15.0)	747,579 (34.7)
1981	30,510 (1.5)	8,050 (0.4)	257,580 (12.7)	396,140 (14.6)	338,960 (16.7)	742,270 (36.6)

註 : 1) 구성비와 지수는 단위미만의 원수치에서 계산, 단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반올림 때문임.

2) 경종의 농업경영가구란 경지는 전혀 없는 농가로서 축산업, 양봉, 양송이 등을 경영하는 가구 또는 농업임금노동자의 가구임.

3) 개인농가만 조사된 것임.

자료 : 농수산부, 농림통계연보, 각년도, 1970년은 농업센서스 자료.

表 2-11 계속

연 도	1.0 - 1.5	1.5 - 2.0	2.0 - 3.0	3.0 이상	합 계	총농가호수지수 (1967년=100)
1967	446,393 (17.3)	218,706 (8.4)	134,511 (5.2)	38,648 (1.5)	2,586,864	100
1968	453,529 (17.6)	215,768 (8.4)	133,156 (5.1)	40,626 (1.6)	2,578,526	100
1969	453,340 (17.8)	214,277 (8.4)	130,483 (5.1)	39,421 (1.6)	2,546,244	98
1970	446,098 (18.0)	193,271 (7.8)	123,391 (5.0)	37,299 (1.5)	2,483,318	96
1970	445,605 (18.0)	199,551 (8.0)	120,116 (4.8)	36,212 (1.4)	2,481,525	96
1972	442,173 (18.0)	194,537 (7.9)	116,519 (4.8)	35,196 (1.4)	2,451,844	95
1973	443,493 (18.1)	201,140 (8.2)	118,202 (4.8)	37,054 (1.5)	2,450,277	95
1974	434,734 (18.3)	196,389 (8.2)	118,663 (5.0)	37,291 (1.6)	2,381,200	92
1975	430,666 (18.1)	187,231 (7.9)	111,717 (4.7)	35,982 (1.5)	2,379,058	92
1976	415,158 (17.8)	174,175 (7.5)	104,487 (4.5)	32,887 (1.4)	2,335,856	90
1977	406,841 (17.7)	170,475 (7.4)	100,529 (4.4)	31,023 (1.3)	2,303,930	89
1978	412,292 (18.5)	170,522 (7.7)	96,734 (4.3)	30,269 (1.4)	2,223,807	86
1979	394,198 (18.2)	161,432 (7.5)	89,733 (4.2)	26,778 (1.2)	2,161,821	84
1980	438,540 (20.4)	190,657 (8.8)	107,559 (5.0)	31,163 (1.4)	2,155,073	84
1981	388,190 (19.1)	156,320 (7.7)	82,990 (4.1)	23,710 (1.2)	2,029,626	79

〈表2-11〉은 耕地規模別 農家戶數 및 구성비의 推移를 보인 것이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첫째, 農家數가 1967年을 정점으로 하여 증가→감소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1960年代 以後 農業人口의 離農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1967年 以前까지는 經營新設 要因이 經營폐지 要因보다 강하게 작용하였으나 1968年 以後엔 이 관계가 역전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추세는 경지규모별로 본 農家 계층에서 同一한 것이나 農家戶數가 絶對적으로 減少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경지규모별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0.5ha 미만층은 1960年代 初부터 감소하기 시작되고 다음 2.0~3.0ha층, 1.5~2.0ha층의 순서로 감소하며 1.0~1.5ha층과 3.0ha 이상층은 1969年부터 감소한다. 0.5~1.0ha층은 다소 굴곡을 보이다 1976년 이후엔 다시 감소하고 있다. 規模別로 감소시기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각 계층의 상대적인 安定性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둘째, 0.5ha 미만의 영세규모농가가 絶對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1960~67년간의 총농가수가 증가하고 있는 기간 중에도 0.5ha 미만층은 오히려 감소했으며 1967년 이후 총농가 감소시기에는 이러한 영세규모농가의 감소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0.5ha 미만층 가운데서 경작지가 전혀 없는 耕種外 農業經營家口(그 대부분은 임금農業 勞動者 가구임)는 1968年 以後 1977년까지 대체로 增加해 왔다는 점이다.

세째, 1962年에서 1968년까지는 6年間 3.0ha 이상층이 급격히 增加한 것을 예외로 하면 1.5ha 이상의 비교적 規模가 큰 農家層은 絶對적으로나 상대적으로 減少傾向에 있다.

특히 2.0~3.0ha층의 減少 등은 전 계층에서 가장 顯著하여 3.0ha 이상의 農家도 1968年을 고비로 그 以後엔 減少하고 있으며 특히 1975年 以後엔 크게 줄어들고 있다. 즉 1979年 3.0ha 이상인 農家は 전체 農家の 1.2%인 27千號로서 같은 期間 年平均 總農家 減少率 1.6%에 比較해 보면 얼마나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네째, 0.5~1.0ha층의 農家가 상대적으로 增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規模의 農家戶數는 1967年까지는 絶對적으로 增加하다가 以後엔 다시 減

少하고 있다. 農家로서의 절대 規模에 있어서는 이러한 變化를 보이면서도 그 상대적 구성비는 대체로 增加하고 있다.

요컨대 1960年代 以後 耕地規模別 農家戶數 變化에 있어서 특징은 總農家戶數의 增加→減少로의 전환 속에서 0.5ha 미만의 영세규모 農家の 감소, 0.5~1.0ha의 상대적인 증가 및 1.5ha이상층의 감소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離農과 農民階層構造의 變化라는 시각에서 볼 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첫째, 總農家戶數의 減少傾向은 農民層의 農外部門으로의 脫農이 격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總農家數의 增加期間에도 물론 農民層의 脫農, 農業廢止가 상당히 일어난 것이지만 그 期間엔 비교적 農家戶數 增加要因이 더 강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表에서는 가구 전체의 脫農만 고려된 것이고 農家の 家口員의 일부가 脫農한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가구의 일부만의 離農은 이것이 대부분의 경우 農外 임노동자로 화하고 있어 都市와의 관계 속에서 볼 때 매우 重要的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둘째, 1.5ha 以上층의 減少는 耕地規模指標의 限界性を 논외로 한다면 비교적 大規模인 經營의 숫자가 絶對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뜻한다. 물론 이 資料만으로는 소수의 大規模 農家に 의한 土地의 集積, 集中이 어느 정도 進行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으므로 大規模經營의 發展與否를 속단할 수는 없다.

셋째, 0.5ha 미만의 零細規模農家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일부는 階層上昇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나 대부분은 脫農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階層農家は 대부분 農業經營만으로는 家計유지가 불가능한 農家이므로 <表2-12 參照> 零細規模의 耕地에 매달리면서 부농층에 勞動力을 제공하거나 갖가지 農外兼業에 從事함으로써 家計와 經營을 유지해 가나 그것도 여의치 못하면 農外로 배출된다.

네째, 0.5~1.0ha층이 相對적으로 增加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는 이 계층이 農業構造上 어떤 계층에 속하는 것인가 하는 問題와 관련되는 것으로 소위 中農肥大化論 또는 中農標準化論을 연상

表2-12. 경지규모별 농업소득의 가계비충족도 추이

單位: %

年 度	0.5ha미만	0.5~1.0	1.0~1.5	1.5~2.0	2.0ha이상	평 균
1962	66.0	90.9	105.8	106.2	120.8	96.9
1963	72.0	91.9	104.7	117.6	134.6	98.8
1964	68.9	100.1	107.1	125.1	136.6	102.6
1965	58.6	83.8	96.8	103.3	112.5	88.4
1966	59.0	88.6	100.6	102.4	121.5	92.3
1967	58.5	86.5	96.9	110.6	112.2	91.1
1968	57.7	87.8	106.6	117.5	120.2	95.7
1969	57.2	93.9	113.2	104.4	124.1	97.5
1970	54.3	88.3	103.6	119.3	112.4	93.4
1971	69.5	108.6	140.5	139.6	150.1	119.4
1972	60.5	104.1	140.8	141.3	135.1	114.1
1973	65.3	100.9	125.3	142.1	170.4	115.7
1974	78.4	114.8	135.4	159.1	159.3	124.4
1975	73.8	107.8	124.0	138.4	149.5	116.0
1976	73.6	111.3	136.5	142.3	175.9	123.0
1977	50.1	95.5	120.8	134.0	149.0	106.1
1978	54.1	93.7	116.5	120.0	142.7	102.7
1979	45.1	84.3	104.8	115.9	126.3	92.1
1980	39.6	75.0	89.9	101.5	124.4	82.1
1981	41.9	84.7	105.7	114.8	130.7	92.5
1982	45.1	84.9	100.0	114.8	130.5	93.0

資料: 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査 結果報告」, 各년도.

※ 가계비충족도 = 농업소득/가계비 × 100.

시키기도 한다.¹²⁾

그러나 <表2-12>에서 보듯이 1962~70년과 1977~82년의 期間중에는 1.0ha 미만층의 農家は 平均的으로 보아 農業所得만으로 가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971~76년의 「高米價 政策」 실시 期間에만 이 계층의 가계비 충족도가 平均 100%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農業所得의 가계비 충족도를 보면 0.5~1.0ha층의 農民은 中農

으로서의 성격보다 오히려 貧農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여기서 영세규모농가의 家計水準이란 것이 社會的 平均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대부분이 농민의 過少消費¹³⁾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들 階層의 性格에 대해서는 임노동 고용관계라는 直接的인 指標에 의해 다시 생각해야 하나 우리는 1960年代 以後 이 계층이 임노동 收入에 점점 더 크게 의존하게 됨으로써 貧農으로서의 性格이 오히려 강화되어 온 것이라는 점만 지적해 두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離脫農家의 계층별 구성을 살펴보면 주로 小零細農이 대부분이며 大農層은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후술하는 이농의 유형 참조)

離農이 農業內部的 構造에 미친 영향중 또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종사상의 지위별 就業者 變動이다.

<表2-13>에 의하면 임시 勞働者는 1965년까지 增加하고 그후는 減少한다. 또 70년대 초반에 정체내지 일시 增加하는듯 하다가 80年 以後 다시 급격한 減少를 보인다. 이들은 農村내의 불완전 就業者이다. 1965年은 農村生活條件이 나빠져서 都市生活 水準보다 멀어지게 된 해이다. 임시 勞働者와 같은 한계적 勞働者의 경우 都市로 이주하는 편이 더 유리하게 되었다.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家族勞働者 즉 農家의 차남, 3남 및 딸들으로써 66년까지는 增加했으나 그후 1969년까지는 점차 減少하고 다시 70年代 前半에 일시 增加 추세를 보이다가 1977年 以後 계속 減少추세를 보인다. 좀더 유리한 취업기회를 찾아 都市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그렇지만 農家의 經營主 즉 호주들은 經營이 나빠졌다고 해서 간단히 農業을 버리고 都市로 유출하기는 어렵다. 이들은 1969年까지 버티다가 1970年, 1971年에 農業으로부터 離脫하였다. 1972年 以後 전술한 새마을運動과 米價支持政策의 영향으로 1976년까지 增加추세에 놓이게 된다. 이는 이 기간 중에도 農家의 절대수가 완만한 減少추세에 있었던 것에 비하면 대단한 增加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이들은 1976년에 와서야 감소추세로 전환된다. 상용고는 70年代 前半에 약간 減少하다가 재차 꾸준히 增加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경우 1972년이 불황으로 都市의 고용이 한계에 다다른 시

表 2-13. 농가의 지위별 취업자

單位 : 1,000 명

年 度	계(취업자)	자영업	가족종사자	상용고	임시고	(남자)	일 고
1963	4,943	2,051	2,183	163	156	(142)	390
1964	4,989	2,033	2,294	158	180	(166)	324
1965	5,071	2,038	2,285	209	213	(197)	326
1966	5,116	2,093	2,303	194	195	(168)	331
1967	5,073	2,137	2,207	227	172	(146)	330
1968	5,157	2,149	2,179	251	159	(128)	419
1969	5,145	2,157	2,155	300	146	(98)	387
1970	5,116	2,081	2,211	277	93	(55)	454
1971	5,019	2,032	2,193	252	111	(99)	431
1972	5,335	2,203	2,439	225	103	(76)	365
1973	5,625	2,325	2,608	216	102	(77)	374
1974	5,705	2,426	2,567	249	125	(92)	338
1975	5,602	2,360	2,507	257	119	(90)	359
1976	5,856	2,507	2,623	274	103	(78)	349
1977	5,648	2,440	2,350	256	114	(87)	488
1978	5,537	2,426	2,224	288	116	(90)	483
1979	5,356	2,449	2,024	318	134	(95)	431
1980	5,114	2,374	1,935	338	100	(67)	368
1981	5,158	2,404	2,031	334	94	(65)	294
1982	4,812	2,275	1,810	358	66	(46)	304

資料 :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월보」, 각년호

기업을 감안한다면 農業勞動者의 지위가 上昇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를 전체적으로 볼 때 農家就業者는 1963년부터 1982년까지는 거의變動이 없으나 전체의 就業者는 매년 2%以上 増加하고 있으므로 이만큼의 수가 그대로 離農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중 호주층의 變化는 적으므로 대부분 農家の 차남, 삼남 및 딸들이 유출된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¹⁴⁾

4. 離農의 社會的 要因

가. 離農의 類型

농촌에서 도시로의 離農類型에는 ① 家口構成員 전체가 移動하는 “全家族移動”(家族의 移動), ② 家口構成員중 일부분(1인 또는 2인 이상)만 移動하는 “部分家族移動”(家族의 分散)의 두 종류가 있다. 前者의 경우에는 離農에 따라 農地의 처분(매각하는가 임대해 주는가) 문제가 발생하며 後者の 경우 노동력의 감소에 따라 청년층, 고학년층의 流出로 인한 農村勞動力의 질적저하와 家族의 分散에 따른 諸般問題가 發生하게 된다.

全國的인 水準에서 離農의 類型을 구분하고 그 推移를 추정한 것으로 배진한의 研究가 있다.¹⁵⁾

<表2-14>는 離農類型別 階層構成的 推移(1960~75年)를 보인 것이다. 여기서 보면 全家族 離農人口가 部分家族 離農人口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70年代에 들어서면서 農業의 수익성이 上昇하고 Inflation의 여파로 農地價格이 急上昇한 관계로 全家族 移動에는 제동이 걸리고 部分家族 移動의 경우 全家族 이동과 같은 마찰이 적고 比較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매스컴과 교통망의 發達과 함께 韓國經濟의 急成長에 의한 都市의

表2-14. 이농유형별 · 계층구성의 추정, 1960~75

	0.5정보미만	0.5~1.0	1.0~2.0	2.0정보미만	계	
가구유출	2,610 (55.8)	1,557 (33.3)	513 (10.9)	—	4,680 (100.0)	(68.2)
단신유출	606 (27.8)	705 (32.3)	681 (31.2)	190 (8.7)	2,182 (100.0)	(31.8)
계	3,216 (46.9)	2,262 (33.0)	1,194 (17.4)	190 (2.7)	6,862 (100.0)	(100.0)

資料: 배진한, “農村勞動力流出과 勞働市場”, 『勞働經濟論集』, 제4권 제2호, 1977. 9, 한국노동경제학회, p. 142.

表 2 - 15. 성, 연령 및 배우관계별 이동인구(15 세이상)

(단위: 명, %)

	1966 - 70 (10 % 표본)			1971 - 75 (5 % 표본)			1976 - 80 (15 % 표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시 부	1,426,868	676,545	750,322	1,419,491	630,512	788,979	2,072,887	944,493	1,128,394
미 혼	634,553 (44.5)	333,625 (49.3)	300,927 (40.1)	730,029 (51.4)	343,949 (54.6)	386,080 (48.9)	1,021,963 (49.3)	500,867 (53.0)	520,996 (46.2)
15 - 19	568,554 (39.8)	279,223 (41.3)	289,336 (38.6)	469,001 (33.0)	210,614 (38.4)	258,387 (32.7)	580,136 (28.0)	268,938 (28.5)	311,198 (27.6)
20 - 24	57,751 (4.0)	47,705 (7.1)	10,047 (1.3)	197,945 (13.9)	82,478 (13.1)	115,467 (14.6)	344,435 (16.6)	152,151 (16.1)	192,284 (17.0)
25 - 29	6,597 (0.5)	5,564 (0.8)	1,034 (0.0)	55,715 (3.9)	45,246 (7.2)	10,469 (1.3)	86,786 (4.2)	72,375 (7.7)	14,411 (1.3)
30 이 상	1,651 (0.1)	1,134 (0.2)	517 (0.08)	7,368 (0.5)	5,611 (0.08)	1,757 (0.2)	10,606 (0.5)	7,503 (0.8)	3,103 (0.3)
유 배 우	708,576 (49.7)	333,235 (49.3)	375,341 (50.0)	616,215 (43.4)	279,281 (44.3)	336,934 (42.7)	954,260 (46.0)	432,597 (45.8)	521,663 (46.2)
15 - 19	-	-	-	6,289 (0.4)	487 (0.07)	5,802 (0.7)	7,206 (0.3)	440 (0.05)	6,766 (0.6)
20 - 24	290,893 (20.4)	87,471 (12.9)	203,422 (27.1)	87,549 (6.1)	8,309 (1.3)	79,240 (10.0)	150,955 (7.3)	17,599 (1.9)	133,356 (11.8)
25 - 29	172,580 (12.1)	100,553 (14.9)	72,028 (9.6)	178,267 (12.6)	74,503 (11.8)	103,764 (13.2)	301,587 (14.5)	128,311 (13.6)	173,276 (15.4)
30 - 34	103,706 (7.3)	61,114 (9.0)	42,594 (5.7)	120,957 (8.5)	71,417 (11.3)	49,540 (6.3)	187,430 (9.0)	111,746 (11.8)	75,684 (6.7)
35 - 39	55,362 (3.9)	32,877 (4.9)	22,485 (3.0)	85,078 (6.0)	47,682 (7.6)	37,396 (4.7)	110,777 (5.3)	63,094 (6.7)	47,683 (4.2)
40 - 44	33,709 (2.4)	20,233 (3.0)	13,476 (1.8)	51,616 (3.6)	28,890 (4.6)	22,726 (2.9)	79,434 (3.8)	45,626 (4.8)	33,808 (3.0)
45 이 상	52,324 (0.4)	30,938 (4.6)	21,386 (2.8)	86,459 (6.1)	47,993 (7.6)	38,466 (4.9)	116,871 (5.6)	65,781 (7.0)	51,090 (4.5)
이 혼	74,104 (5.2)	7,669 (1.1)	66,444 (8.8)	6,915 (0.5)	1,343 (0.2)	5,572 (0.7)	7,862 (0.4)	2,084 (0.2)	5,778 (0.5)
사 던	9,725 (0.7)	2,015 (0.3)	7,709 (1.0)	65,672 (4.6)	5,729 (0.9)	59,743 (7.6)	88,802 (4.3)	8,845 (0.9)	79,957 (7.1)
미 상				860 (0.06)	210 (0.03)	650 (0.08)			

자료: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1970, 1975, 1980 (인구이동원 표본조사)

고용 擴大에 對應하여 靑年層이 단신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增加하였다.¹⁶⁾

80年代부터 韓國經濟가 경기침체의 국면에 들면서 농가경제가 악화되고 이에 따라 전가족 이동도 그 수가 다시 증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농촌에 빈집이 늘고 학력아동이 감소하여 교실이 남아돈다는 내무부의 조사도 있다.¹⁷⁾

농촌→도시 移動人口의 연령구성은 <表 2-15>에서 보는 것처럼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까지의 청년층이 압도적이다. 이 사실은 전가족 이동이나 부분가족이동의 양쪽 모두 마찬가지이다.¹⁸⁾

이형덕과 김종덕의 논문에서는 이들 젊은 층이 이주하는 이유로, 새로운 상황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고 나이든 사람보다 移住를 포함한 새로운 기회에 대해 쉽게 적응하는 경향이 있고, 일을 시작하는 초기에 놓여 있고 住居地의 사회·경제적 연대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⁹⁾

이러한 이유외에도 교육목적을 위한 숫자가 전체 部分家族 移住의 33%나 되었고 部分家族 移住者의 96%가 미혼이었다. 이는 분가와 동시에 離農한 核家族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으나 미혼이 결혼한 사람보다 쉽게 이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表 2-16>에서 보면 離農者의 학력은 농촌에 남는 사람보다는 일반적으로 높고 최근으로 올수록 교육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이는 농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학력인플레이션”현상과 비교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離農類型이 각 階層別로는 어떠한 性格을 갖고 있는가?

家族離農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앞의 <表 2-14>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 영세농층에 집중되어 있다.

1968年 7月 배무기 교수가 調査한 바에 의하면 1949~68년까지의 유출農家中 0.5정보 미만인 60%, 0.5~1.0 정보가 31%, 1.0~2.0 정보가 9%씩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²⁰⁾ 윤종주 교수가 1970年 12월에 調査한 바에 의하면 과거 5년간 전출한 농가의 81.2%가 3,000평(1 ha) 미만의 영세농이었던²¹⁾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만갑교수가 6 부락에 관해서

表2-16. 교육정도별 이동인구 (6 세이상)

	1966~70			1971~75			1976~80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국민학교 (재학, 졸업, 중퇴)	876,922 (48.6)	347,927 (39.8)	528,995 (56.8)	722,719 (42.0)	271,735 (34.5)	450,984 (48.4)	780,353 (31.5)	421,933 (23.3)	592,952 (30.5)
중 학교	404,231 (22.4)	219,200 (25.1)	185,031 (19.9)	457,373 (26.6)	208,774 (26.5)	248,599 (26.7)	729,410 (29.5)	339,967 (18.8)	446,969 (23.0)
고등학교	270,582 (15.0)	189,704 (21.7)	80,878 (8.7)	341,623 (19.8)	213,028 (27.0)	128,595 (13.8)	680,472 (27.5)	550,103 (30.4)	557,050 (28.7)
초 대 (전문이상)	81,148 (4.5)	67,882 (7.8)	13,266 (1.4)	77,922 (4.5)	62,462 (7.9)	15,460 (16.6)	140,812 (5.7)	438,119 (24.2)	202,760 (10.4)
불 취 학	171,565 (9.5)	49,099 (5.6)	122,466 (13.2)	121,487 (7.1)	32,587 (4.1)	88,900 (9.5)	145,690 (5.9)	58,426 (3.2)	142,008 (0.7)
15 세 미 만	41,430 (2.3)	20,127 (2.3)	21,303 (2.3)	22,350 (1.3)	11,337 (1.4)	11,013 (1.2)	34,096 (1.4)	36,496 (2.0)	36,214 (1.9)
15 세 이 상	130,135 (7.2)	28,972 (3.3)	101,163 (10.9)	99,137 (5.8)	21,250 (2.7)	77,887 (8.4)	111,594 (4.5)	21,930 (1.2)	105,794 (5.4)
市 部	1,804,448	873,812	930,636	1,721,124	788,586	932,538	2,476,737	1,808,548	1,941,739

資料 :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1970, 1975, 1980
(인구이동편 표본조사).

관해서 1958년 12월과 1969년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출농가의 계층별 구성이 1958년 12월의 346호 중 82호가移出하였는데 이중 경작지가 없는 농가가 33호(40.2%), 2,000평 미만 26호(31.3%)로 앞의 사례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²²⁾

李英基가 1981년 5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61~80년의 이출농가 조사에서 총 이출농가 33호중 0.5정보 미만 61%, 0.5~1.0정보 30%, 1.0~1.5정보 9%로 조사되었다.²³⁾

어쨌든 농촌으로부터의 가족이농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영세한 貧農層에서 생기는 것이다. 즉 離農은 農外就業機會의 증대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도 농업에 의해 더 이상 생활할 수 없는 결과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도시로 이주한 뒤에도 “현대 도시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비숙련, 非技術的 人的資源”으로 되고 “行商, 日雇 아니면 유흥업에 종사”하여 “都市社會의 下部階層을 構成”²⁴⁾ 하고 있는 것이다.

都市 無許可定着地(관자촌) 구성원의 대부분이 농촌으로부터의 離農民

<表 2 - 17>

직업(대분류)별 이동인구(14세 이상)

	1966 ~ 70			1971 ~ 75			1976 ~ 80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시 부	1,480,626	701,208	779,418	1,471,008	654,027	816,981	1,122,907	970,636	1,152,271
1. 경제활동인구	839,103 (56.7)	551,607 (78.7)	287,498 (36.9)	865,042 (58.8)	491,085 (75.1)	373,957 (45.8)	1,179,991 (55.6)	690,878 (71.2)	489,113 (42.4)
취업자	810,403 (54.7)	529,640 (75.5)	280,793 (36.0)	810,710 (55.1)	453,849 (69.4)	356,861 (43.7)	1,095,408 (51.6)	638,458 (65.8)	456,950 (39.7)
0/1 전문기술 및 관련직종사자	28,936 (2.0)	21,455 (3.1)	7,482 (1.0)	27,276 (1.2)	19,251 (2.9)	8,025 (1.0)	50,012 (2.4)	34,488 (3.6)	15,524 (1.3)
2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	4,773 (0.3)	4,491 (0.6)	283 (0.4)	3,427 (0.2)	3,220 (4.9)	207 (0.03)	3,933 (0.2)	3,871 (0.4)	62 (0.01)
3 사무 및 관리직 종사자	63,147 (4.3)	50,805 (7.2)	12,342 (1.6)	69,454 (4.7)	46,429 (7.1)	23,025 (2.8)	132,332 (6.2)	77,342 (8.0)	54,990 (4.8)
4 판매종사자	121,525 (8.2)	87,926 (12.5)	33,599 (4.3)	104,177 (7.1)	69,826 (10.7)	34,351 (4.2)	130,377 (6.1)	87,257 (9.0)	43,120 (3.7)
5 서비스직 종사자	157,168 (10.6)	48,370 (6.9)	108,798 (14.0)	134,156 (9.1)	41,736 (6.4)	92,420 (11.3)	126,282 (5.9)	54,663 (5.6)	71,619 (6.2)
6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및 수렵업 종사자	26,361 (1.8)	18,636 (2.7)	7,726 (1.0)	25,657 (1.7)	17,055 (2.6)	8,602 (1.1)	19,975 (0.9)	14,159 (1.5)	5,816 (0.5)
7/8/9 생산 및 관련종사자, 운수장비운전사 및 단순노무자	370,601 (25.0)	261,149 (37.2)	109,451 (14.0)	439,937 (29.9)	249,761 (38.2)	190,176 (23.3)	632,497 (29.8)	366,678 (37.8)	265,819 (23.1)
x 분류 불능자	36,678 (2.5)	35,843 (5.1)	836 (0.1)	6,626 (0.5)	6,571 (1.0)	55 (0.01)			
미 상	1,241 (0.08)	965 (0.1)	276 (0.04)						
2. 비경제활동인구	641,522 (43.3)	149,603 (21.3)	491,920 (63.1)	605,966 (46.2)	162,942 (24.9)	443,024 (54.2)	942,916 (44.4)	279,758 (28.8)	663,158 (57.6)

자료: 경제기획원, 「연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1970, 1975, 1980 (인구이동 편)

이라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²⁶⁾

참고로 <表2-17>을 보면 總移住者중 50% 정도가 취업자이며 이들은 대부분 7/8/9(직업대분류기호) 생산 및 관련종사자, 운수장비 운전사 및 단순 노동자(25% 정도), 서어비스직 종사자(10% 정도), 판매종사자...등의 순서인 것을 알 수 있다.²⁶⁾

물론 영세농층 이외에 全家族離農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경우 비교적 대규모 부유층농에서 나오고 있다.

앞의 <表2-14>는 2 정보 이상 유출농가는 없다고 하는 가정에서 작성되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이 자녀에게 높은 教育機會를 부여(교육은 우리 社會에서 중요한 階層上昇의 통로이다)하기 위해 都市로 移住한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절대수에 있어서 전가족 이농의 대부분은 영세농층인 것이다.

한편 부분가족 이농은 거의 각 階層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사례조사에서는 階層性이 보고되고 있는데 <表2-18>은 세계의 사례 보고에서 각각 다르게 보고되고 있는 것을 비교한 것으로 어느 것이 현실에 타당한 것인가는 더욱 많은 사례조사에 의해서 실증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우리의 논의를 요약한 것이 <圖2-4>이다.²⁷⁾

表 2-18. 단신유출자의 출신농가규모

單位: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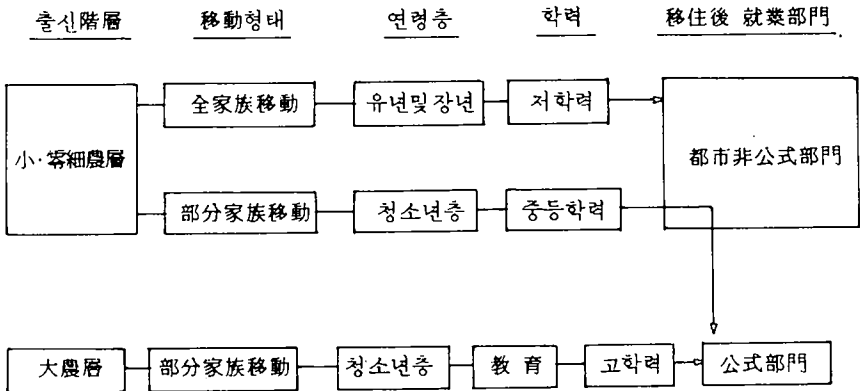
경 지 구 모	정병휴조사 ¹⁾	안병직조사 ²⁾	김대환조사 ³⁾
無	32(16.4)	—	86(24.2)
0.5 정보미만	65(33.3)	47(22.4)	46(12.9)
0.5 ~ 1.0	27(13.9)	83(39.5)	60(16.9)
1.0 ~ 1.5	46(23.6)	49(23.3)	69(19.3)
1.5 ~ 2.0	25(12.8)	21(10.0)	47(13.2)
2.0 정보이상	25(12.8)	10(4.8)	48(13.5)
계	195(100.0)	210(100.0)	356(100.0)

資料: 1) 丁炳然, “韓國의 農業勞動에 관한 一考察”, 「經濟論集」, SNU, 1967. 6.

2) 安秉直, “韓國農村地域에 있어서의 雇傭, 勞動生産性 및 實質賃金率”, 「經濟論集」, SNU, 1973. 3.

3) 金大煥外, 「離村女性의 都市生活適應 및 職業移動에 관한 研究」, 이대농촌문제연구소, 1974.

圖2-4. 離農의 類型과 특징



결국 離農의 특징을 요약하면,

(1) 農家人口의 유출은 經濟的으로 빈곤한 小·零細農層을 中心으로 생기는 것이다. 특히 국민층은 全家族 離農의 경우가 많고 이 全家族 離農은 韓國의 農家人口 유출의 태반을 점하고 있다. 그러나 70年代 以後의 고도성장의 지속으로 小·零細農層도 部分가족의 단신 유출이 많아진다.

(2) 연령층은 全家族 離農의 경우 10대 전반의 유년층과 20대 후반에서 30대 전반의 장년층, 部分가족 離農은 대부분이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의 青年層으로 經濟活動人口가 대부분이다.

(3) 離農者의 학력은 農村에 남는 사람보다는 일반적으로 높지만 全家族 離農의 경우 중등학력 程度이다. 다만 학력은 최근에 이르러 점차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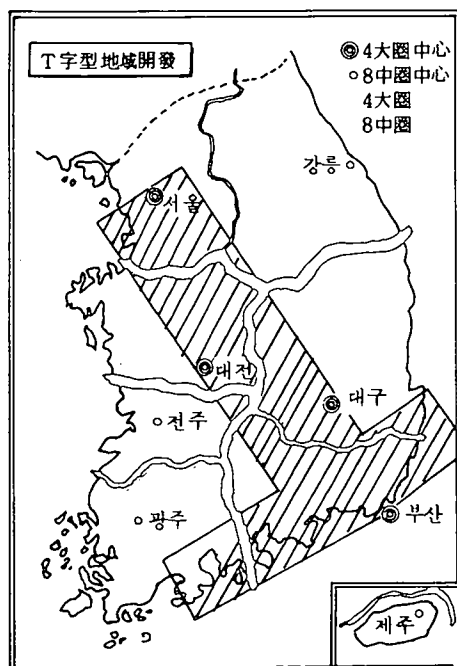
(4) 全家族 離農의 경우 行상, 日雇 등 都市비공식부문을 形成하는 것이 많고 部分가족 離農의 경우 이를 경험하는 것이 적지 않지만 공식적 産業 부문으로 上昇의 가능성이 있고 70年代에 들어서 그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5) 經濟的으로 부유한 大農層의 유출은 小·零細農層과는 性格을 달리고 있다. 다수는 자녀의 취학을 위한 流出이고 고학력을 경험한 뒤 公式的 産業部門으로 就業하여 갔다. 類型으로는 部分가족 移動이 중심이었지만 全家族移動도 조금 있다.

나. 이농의 地域性

이제 이농의 지역적 특징을 알아보자. “오늘의 한반도는 광의의 서울 특별시”²⁸⁾라고 불리울 만큼 서울의 집중도²⁹⁾는 크다. 단적인 예로 서울인구가 전인구의 $\frac{1}{4}$ 이라는 신문 보도³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산업화 = 도시화 = 서울·부산의 거대도시화라는 1960~70년대 국토개발의 기본인식에서 나온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를 “T자형 지역개발”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圖 2-5 참조>.

圖 2-5 1930~70年代 國土開發의 基本認識



資料: 劉甲壽, 「國土開發論」, 建設研究所, 1976, p. 48

이농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이러한 이유때문에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表 2-19>는 타지역에서 서울로 전직된 근로자의 지역별 분담비를 보인 것으로 경기도로부터 서울로 옮겨오는 취업자가

表 2-19 他地域으로부터 서울로 轉職된 勤勞者の 地域別 分擔比

單位: 名, %

地 域	1973 ¹⁾	1976 ²⁾	1981 ³⁾
釜 山	5,829 (12.1)	215 (2.6)	589 (4.2)
京 畿	6,642 (25.2)	1,839 (22.5)	3,204 (22.9)
江 原	1,015 (3.8)	760 (9.3)	928 (6.6)
忠 北	1,369 (5.2)	641 (7.9)	1,093 (7.8)
忠 南	3,353 (12.7)	1,167 (14.3)	1,723 (12.3)
全 北	1,902 (7.2)	926 (11.3)	1,368 (9.8)
全 南	2,566 (9.7)	1,418 (17.4)	2,977 (21.3)
慶 北	1,946 (7.4)	724 (8.9)	1,309 (9.4)
慶 南	1,630 (6.2)	365 (4.5)	675 (4.8)
濟 州	130 (0.5)	105 (1.3)	111 (0.8)
計	26,382 (100.0)	8,160 (100.0)	13,977 (100.0)

1) 1973. 4. 1 ~ 9. 30 기간중 2) 1976. 9. 1 ~ 9. 30 기간중

3) 1981. 4. 1 ~ 4. 30 기간중

註: 10명 이상 사업체의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임.

資料: 노동부, 「노동력 流動實態調査 報告書」, 1973, 1976, 1981.

많은 것은 노동력의 근거리 이동이 선호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전남지역의 경우 취업기회의 부족이 서울로의 노동력 이입을 촉진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 상호간의 노동력 이출입이 심하여 1981년의 경우 서울에서 타지역으로 이진된 총노동자의 50% 정도가 경기도 지역으로 옮겨 가고 있다. 물론 이 통계는 전체 이농자가 아니고 취업자에 국한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이농의 지역성은 국토개발과 고용기회의 증대라는 측면뿐 아니라 대도시, 공업지역과의 거리, 특히 교통통신망의 발달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거리에 의해서도 영향받는 바 크다. 이를 정리하면 첫째, 이농정도의 지역차는 대도시와 공업단지 주변보다도 원격지가 더 심하다.³¹⁾ 둘째, 이농유형별로는 도시주변지역은 부분가족이동, 원격지에서는 전가족이동이 비교적 많다.³²⁾

이는 좀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前者는 농촌인구의 유출

이라는 관점에서 본 특징으로, 농업으로부터 비농업으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도시주변부가 원격지보다 훨씬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단지 도시주변부 농가는 인구의 지역간 이동을 수반하지 않고 비농가화하는데 비해 원격지에서는 농촌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비농가화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아물든 인구의 지역간 이동은 주변부보다 원격지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離農類型別로 볼 때 원격지에 있어서도 점차 單身移動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部分家族의 이농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이들 젊은 층의 단신이동이 나중에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면 전가족이동으로 불리울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다. 이농의 吸引要因 과 排出要因

이농의 요인은 주로 吸引要因(pull factor)과 排出要因(push factor)으로 설명되어 왔다. 즉 도시의 발전에 따른 취업기회의 증대와 도시—농촌간 격차, 문화적 기회의 불리³⁾ <圖 2-6 참조> 등의 요인이 상승작용을 하여 이농을 촉진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表 2-20>은 서울 移入人口의 移入事由를 인구동태 통계연보에서 나타난 대로 집계한 것이다.

表 2-20 서울의 人口移入 圖 表

單位：千名，%

	1971	1974	1980
全國總轉出者	1,332 (100.0)	1,589 (100.0)	2,606 (100.0)
서울移入人口	513 (38.5)	539 (33.9)	782 (30.0)
釜山移入人口	142 (10.7)	234 (14.7)	281 (10.8)
其他道移入人口	677 (50.8)	816 (51.4)	1,543 (59.2)
서울移入事由別(%)			
職 業 的	28.3	28.7	32.5 *
學 業 的	6.0	6.3	3.6 *
家 族 移 動	55.8	52.5	51.5 *
其 他	9.9	12.5	12.4 *

* 1978年 現況임. 市·道間 移動을 基準으로 함.

資料：經濟企劃院, 「人口移動統計年報」, 1971, 1974, 1978, 1980.

함효준(1981)에 따르면 농촌인구의 전출원인은 구직이 13.6%, 교육을 받기 위한 것이 11.6%, 사업관계상 이동이 10.5%, 문화시설이 도시가 나아서가 8.8%, 고용기회 8.4%, 도시생활을 동경해서 7.9% 등 도시에서 끌어당긴 요소가 68% 정도이고, 농촌에서 밀어내는 요소는 22%로써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가난으로 6.7%, 사회적 혼란으로 6.4%, 전통적인 생활의 탈피를 위해서 5.5%, 가족의 파탄으로 1.5%, 신분의 갈등으로 1.0%, 고용주와의 갈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등등을 볼 수 있다. 이 밖에 중간적인 요소로서 기술 및 능력의 발휘를 위한 것이 5.0% 정도 또는 전적이 3.7% 군경험 1.2%로 도합 10%를 차지하고 있다.³⁴⁾

이상의 유출원인 등을 사실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전출인구의 제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출인구에 대한 연구가 실제 자료수집 과정에서 어려움 때문에 비교적 소규모의 사례연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흡인요인과 배출요인은 韓國資本主義의 發展이라는 同一한 過程을 각각 다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한국 사회의 全體的 構造속에서 다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離農이 도시와 농촌 사회의 構造에 미친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離農(유발) 要因의 설명과 함께 離農阻止要因도 찾아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즉 농촌의 객관적 조건이 어려운 현재로서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土地를 떠나는가” 하는 점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지 않는가” 하는 점의 설명도 아울러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⁵⁾

이는 도시쪽에서 보아도 마찬가지다. 우리 나라와 같이 좁은 경지규모를 가지고 있는 農業構造에서는 農民을 農村(土地)에 묶어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다만 이들이 都市로 移住하였을때 도시의 반발력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는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연구는 거의 찾기 어려우나 産業化가 韓國社會에 미친 영향을 全體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다.

라. 離農後의 農村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이러한 離農者가 離農後 자기의 출신지인 농촌과 맺는 관계

에 대해서 간단히 고찰해 보기로 하자. 이 경우 전가족 이농과 부분가족 이농이 차이가 생기는데 전가족 이농의 경우는 토지의 처분문제가, 부분가족 이농의 경우는 송금관계가 중요한 경제적관계로 된다.

전가족 이농의 경우 영세규모층은 농경지를 매각처분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이 돈으로 이농비용, 혹은 도시적응 과정에서 당면한 생활비, 예비비로 사용한다. 이러한 경향은 70년대 이전에 더 많이 보인다.

이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규모층은 7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일반적으로 농경지의 전부를 매각하지 않고 일부만을 매각하고 그외의 在村農家(특히 친척인 경우가 많다)에 임대하고 자신들은 부재지주화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일반농촌의 부재지주의 대부분은 이러한 이농자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³⁶⁾ 그런데 농경지를 완전히 매각한 경우에는 출신지와의 관계는 매우 드물게 되고 대부분 단절되고 만다. 그러나 친척이 있거나 출신지에 조상의 묘가 있는 경우 제사를 위해 년중 수회 왕복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경제적 관계는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더구나 전가족 이농의 경우 도시에서의 생활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출신지에 대한 경제적 기여는 바라기 어렵다. 농경지의 전부를 매각한 경우 기본적으로 출신지와의 관계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에 비해서 농경지의 일부를 매각하지 않고 임대해준 경우 이들은 부재지주가 된다. 그러나 이 경우도 대부분 영세지주에 불과하다. 또 임대료도 定率制이건 定額制이건 거의 자기의 식량을 확보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미 서술한 것처럼 임차인은 친척등이 많고 임대차 관계에 경제적 우열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일제시대에 볼 수 있었던 地主 — 小作간의 身分的 上下意識과는 다른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임대차가 70년대에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부분가족 이농의 경우는 어떠한가? 경제적 관계로서 특히 중요한 것은 送金の 여부이다. 이중 학업을 위해 이동한 경우는 출신농가에서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으로 동거하지 않을 뿐 사실상 扶養家族이 되므로 논의에서 제외한다.

박경수의 조사에 의하면 농촌출신 근로자 184명중 63%인 116명이 송

금하고 있고 1년간 1인당 평균 송금액은 21만 6,200원 이었다. 그러나 이중 6할 정도가 6만원 미만의 소액이고 또 완전히 부정기적으로 송금하고 있었다.³⁷⁾

또 김대환등의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58%가 과거 1년간에 적게는 만원미만, 많은 경우 30만원 이상을 송금하고 있다.³⁸⁾ 또 이형덕·김종덕 조사에서는 36%가 본가에 송금하고 있다.³⁹⁾

이처럼 부분가족 이농자중 근로자의 경우에는 약 40~60%가 많은 적든간에 본가에 송금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박경수와 김대환등은 농가경제의 보조라는 점에서 비교적 긍정적이지만 이형덕씨등은 부분가족 이주자가 본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이다.

우리는 이점에 대해서 하나의 결론을 얻을 수는 없다. 전체적으로 볼때 평균 송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개별적인 경우는 농가수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경수의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농촌출신자의 송금이라고 하는 행위는 그들의 본가에 대해 귀속의식이 있을 경우에 한하고 있다. 결혼하여 독립한 가계를 이루게 되면 점차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 그 이후의 본가와와의 관계는 儀禮的·一時的 關係로 되고 만다. 단지 70년대에 들어서 농가소득 가운데 농외소득 의존도가 커지고 있지만 그 내용은 도시에 나간 농촌자녀의 이러한 송금에 의존하는 것이 크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註 〉

- 1) 이만갑, 권태환, 신용하, 「새로운工業團地의 형성이 農村社會 構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考察」, 서울대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1979. P. 88.
- 2) Duncan Otis, "Humanecology and population studies," in Phillip M. Hauser and Otis Duncan (eds.) [The Study of Popul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3) 홍동식 외 「農村社會學」, 法文社, 1982. pp. 16~20, 참조.
-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년을 향한 農村人口의 展望과 對策」, 1983. 5

- 최양부, “農村發展과 農村計劃,” 대한국토계획학회, 1983년 제 2회 학술발표회, 「한국 농촌개발의 과제」, (1983. 7. 15) 주제발표논문 요지.
- 5) 센서스의 “農家” 개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농수산부, 「농업조사」, 1980. 잔국편(10) p. 10 참조
- 6) 農家人口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총인구의 증가율보다 높다. 이는 農家人口의 出生率이 전국에 비해 높은데서 유추할 수 있다. <表 2-7 참조> 그러나 여기서는 제산의 편의상 같다고 가정하였으므로 農家人口의 流出推定값은 실제보다 적게 평가된 것이다.
- 7) 문팔용, 「한국의 農村開發」, 한국개발연구원, 1981, P. 297.
- 8) 農村部 농업경영연구소
「都市化 — 工業化에 따른 農村人口移動의 地域의 特徵에 관한 연구」, 1974. P. 24
- 9) 宋丙洛, 「韓國經濟論」, 博英社, 1981, P. 47.
- 10) 景氣가 最底點에 이르는 1972년과 1975년의 경우 離農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 그 예로 될 것이다.
宋丙洛, 전제서, P. 47 참조
- 11) 開放農政으로의 轉換에 대해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0년대 새 農政方向의 構想」 정책협의회 시리즈 6. 1981. 1
鄭英一, “韓國農業의 構造變化(1960~80)와 그 對應方向,” 「經濟論集」 제 21권 제 4호(1982. 12) pp. 533~570
鄭英一, “農家所得構造의 推移와 政策方向,” 韓國農業政策學會, 1983년 7월 9일 심포지움 주제논문, 「農村工業 開發과 農業構造調整」, P. 40 참조
- 12) 이에 관해서는
李貞煥, “中小農의 相對的 增加原因과 農地流動化 戰略” 「農村經濟」, 제 6권 제 3호, 1983. 9
李貞煥, “大農層의 相對的 減少原因과 새로운 大農層의 形成展望,” 「農村經濟」 제 6권 제 4호 1983. 12.
李英基, 「1960년대 이후의 農民層分解에 관한 研究」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석사논문(1982) 참조
- 13) 朴珍道, “小農의 經濟法則에 관한 研究” 忠南大 「經商論集」, 1982. 참조.
- 14) 隅谷三喜男, 「韓國의 經濟」, 한울출판사譯, 1983. pp. 45~58.
- 15) 裴益漢, “農村勞動力流出과 勞動市場,” 「勞動經濟論集」, 제 4권 제 2호, 1977.

9. 한국노동경제학회.

- 16) 이형덕, 김종덕, “農村의 家族移住에 관한 研究,” 『農村經濟』, 제 5 권 제 1 호, 1982. 5.

農村經濟 研究院이 경남, 진양, 고성군에서 1981년 3월에 조사한 부분가족 移住조사에 의하면 流出時期는 다음과 같다.

이주년도	65年 이전	66 ~ 70	71 ~ 75	76 ~ 80	1981	계
부분가족이주 자수 (%)	7 (0.7)	32 (3.4)	111 (11.7)	595 (62.6)	205 (21.6)	950 (100.0)

이처럼 部分家族 移住는 70년대에 들어 급격히 增加하고 그 후반에는 폭발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全家族移住보다 많은가 적은가는 알 수 없지만 部分가족 離農이 70년대 후반 급격히 진행된 것을 암시하고 있다.

- 17) 동아일보, 1982. 3. 16 일자

- 18) 배진한, 전개논문, p. 146.

創持和雄, “韓國における 農村農家人口の流出,” 『アジア經濟』, 제 24 권 제 5 호, 1983. 5, p. 8 참조

- 19) 이형덕, 김종덕, 전개논문 p. 58

- 20) 裴茂基, “農地所得 變動에 관한 考察, 1949 ~ 1968.”

『經濟論集』, 제 7 권 제 4 호, 1968. 12, p. 106

- 21) 윤종주, 「農村出生力 및 轉出入口에 관한 研究」, 서울여대 출판부, 1971, p. 53.

- 22) 이만갑, 「農村社會의 構造와 變化」, 서울대출판부, 1973. p. 229.

- 23) 李英基, 「1960년대 이후의 農民層 分解에 관한 研究」,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석사논문, 1982. 7. p. 34.

- 24) 윤종주, 전개서 p. 53.

- 25) 1960 ~ 1970년대에 都市로 들어온 零細農民 출신 移入民들이 都市貧困 家口중 차지하는 비율은 적어도 60% 이상이 되리라고 추산된다. 대도시 빈곤층에 대한 여러 調査 結果를 보면 農村을 出生지로 하는 家口主의 비율이 1972년 임희섭의 조사에서는 80.2%로 보고되었고 서울시 조사(「低所得市民의 生活實態 調査」, 1979)에서는 63.9%, 1981년의 KDI 조사에서는 60.8%, 1981년의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에서는 68.7%로 각각 보고되고 있다.

KDI, 「貧困의 實態와 零細民對策」, 1981. p. 108.

- 26) 이들의 移住農民들의 居住環境, 就業構造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는 都市 非公式部門論, 勞動市場分節化論, 주변화론등, 都市 社會學과 發展論의 理論들

- .에 대한 검토와 社會·人類學的 調査에 의한 實證調査에 의해 理論的 說明力이 검증됨으로써만 올바른 파악이 가능한 것이다.
- 27) 이 그림은 본래 創持和雄, 전계 논문에서 옮겨 그린 것이다. 본래의 그림에는 “都市 雜業層”, “近代의 産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필자가 “都市 非公式部門” “公式部門”으로 말을 고쳤다.
- 28) 朴泰洵, 「國土와 民衆」, 한길사, 1983. p. 20.
- 29) 서울의 集中度를 나타내는 지표는 매우 많다.
박태순, 前掲書, p. 21
김동일, “도시화와 농촌개발” 현대사회연구소발행,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1983. pp. 162 ~ 167. 국토개발연구원, 「제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 2편 인구정착기반의 조성」, 1982. 등 여러곳에서 자료를 발견할 수 있다.
- 30) 중앙일보, 1983. 11. 1일자
서울시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 10월 31일 자정을 기해 주민등록표로 집계한 주민등록 인구는 9백 45만 4천 825명으로 남한인구 (83년 7월 29일 4,000만 돌파)의 4분의 1이 서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常住人口”와는 다르나 가장 최근의 정확한 행정통계이다.
실제의 서울인구는 이보다도 많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출퇴근인구(EPB, 인구 및 주택 센서스 1980의 표본조사에 의하면 12세이상 서울—경기도간 통근·통학인구는 서울상주 → 경기도 통근은 남 122,889. 여 29,453. 계 152,342 명이며 경기도상주 → 서울시 통근자는 남 175,227. 여 64,101. 계 239,328 임)를 포함하고 병역관계 또는 기타 이유로 주민등록이 서울에 되어있지 않은 경우 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다.
- 31) 농림부 농업경영연구소, 전제서, p. 41.
- 32) Lee and Barringer (eds.) 「A city in Transition」 Seoul : Hollym, 1971.
- 33) 농촌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은 圖 2-6 참조
- 34) 함효준, “에너지 수급전망과 인구문제.” 「2000년대를 향한 한국의 인구문제와 정책방향」, KIFP, 한국인구학회, 1981, 홍동식외, 前掲書, p. 120 에서 재인용
- 35)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는 Bryan Roberts, “이농과 농촌구조.” 이효재, 허석렬 편역, 「제 3세계의 도시화와 빈곤」. 한길사, 1983. p. 63 참조
- 36) 오호성, 「경제발전과 농지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1. .

創持和雄, “농지개혁이후의 한국의 농지 임대차문제”, 이인철역
「농촌경제」, 1983.3 참조

- 37) 박경수, “농촌출신 도시공업 근로자의 경제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1, pp. 38 ~ 53
- 38) 김대환외, 「농촌여성의 도시생활 적응 및 직업이동에 관한 연구」
이대 농촌문제연구소, 1974. p. 29.
- 39) 이형덕, 김종덕, 前掲論文, p. 60.

第 3 章

家族과 人口移動：村落人口學的 接近

1. 문제의 제기

人口移動은 國家나 地域의 社會變動과 經濟構造의 變化에 반응하고, 한편으로 移動의 흐름이 始發(origin), 段階(step), 終着(destination) 하는 地域의 社會構造 및 經濟構造를 결정하거나 변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人口移動이 일어나고 있는 社會의 構造의인 특성 및 社會變動의 양상과 관련시켜 볼 때, 人口移動을 보는 視角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개인의 입장에서나 近代化 過程에서 人口移動을 社會移動(social mobility)이라고 볼 때, 移動하는 개인의 成就地位(achieved status)를 상승시키면서 近代化 과정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바람직한 現象으로 人口移動을 생각할 수 있다.¹⁾ 다른 한편의 입장은 人口移動으로 인한 社會問題에 대한 認識에서 출발하여 人口移動을 다루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의 離村向都型 人口移動에 대한 研究가 급증하고 있음은 後者의 視角에 대한 重要性을 말해 주고 있다.²⁾

人口移動은 또한 다른 人口現象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差別的인 出産力은 人口移動의 量과 種類에 영향을 준다. 또한 人口의 증

가를 살펴 볼 때 自然的인 증가와 人口移動에 의한 社會的인 증가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을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全家族移動에서 移住後 子女의 出産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³⁾

우리 나라의 人口移動에 대한 지금까지의 研究는 대부분 이동인구의 選別性이나 이동의 動機나 理由에 관한 것이다.⁴⁾ 또한 전국 人口센서스 資料를 이용할 때 자료의 한계로 年度別 人口規模를 바탕으로 한 패널스터디(panel study)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都市地域으로의 轉入人口에 대한 研究가 많아,⁵⁾ 離村向都型 移動의 종착지에서 人口移動의 특징을 잡고 있어, 農村地域에서의 轉出人口에 대한 研究가 미흡하다 하겠다. 따라서 人口移動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로 人口移動과 다른 人口現象 및 社會現象과의 관계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人口移動에 대한 接近方式으로는 ① 미시경제학적 접근 ② 歷史的·構造的 접근 ③ 家口單位의 전략으로 보는 接近方式 등이 있다.⁶⁾

미시경제학적 접근에서는 人口移動現象을 移動을 통해 얻어지는 社會心理的·經濟的 이득과 그에 수반되는 社會心理的·經濟的 費用에 대한 合理的인 評價에 따른 個人的 意思決定의 結果로 보는 견해이다.⁷⁾ 따라서 個人的 의사결정 모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즉 人口移動을 개인의 意思決定과 실제의 移動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意思決定에 필요한 정보의 種類와 量, 一次集團(家族等)의 역할, 과거 이동경력 등이 주요 變數로 작용하고 있다.

歷史的·構造的 접근은 人口移動現象을 集團 또는 階層의 현상으로 보아, 인구이동을 일으키는 社會的·經濟的·政治的 變動에 초점을 맞추는 견해이다. 즉 개인의 선택이 일어나는 構造的 조건인 經濟構造 및 社會·政治的 상황의 力動的 관계가 研究의 초점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農村地域의 생산·소비의 단위가 家口라는 점에서 家口單位의 분석을 통해 人口移動을 보는 견해가 있다. 이는 개인 수준의 접근(意思決定의 結果)과 構造的 接近의 통합된 형태로, 家口를 둘러싼 環境의 적응방식의 하나로 人口移動이라는 행위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즉 構造的 조건의 변화에 따라 적응하는 가구를 분석하므로, 生活周期에 따른 家口

構成의 變化와 農家經濟의 變化(所得源의 變化 등)간의 力動的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人口移動에 대한 接近方式과 관련되어 이를 分析하는 水準에도 크게 두 가지 경향을 이야기할 수 있다. 저시적 수준의 분석은 地理的 이동이나 社會部門간의 이동의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인구가동에 대한 社會的·經濟的 要因들을 설명하기 위한 排出 - 誘引 模型(push - pull model)이 대표적이다. 誘引要因으로서 고용기회, 賃金수준, 社會的 위세, 文化施設 및 그밖의 다른 긍정적 측면(특히 都市生活에서의 긍정적 측면)등을 들 수 있고, 排出要因으로서 높은 失業率, 經濟的 침체 및 차별대우, 농경사회의 인구압박으로 인한 경제적 불균형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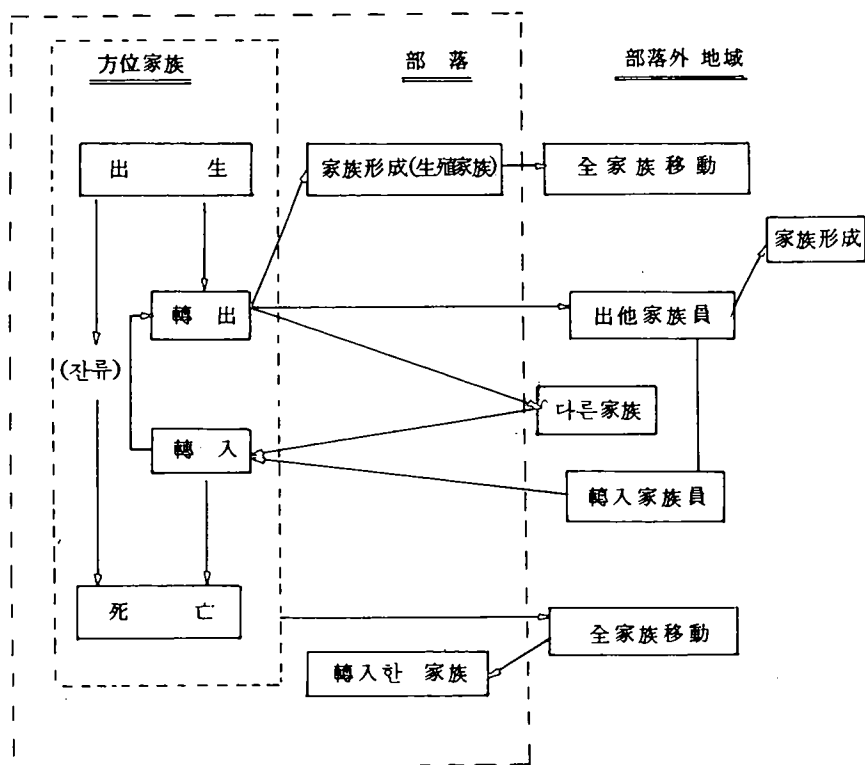
미시적 수준의 분석은 개인의 사회적 배경과 선호도 및 행동의 제약 등의 相互作用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동의 결정과 移動地의 선택 등을 강조하는 모델로, 移動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행위간의 力動關係를 파악하여 人口移動의 選擇性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젊은 연령층이 새로운 環境에의 적응력에 있어서 다른 연령층보다 강하므로 移動性向이 높다든지, 男子가 女子보다 移動性向이 높다든지, 教育 정도가 높을수록 地域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갖게 되며, 따라서 보다 신중히 移動에 대한 意思決定에 임할 수 있다든지, 수준이 높은 직업에 종사할수록 그 직업에 대한 수요가 보다 地域的으로 광범위하게 散在된다든지 하는 人口移動에 대한 假定등을 들 수 있다. 그외에도 結婚狀態, 家族事項 및 住宅所有 등이 移動性向을 좌우하는 큰 要因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國家마다 각기 특유한 經濟現象, 社會構造, 文化 및 慣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된 理論으로 정립하는데 문제점이 많다.

이 章에서 人口移動을 보는 입장은 첫째 家口單位의 전략으로 보아 家口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人口現象(예를 들면 出生, 老化, 死亡 등)과의 관련속에서 人口移動을 보려는 것이다. 이는 종래의 연구들이 인구가동 자체만을 분석하려는 경향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하겠다.

둘째로, 人口移動을 둘러싸고 있는 家族周期的 變化에 초점을 두어, 家

族構成的變化가 어떻게 인구가동의 규모를 규정짓는가, 또한 인구가동으로 나타난農村居住家族의變化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圖3-1>은 家族構成的變化와 人口變動간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圖 3-1. 人口變動與 家族構成



<圖 3 - 1>에서 자기가 태어난 家族 즉 方位家族(family of orientation)에서 轉出하는 경우는 部落 바깥으로 出他하는 경우, 다른 家族으로 出嫁하는 경우, 그리고 分家하여 새로운 家族 즉 生殖家族(family of procreation)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分析對象 家族으로 轉入하는 경우는 出他한 家族員이 다시 方位家族에 합류하는 경우와 다른 家族

으로부터 女子가 시집오는 경우가 있다. 女子가 다른 家族으로 出嫁할 때나 다른 家族의 여자가 시집을 때나 우리 나라에서는 部落外婚이 적용되므로 女子의 결혼은 결국 部落 밖으로의 人口移動을 나타낸다. 이밖에 部落을 中心으로 全家族의 轉出入이 나타난다.

2. 資料의 性格

기본적으로 인구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종류의 資料를 필요로 하는데, 첫째는 人口規模, 인구밀도 및 住居상황에 관한 것이며, 둘째로는 연령이나 性에 따른 구분 혹은 다른 社會的 카테고리(社會階層, 職業, 親族組織 등)에 의해 구분된 인간집단의 人口學的 構造를 말한다. 어느 종류의 자료나 通時的(diachronic)인 接近方法이 요구된다.⁸⁾ 이러한 通時的인 資料는 대개 세가지의 方法으로 수집될 수 있다. 첫째는 기준 年度의 기초 조사(benchmark study)를 바탕으로 하여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조사된 集團을 다시 조사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과거의 사실을 再構成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時點에서 조사하는 方法이며, 마지막으로 젊은 층과 노년층을 비교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變化를 보는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것은 出生集團(cohort)에 대한 分析이다.⁹⁾

本章에서는 1983년 8월 현재 조사부락에 거주하는 全家口에 대한 家口調査를 바탕으로 家族員의 변동을 살펴보기 때문에 한 시점에서 과거를 재구성하는 두번째의 자료수집 방법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村落研究(community studies)에서 행해지고 있는 家口調査에다 家族員의 구성에 대한 변화를 보기 위해 系譜的인 方法(genealogical method)을 포함시켰다. 응답자가 이야기한 家族員의 범위는 子女, 孫子女, 兄弟姊妹, 父母 등으로 家口主의 연령에 따라 調査한 범위가 다소 다르고 面接員에 따라 그 범위가 전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본연구 자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하겠다. 물론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재구성하므로 과거에 全家族이 이동한 경우,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되었다. 따라서 부락 수준에서의

人口規模와 家口數의 변화가 정확하게 추적될 수 없었다는 것도 자료수집의 방법상에 나타난 資料의 제약점이 된다. 그러나 적은 규모의 人口集團을 분석하는 村落人口學的 研究를 시도하여 家族과 部落을 중심으로 人口變動을 파악할 때, 家口調查의 자료 활용문제에 새로운 해결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겠다.

3. 調查部落의 人口構造

가. 調查部落의 概要

本章에서 분석할 調查部落은 경상북도 선산군 고아면 人洞과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口洞의 두개 부락이다. 人洞은 선산-구미간 국도에서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회관 앞 버스정류장에는 선산행 버스가 하루 6회 다니고 있으나, 국도에 나가면 선산·구미·대구 등지의 버스가 자주 있다. 선산까지는 약 5km의 거리이며 구미까지는 약 15km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

人洞은 김해 許氏 同族部落으로 總家口 35戶 중 27戶가 김해 許氏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김해 許氏들간의 系譜는 <圖 3-2>와 같다. <圖 3-2>에서 보면 家口 번호 22가 洞長 집으로 洞長의 18代祖가 入鄉 祖로 약 5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部落이다. 27개 가구 중 가구번호에 동그라미가 쳐진 14개 가구의 家口主는 長男을 나타낸다. 이 14개 가구와 큰집 — 작은집의 관계, 즉 형제관계를 갖는 작은집이 7가구이고 次男이하의 家口主가 4가구이며, 팔호안의 가구(7번과 32번)는 現 家口主가 出他한 김해 許氏의 母가 되어 他姓이나 본래 김해 許氏 집안이다. 두 家口 모두 1人 家口의 형태이다.

<圖 3-3>은 人洞의 마을지도로 두집이 빈집으로 남아 있으며, 1개의 自然部落으로 밀집된 住居形態를 보인다. 지도에 나타난 동그라미 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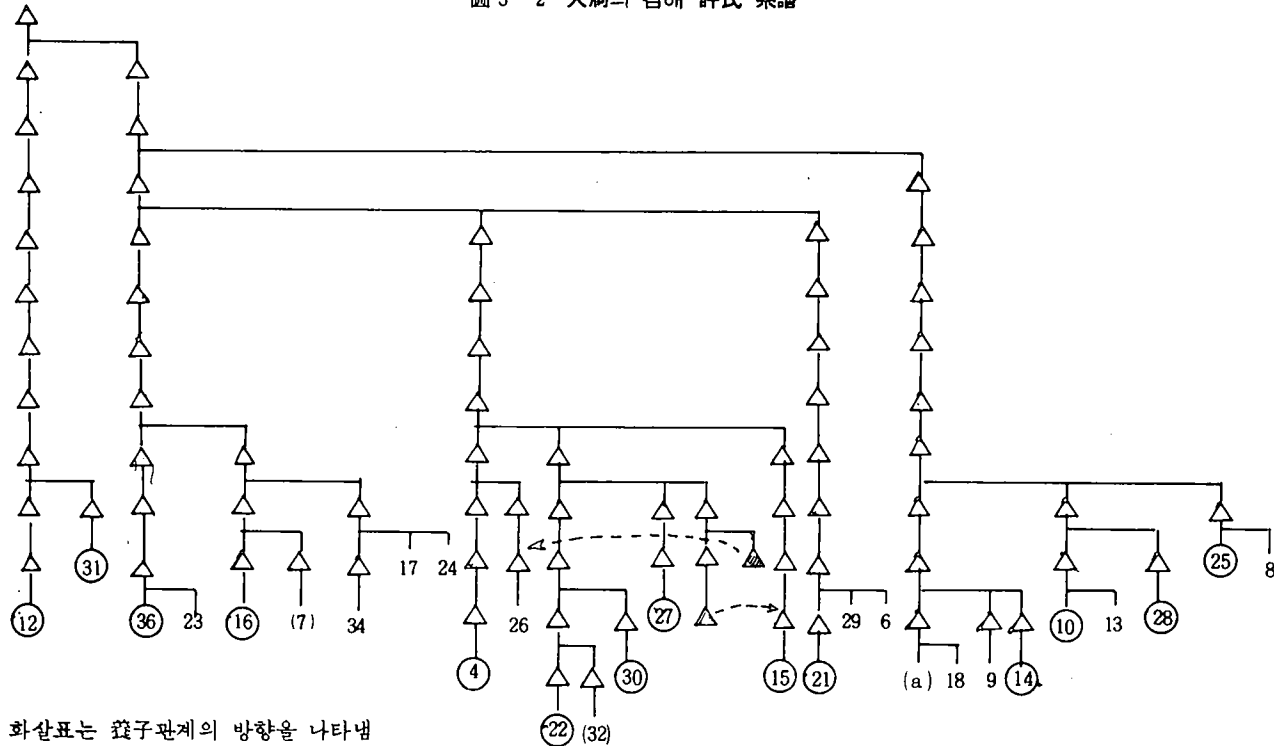
진. 家口는 김해 許氏 同族을 가리킨다. 버스정류장은 마을회관 앞에 위치하는 데 큰 나무가 있어 마을주민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다. 점선이 쳐진 부분(b)은 垆地만 남아 있는 데 許○구氏が 10년전 구미로 全家族移動을 한 후 초가집이라 하여 헐린 곳이다. 許○구氏は 철도국에 다녔는데 이곳에서 구미까지 통근을 하다 아주 구미로 나갔다. 나갈 때 논 700 평, 밭 750 평은 팔고 나머지 논 300 평과 밭 600 평은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다가 許○구氏が 정년퇴직을 한 후 다시 人洞으로 들어오려고 하나 妻와 아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¹⁾ 빈집(a)에서 혼자 살고 있다. 모내기 할 때나 수확·타작시에는 妻가 들어와 일을 돕고 있다. 이러한 계절적인 人口移動現象, 특히 농번기 때 出他한 家族員이 농촌으로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현상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¹¹⁾ 그러나 헐린 집 垆地에다 다시 집을 지으려고 전기계량기를 계속 달아두어, 매월 기본 요금을 내고 있다.

36 번 가구는 별초답을 짓고 있기 때문에 산에서 家口主와 아들이 살고 있고, 마을 내에는 妻와 딸이 살고 있다.

새마을운동의 등급은 운동이 시작된 뒤부터 현재까지 계속 自助마을로 되어 있어 變化보다는 安定을 추구하는 듯 싶다. 이는 현 洞長이 1963 년부터 1980 년까지 洞長을 지냈고 1983 년에 다시 동장일을 보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두번째 分析對象部落인 口洞은 왜관 — 구미간 국도변에 위치한 마을로 교통이 편리하여 家口單位의 轉出入이 매우 잦은 곳이다. 口洞은 3 개의 自然部落으로 구성되어 本洞인 관음정골 <圖3-4 參照>에 42 家口, 초당골 <圖3-5 參照>에 17 家口가 살고 있으며, 산길로 30 분쯤 올라 가면 6 家口가 살고 있는 배시기가 있다. 초당골은 포도밭을 비롯 과수원과 인삼밭이 많고 배시기에도 인삼밭이 많다. 즉 轉入한 가구들은 특수작물과 축산업을 하기 좋은 지형적 여건에 힘입어 들어오거나 정년퇴직을 하고 소나 몇 마리 키우면서 농촌에 살기 위해 들어온 경우(57 번, 94 번 家口 등)가 있다. 또한 교통이 편리하여 다른 農村에서 들어온 家口도 있다. 따라서 10 여년 전에 비해 오히려 경작지가 느는 경향이 보인다.

圖 3-2 人洞의 김해 許氏 系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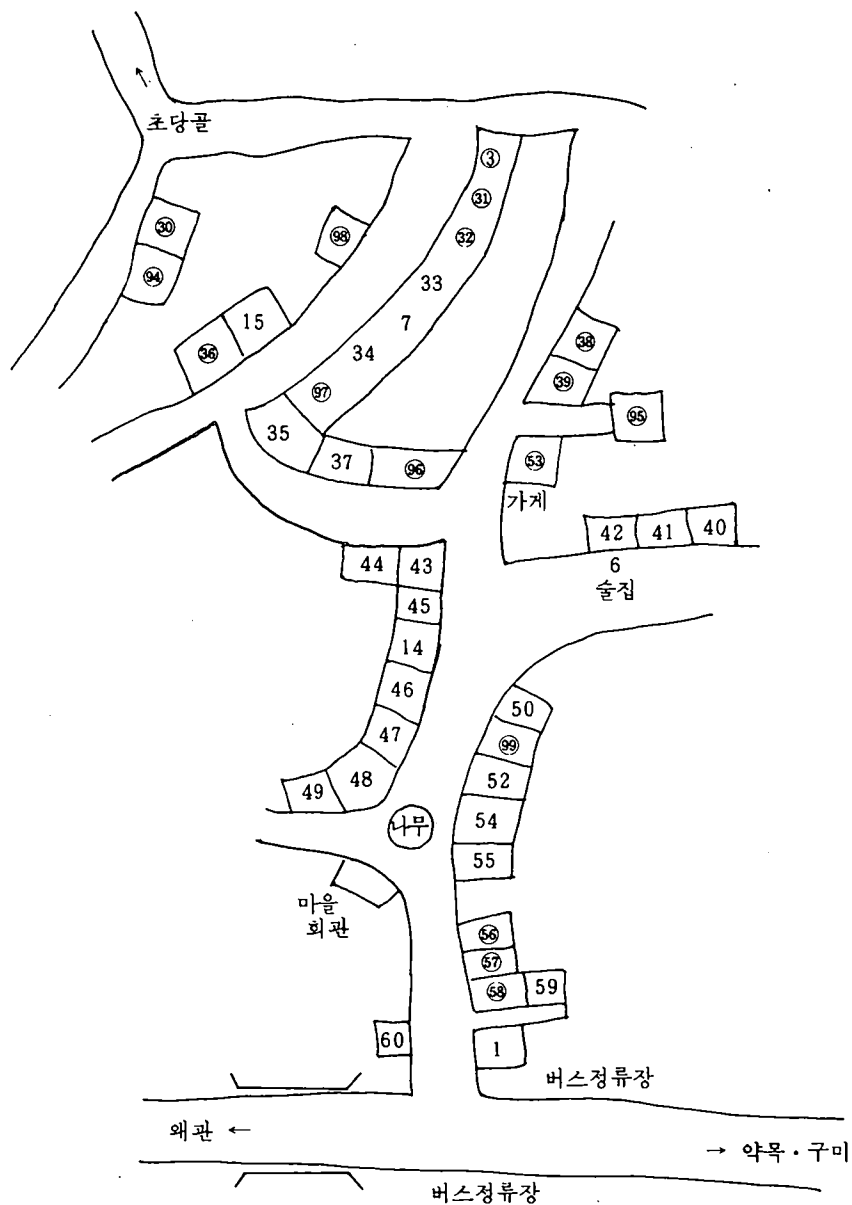


※ 화살표는 簪子관계의 방향을 나타냄

※ 숫자는 家口번호를 가리킴 (마을지도 参照)

※ (a)는 全家口移動후 혼자 빈집에 살면서 농사짓는 사람이다.

圖 3 - 4. 口洞 觀音정골의 마을지도



※ 동그라미 쳐진 가구번호는 轉入가구임.

한편 人洞에는 현재 5 ha 정도의 밭이 놓고 있다. 객지에 나간 사람들의 땅인데 토질이 나빠, 소작을 취도 타산이 맞지않아 지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즉 居住家口의 노동력이 부족하여 사람을 사서 농사를 지을 경우 인건비조차 건질 수 없어 그냥 포플러나무가 심어져 있다.

口洞의 새마을운동 등급은 現 洞長이 1980년에 귀환이동한 사람이라 언제부터 自助마을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自助마을로 되어 있다.

分析對象家口의 數는 <表 3 - 1>과 같다. 人洞의 경우, 同族은 27 家

表 3 - 1. 人 洞 家 族

	人 洞	口 洞
總 家 口 數	35	65
調 查 家 口 數	34	65
45 年 이후 居住家口	27	36
45 年 이후 轉入家口	7 ¹⁾	29 ²⁾

1) 귀환이동 1 家口포함.

2) 귀환이동 4 家口, 分家 1 家口포함.

口 非同族은 7 家口이며, 45 년이래 계속 거주한 家口는 27 家口, 해방이후 人洞으로 轉入한 家口는 7 家口이다. 이를 다시 姓氏別 部落居住期間으로 살펴보면 <表 3 - 2>에서 처럼, 대체로 同族家口는 계속 거주했으

表 3 - 2. 姓氏別 部落居住 期間(人洞)

	轉 入 家 口	45 年 以後 居住家口	계
同 族	1 ¹⁾	26	27
非 同 族	6	1 ²⁾	7
계	7	27	34

1) 귀환이동 家口임.

2) 妻가 同族이므로 妻家살이.

며 非同族家口는 轉入한 家口들이다.¹²⁾ 각각의 경우 1 家口씩 예외가 있는데, 同族으로 轉入한 家口는 몇년전에 死亡한 家口主가 결혼전에 出他

하여 外地에서 가족을 이루고 살다가 몸이 아파 고향으로 돌아온 귀환이동 家口이다. 非同族 家口로 45년 이래 계속 거주한 家口는 家口主의 妻가 김해 許氏로 妻家살이를 하는 경우이다.

口洞의 경우, 人洞과 대조적으로 轉入한 家口가 전체 家口의 44.6%나 되는 29 家口이다. 이에는 귀환이동 가구가 4 家口 포함되어 있어, 人洞에 비해 出他한 사람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많다. 轉入한 家口에 대해서는 全家族移動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결국 人洞과 口洞을 비교하면 人洞은 同族部落이고, 口洞은 家口單位의 轉出入이 심한 非同族部落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人洞은 1개의 自然部落으로 구성되어 밀집된 주거형태를 보이나, 口洞은 3개의 自然部落으로 구성되어 있어 自然部落간의 상호작용이 미흡하다. <圖 3-5>에서 보듯이, 초당골 사람들은 관음정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약목면 소재지로 가는 산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洞長도 초당골이나 배시기 사람들의 근황을 모를 때가 많다.

나. 人口構成

人洞과 口洞의 性別·年齡別 人口피라밋은 각각 <圖 3-6>과 <圖 3-7>과 같다. 人口構成을 살펴보기 위한 指標인 性比, 扶養人口比, 母兒比 등은 <表 3-3>에 나타난 바와 같다. 性比는 男女 人口의 균형을 나타내는 指數로서 보통 100 명의 女子에 대한 男子의 수로서 표시한다. 扶養人口比는 總扶養人口比, 少年扶養人口比, 老年扶養人口比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 少年扶養人口比는 15세 미만의 少年扶養人口를 經濟活動人口(15세~59세)의 比로 나타내며, 老年扶養人口比는 60세 이상의 老年人口를 經濟活動人口의 比로 나타낸다. 母兒比는 간단히 出産水準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0~4세 인구의 可妊年齡인 15~49세 女性人口에 대한 比를 말한다.

<表 3-3>에서 都市—農村 地域間의 차이를 보면, 郡部의 扶養負擔이 市部에 비해서 큰 데 이는 都市—農村間 出産力의 차이와 함께 生産年齡層에 있는 15~34세 인구들이 郡部에서 都市地域으로 많이 轉出

圖 3-6. 口洞의 性別・年齡層 人口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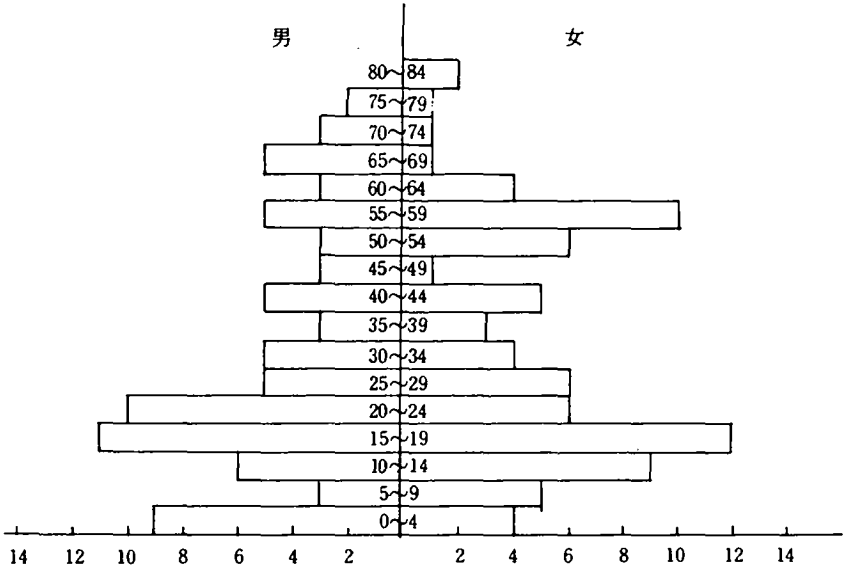


圖 3-7. 口洞의 性別・年齡層 人口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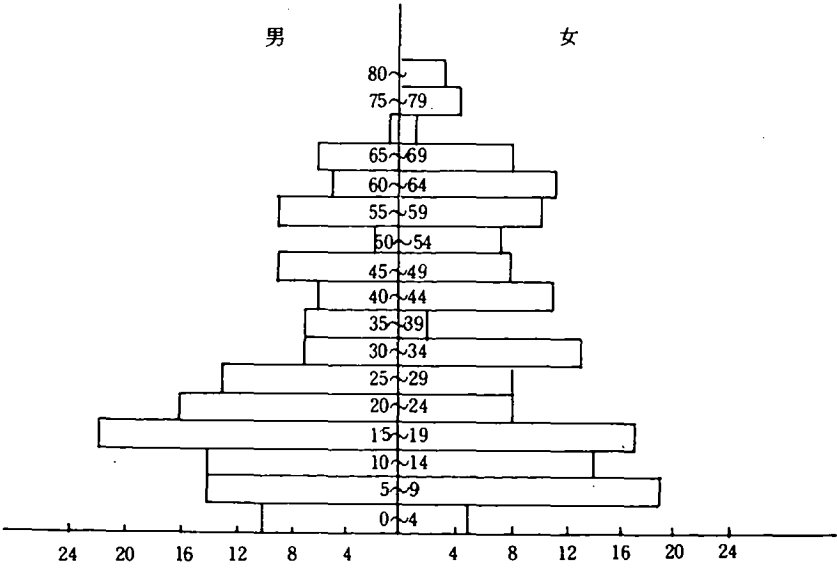


表 3 - 3. 人口構成에 관한 都市・農村의 比較

	農 村 ¹⁾	都 市 ²⁾	人 洞 ³⁾	口 洞 ³⁾
少年扶養人口比	64.1	51.2	34.9	43.4
老年扶養人口比	15.5	6.5	21.4	22.3
總扶養人口比	79.6	57.7	56.3	65.7
母 兒 比	41.7	36.6	35.1	22.4
性 比	101.3	99.9	101.3	94.6

1) 2)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980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에서 각각 郡部, 市部の 수치임.

3) 1983년 8월 현재 人洞, 口洞의 수치임.

한 데서 찾을 수 있다.¹³⁾ 그러나 人洞과 口洞의 두 조사부락을 보면 少年扶養人口比는 市部보다도 낮으며 老年扶養人口比는 郡部보다도 높다. 또한 母兒比도 市部보다 낮아, 生産年齡層이 部落 밖으로 많이 빠져나감과 동시에 결혼한 지 얼마되지 않은 夫婦가 거의 없어 어린 子女들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口洞과 人洞의 인구구성에서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는 少年扶養人口比라 하겠다. 口洞의 少年扶養負擔이 人洞보다 높은 것은 口洞이 人洞보다 全家族의 移入으로 인한 子女의 移入이 많기 때문이다.

다. 人口變動

人洞과 口洞의 人口動態를 요약하면 <表 3 - 4>와 같다.

우선 人洞을 보면, 1945년 1월에서 1983년 8월까지¹⁴⁾ 調査對象 34개 가족에서 살았던 家族員의 數는 325명이었다. 總家族員 325명중 人洞에서 出生한 사람은 230명(70.8%)이며, 全家族 轉入이나 女子의 婚入으로 인한 轉入者의 數는 95명(29.2%)에 달한다. 分析對象期間(1945년 1월~1983년 8월)에 살았던 가족원 중 1983년 8월 현재 조사대상 가족에서 살고 있는 동거자의 수는 161명으로 家口當 平均 4.74人이며, 出他者의 수는 144명, 死亡者는 20명으로 나타났다. 死亡에 대한 조사는 정확하게 실시되지 못하였고, 응답자도 오래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실제로는 더 많은 수의 사람이 그동

表 3-4. 部落의 人口動態

	人 洞	口 洞
總 家 族 員 ¹⁾	325	504
出 生	230	309
轉 入	95	195
同 居 ²⁾	161	290
出 他 ³⁾	144	188
死 亡 ⁴⁾	20	26
出 生 者	230	309
44 年 이전	70	90
45 年 이후	160	216
모 름	0	3
同 居	100	140
出 他	123	152
死 亡	7	17
轉 入 者	95	195
44 年 이전	23	34
45 年 이후	72	161
同 居	61	150
出 他	21	36
死 亡	13	9

1) 總家族員의 數는 1945 年 1 月에서 1983 年 8 月까지 調査對象 家族에서 살
있던 家族員의 數.

2) 1983 年 8 月 현재 對象家族에서 살고있는 家族員의 數.

3) " " 出他한 家族員의 數.

4) " 死亡한 家族員의 數.

안 調査部落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人洞에서 출생한 230 명 중 43.5 %에 해당하는 100 명은 아직까지 人
洞에서 살고 있고 그보다 많은 123 명 (53.5 %)이 출타하였다. 出生者가
部落에 어느 정도 계속 살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는
출생 당시의 性比, 즉 여자의 數가 많은가, 적은가에도 달려 있다. 앞에

서 이야기했듯이 部落外婚이 행해지므로 女子는 출타했거나 앞으로 출타할 사람들이다.

人洞으로 전입한 95 명 중 1944 년 12 월까지 전입한 사람은 23 명으로 모두 다 女子의 婚入으로 인한 것이었다. 45 년 1 월 이후에 전입한 사람은 그동안 婚入한 여자와 全家族 移入으로 살고 있는 7 家口의 家口員을 포함한 72 명이다. 전입자의 64.2 %에 해당하는 61 명은 계속 人洞에 거주하고 있으며 21 명은 다시 출타하였고 13 명은 사망하였다.

口洞의 경우에는 調査對象 65 家族에서 1945 년 1 월에서 1983 년 8 월 사이에 살았던 家族員의 수는 504 명이였다. 총가족원 중 口洞에서 출생한 사람은 61.3 %에 해당하는 309 명이며, 全家族 轉入이나 婚入으로 인한 전입자의 수는 195 명 (38.7 %)이다. 分析對象期間에 살았던 가족원 중 1983 년 8 월 현재 조상대상가족에서 살고있는 同居者의 수는 290 명으로 家口當 平均 4.46 人이며, 出他者의 수는 188 명, 死亡者는 26 명으로 나타났다. 口洞에서 출생한 309 명 중 45.3 %에 해당하는 140 명은 아직까지 계속 살고 있고 그보다 많은 152 명 (49.2 %)이 출타하였다. 口洞으로 전입한 195 명은 현재 口洞에서 살고있는 사람은 76.9 %에 해당하는 150 명이며, 36 명은 다시 출타하였다.

지금까지 부락수준에서의 人口動態를 살펴보았는데, 자료수집의 한계로 分析對象期間 중 全家族이 轉出한 사례가 전부 포함되지 않았고 死亡에 대한 자료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지만, 部落人口의 전체적인 변화에 대한 경향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人洞과 口洞을 비교하면 첫째,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중 本洞出身이 어느 정도이냐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바꿔 말하면 他洞에서 轉入한 사람이 전체 부락주민의 몇 %가 되느냐인데, 人洞은 전체주민의 37.9 %, 口洞은 51.7 %가 他洞에서 轉入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口洞人口移入의 요인으로는 商業農의 가능성과 교통의 편리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¹⁵⁾

둘째로 총전입자 중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人洞은 64.2 %인데 비해 口洞은 76.9 %이다. 이는 人洞의 轉入원인은 주로 婚入이 많고 口洞의 轉入은 家口單位의 轉入이 많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出生한 사람중 出他한 사람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비교해 보면 人洞은 53.5%, 口洞은 49.2%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部落밖으로의 移出現象이 결혼 및 분가와 경제적 여건 등 거의 같은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 주며, 더 나아가서 調査 部落外 어느 部落에서나 移出現象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4. 家族構造의 變化

人洞과 口洞에 거주하는 家口의 構成을 家口主와의 관계 별 人員數를 통해 알아보면 <表 3-5>와 같다.

表 3-5. 家 族 員 의 構 成

家口主와의 관계	人 洞	口 洞
家口主本人	34	65
배우자	30	48
자녀	79	127
子 婦	2	5
孫子女	1	18
父	4	2
母	6	16
兄 弟	1	4
姉 妹	3	3
祖 母	1	1
장 모	0	1
계	161	290

우선 人洞을 보면 34 家口 161명 중 배우자가 30 명이고, 子女의 수가 79 명으로 家口當 平均 2.3 이며 그밖의 家族員이 18 名으로 平均 0.5

人이다. 口洞은 65 家口 290 명 중 배우자의 수가 48 명으로 人洞보다 배우자의 수가 적음을 알수 있다. 子女의 수는 127 명으로 家口當 2.0 이고 그밖의 家族員이 50 명으로 平均 0.8 人이다. 이는 다시 말해 夫婦와 子女가 中心인 夫婦家族(conjugal family)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家口主의 연령별 家族形態를 보면 <表 3-6>, <表 3-7>과 같다.

表 3-6. 家口主의 연령別 家族形態(人洞)

家口主의 연령	夫 婦 家 族				單獨	확대家族	計
	夫婦	夫婦와 子女	父母와 子女	小計			
0 ~ 29 세	-	-	-	-	-	-	-
30 ~ 59 세	2*	14	2	18	0	5	23
60 ~ 89 세	1	6	0	7	2	2	11
計	3	20	2	25	2	7	34

* 家口主의 나이가 각각 51 세, 58 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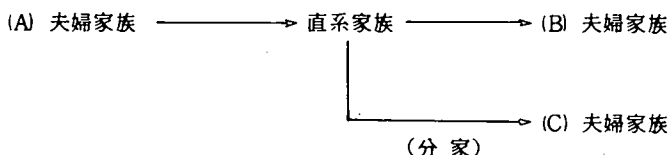
表 3-7. 家口主의 연령別 家族形態(口洞)

家口主의 연령	夫 婦 家 族				單獨	확대家族	計
	夫婦	夫婦와 子女	父母와 子女	小計			
0 ~ 29 세	-	2	-	2	-	2	4
30 ~ 59 세	3*	15	8	26	1	18	45
60 ~ 89 세	4	4	-	8	4	4	16
計	7	21	8	36	5	24	65

* 家口主의 나이가 각각 30 세, 56 세, 59 세임.

韓國家族의 變化는 ¹⁶⁾ <圖 3-8>에서처럼 결혼한 후 長男이 결혼하기 전까지의 夫婦家族이 (A)이고, 長男이 결혼하여 같이 사는 直系家族의 단계를 거쳐, 直系家族에서 最上世代의 사망으로 남게 되는 本家가 (B)의 夫婦家族이 된다. (C)의 夫婦家族은 次男 이하의 아들이 결혼하여 分家한 家族을 가리킨다.

圖 3-8. □ 洞 家 族 의 變 化



資料：呂重哲 1977 “韓國農村의 家族週期和 家族類型”，「韓國文化人類學」，第 9 輯，韓國文化人類學會，p 32.

人洞을 보면 <表 3-6>에서 처럼 夫婦만으로 구성된 1世代의 夫婦家族이 3家口인데, 결혼 후 出産이 없는 初期의 家族形態가 아니라 子女와 함께 사는 2世代 夫婦家族에서 子女의 出他로 남게 된 老夫婦의 家族임을 알 수 있다. □洞의 경우도 7家口の 1世代 夫婦家族 중 1家口만이 子女의 出産이 없는 초기의 가족형태이고 나머지 6家口가 老夫婦만의 家族이다. 즉 한국농촌에서는 새롭게 分家된 家族形態의 출현보다는 移出로 인한 家族의 축소가 많다.¹⁷⁾ 따라서 農村家族構造의 變化를 말해주는 하나의 指標로 농촌에 있어서 혼인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婚姻比率이 낮아짐으로써 家族形成의 비율이 낮아지고, 혼인나이가 남녀간에 높아진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이는 다시 혼인후의 出産率의 저하에 기여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家族의 크기와 構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¹⁸⁾

人洞과 □洞의 家族形態를 비교해 보면 人洞은 夫婦家族이 전체의 73.5%인 25家口, 單獨家口가 5.9%인 2家口, 확대가족이 20.6%인 7家口로 되어 있다. □洞은 夫婦家族이 55.4%인 36家口, 單獨家口가 7.7%인 5家口, 확대가족이 36.9%인 24家口이다. 즉 □洞이 확대가족의 비율이 높은 데 이는 子女가 출타하여 外地에서 결혼 후 살다가 家口單位의 귀환이동을 하여, 本洞(□洞을 가르킴)에서 계속 거주한 父 혹은 母와 함께 사는 사례가 많음으로 인한 것이다.

家族의 크기를 時期別로 보면 <表 3-8> <表 3-9>와 같다. 總家

表 3 - 8. 家族人員別 家族數(人洞)

年度	總家族數	1人	2人	3人	4人	5人	6人	7人	8人	9人	10人	11人	12人	平均家族員數
1983	34	2	4	4	5	5	7	5	1	1	-	-	-	4.74
1980	34	-	5	2	2	9	5	8	2	-	-	1	-	5.35
1975	31	-	1	3	2	6	6	9	4	-	-	-	-	5.81
1970	28	-	-	-	3	5	9	6	2	3	-	-	-	6.29
1965	27	-	-	1	3	4	6	7	1	3	2	-	-	6.48
1960	27	-	1	3	4	5	5	5	-	2	1	-	1	5.81

表 3 - 9. 家族人員別 家族數(口洞)

年度	總家族數	1人	2人	3人	4人	5人	6人	7人	8人	9人	10人	11人	12人	13人	平均家族員數
1983	65	5	9	13	8	7	8	9	4	2	-	-	-	-	4.46
1980	55	4	2	9	6	10	8	6	3	5	-	2	-	-	5.27
1975	48	4	-	5	8	10	7	6	3	2	2	1	-	-	5.38
1970	44	3	1	3	5	10	11	4	4	1	1	-	-	1	5.50
1965	42	2	2	4	6	14	5	5	1	1	1	-	1	-	5.14
1960	40	2	4	4	6	9	6	5	2	1	-	-	-	1	5.00

族數의 變化는 조사 대상가구의 變化만을 본 것이므로 조사부락의 그 당시의 총가구수를 실제로 표시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우선 人洞을 보면 <表 3 - 1>에서 본 7家口의 轉入은 결국 1965년 이후에 일어난 것이다. 1980年代에 들어와서 1人 家口와 2人 家口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平均家族員의 수도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口洞의 경우는 전입한 29家口가 1960년대 이전부터 계속해서 들어왔으며, 1人 家口와 2人 家口가 60년대부터 나타났다. 물론 80년대에 들어와서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平均家族員의 數는 人洞과 마찬가지로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부락의 家族人員別 가족수를 비교할 때 두드러진 것은 1983년 현재 人洞은 6人 家口가 가장 많으나, 口洞은 3人 家口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家口주의 연령<表 3 - 6, 表 3 - 7 參照>을 볼 때 人洞은 20代

家口主가 없는 데 비해 口洞의 경우 20代가 4家口나 있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겠다. 물론 家族員의 移出로 인한 가족의 축소도 중요한 설명변수라 하겠다.

5. 家族員의 人口移動

가. 家族員의 出他

1945년 1월에서 1983년 8월 사이에 調査對象家族(人洞: 34家口, 口洞: 65家口)에서 살았던 가족원중 총 출타자의 수는 人洞의 경우 144명, 口洞의 경우 188명이었다 <表 3-4 參照>. 人洞은 單身移動者가 총 出他者의 75%인 108명, 全家族移動으로 인한 出他者의 수는 分家の 경우로 12家口의 36명(25%)이 된다. 口洞은 총 出他者의 83.5%인 157명이 單身移動者이고, 全家族移動으로 인해 10家口의 31명(16.5%)이 部落 밖으로 이동하였다.

이를 出他理由別로 살펴보면 <表 3-10>에서 보듯이, 人洞의 경우는

表 3-10. 出 他 理 由

	人 洞	口 洞
單 身 移 動	108	157
求職 및 직장이동	44	69
出 嫁 (결혼)	43	60
學 業	16	10
기 타	5 ¹⁾	18 ²⁾
家 口 移 動 ³⁾	36	31
計	144	188

1) 군입대 2, 양자 1, 유배우자의 求職 1, 가정문제(유배우자) 1.

2) 군입대 10, 양녀 1, 가족결합 5, 가정문제 1, 모름 1.

3) 總家口數는 人洞이 12家口, 口洞이 10家口이다.

求職이나 職場移動 등으로 인한 經濟的인 문제가 44명(총 출타자의 30.6%, 총 단신이동자의 40.7%), 出嫁 및 결혼이 43명(29.9%, 39.8%), 學業이 16명(11.1%, 14.8%), 군입대 2명, 양자로 간 경우 1명 등이 未婚 單身移動이며, 유배우자의 單身移動은 2명으로 나타났다.

口洞의 경우에는 經濟的인 문제가 69명(총 출타자의 36.7%, 총 단신 이동자의 44.0%), 出嫁 및 결혼이 60명(31.9%, 38.2%), 學業이 10명(5.3%, 6.4%), 군입대 10명, 양녀 1명, 가족결합 5명, 가정문제 1명, 이유를 모르는 사람 1명 등으로 되어있다. 두 부락을 비교해 보면 出嫁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移出者의 30%내외로 부락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고, 人洞은 口洞보다 경제적인 이유가 적고(6.1%의 차이), 대신 家口移動의 비율이 높으며(8.5%의 차이) 學業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간 많다(5.8%의 차이). 그러나 그러한 약간의 차이보다는 두 부락 모두 가장 큰 세 가지 出他理由의 순서가 經濟的인 問題, 出嫁 및 結婚, 家口移動의 順이라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家口移動에 대해서는 全家族移動에서 주로 다루기로 하고, 單身移動만을 살펴보면, <表 3-11>과 <表 3-12>은 出他理由別 出他地의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表 3-11. 出他理由別 出他地(人洞, 單身移動의 경우)

	求職 및 직장이동	出 嫁	學 業	기 타**	計
도 시	39	13	16	1	69
서 울	13	1	1	0	15
부 산	5	1	3	0	9
대 구	16	8	8	1	33
김 천	2	3	3	0	8
구 미	1	0	0	0	1
기타도시	2	0	1	0	3
농 촌	5	30*	0	2	37
計	44	43	16	3	106

* 6명의 出他地는 出嫁당시는 농촌지역이었으나 1983년 8월 현재 도시지역으로 바뀌었다.

** 군입대는 (2名) 제외함.

表 3 - 12. 出他理由別 出他地(口洞, 單身移動의 경우)

	求職 및 직장이동 ¹⁾	出 嫁	學 業	기 타 ²⁾	計
都 市	66	24	9	4	103
서 울	17	3	2	2	24
부 산	11	2	0	0	13
대 구	24	13	5	2	44
김 천	2	2	0	0	4
구 미	9	2	1	0	12
기타도시	3	2	1	0	6
農 村	2	36 ³⁾	1	2	41
計	68	60	10	6	144

註: 1) 지역을 모르는 1 사람 제외.

2) 군입대 10명, 지역을 모르는 2 사람 제외.

3) 4명의 出他地는 出嫁당시 농촌지역이었으나 1983년 8월 현재 도시지역으로 바뀌었다.

人洞의 單身移動者 106명 중 都市地域으로의 出他地가 65.1%인 69명, 農村이 34.9%인 37명이다. 求職 및 직장이동의 경우 서울 13명, 대구 16명 등 도시지역으로 39명이 나가 求職 등의 經濟的인 이유로 나간 44명의 88.6%를 차지하고 있다. 出嫁의 경우 農村地域이 43명의 69.8%에 해당하는 30명이나 된다. 이중 6명은 출가 당시는 농촌지역이었으나, 그후 행정구역의 변동으로 현재 都市地域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學業의 경우는 16명 전부가 도시로 빠져나가, 人洞에서 떠난 離村向都型人口移動의 이유로는 첫째 經濟的인 문제(전체 離村向都型 人口移動의 56.5%), 둘째, 학업문제(23.2%), 셋째, 出嫁(18.8%)등을 들 수 있다.

口洞의 경우에는 單身移動者 144명의 71.5%인 103명이 都市로 나갔으며 다른 農村으로는 41명이 나갔다. 求職 및 직장이동의 경우, 人洞과 마찬가지로 서울(17명), 대구(24명) 등 都市地域으로 66명이 나가 經濟的인 이유로 나간 사람의 97.1%에 해당된다. 出嫁의 경우는 人洞과는 달리 都市地域으로 40%나 되는 24명이 나갔다. 이는 口洞이 교통이 편

리한 지역이라는 점과 관련시켜 볼 수 있다 하겠다. 學業의 경우는 10명 중 9명이 都市로 나가, 口洞에서 떠난 離村向都型 人口移動의 이유로는 첫째 經濟的인 문제(전체 離村向都型 人口移動의 64.1%), 둘째 出嫁(23.3%), 셋째 學業(8.7%)이라 하겠다.

離村向都型 人口移動의 특징을 두 부락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면, 經濟的인 이유가 압도적이다. 出嫁 및 學業의 이유는 部落別 出産力, 특히 딸의 數와 學業에 투자하는 경향 및 都市와의 거리 및 交通 등으로 인해 部落마다 달리 나타나리라 생각된다.

<表 3 - 13>과 <表 3 - 14>은 時期別 出他者의 移住地 分布와 時期

表 3 - 13. 時期別 出他者의 移住地와 出他理由(人洞, 單身移動)

		60年代以前	60年代	70年代	80年代	計
出他地	都市	4	17	31	17	69
	農村	15	13	7	2	37
出他理由	求職	3	10	18	13	44
	出嫁	15	13	13	2	43
	學業	1	6	5	4	16
	기타	0	1	2	0	3
計		19	30	38	19	106

表 3 - 14. 時期別 出他者의 移住地와 出他理由(口洞, 單身移動)

		60年代以前	60年代	70年代	80年代	計
出他地	都市	9	21	39	32	101
	農村	16	9	10	5	40
	모름	2	0	0	0	2
出他理由	求職	5	19	27	18	69
	出嫁	21	11	15	11	58
	學業	0	0	5	5	10
	기타	1	0	2	3	6
計		27	30	49	37	143 *

* 군입대 10명, 移住時期 모르는 사람 4명 제외

別 出他理由를 나타낸다. 60年代 以前의 出他는 주로 出嫁로 인한 다른 農村地域으로 떠나는 人口移動 現象을 보여주고 있다. 60년대부터 人口移動의 이유가 다양해져 出嫁와 求職이 중요한 役割을 하고 있다. 또한 求職과 學業이 70年代부터 人口移動의 양상을 변모시켜 都市地域으로의 人口移動이 部落 밖으로의 人口移出의 대표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게 하였다.

<表 3 - 15>와 <表 3 - 16>는 出他理由에 따라 出他 當時의 性과 年齡의 分布를 보여 주고 있다.

表 3 - 15. 出他理由別 出他時의 性・ 연령 (人洞)

	求職 및 직장이동		出嫁	學業		기타		家族移動		계	
	男	女	女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0 ~ 4	0	0	0	0	0	0	0	3	0	3	0
5 ~ 9	0	0	0	2	0	0	0	2	2	4	2
10 ~ 14	1	2	0	1	0	0	0	1	2	3	4
15 ~ 19	14	4	4	7	2	0	0	1	1	22	11
20 ~ 24	10	7	35	3	0	3	0	0	4	16	46
25 ~ 29	6	0	3	1	0	0	0	3	4	10	7
30 ~ 34	0	0	1	0	0	0	0	6	1	6	2
35 ~ 39	0	0	0	0	0	0	0	0	2	0	2
40 ~ 44	0	0	0	0	0	0	2	3	1	3	3
計	31	13	43	14	2	3	2	19	17	67	77

人洞을 보면 出嫁로 인해 女子가 男子보다 部落 바깥으로 나갔으며,¹⁹ 單身移動의 경우 10代 후반과 20代 초반에 집중되어 있다. 男子의 경우 총 48명중 10代 후반이 21명(43.8%), 20代 초반이 16명(33.3%)씩이며, 女子의 경우는 60명 중 10代 후반이 16.7%인 10명, 20代 초반이 72%인 42명이다. 이는 여자의 결혼연령과 관련되어 있다. 求職 및 직장이동의 경우, 남자는 15세~19세에 가장 많이 나간 반면 여자는 조금 늦은 20~24세에 가장 많이 나갔다. 학업의 경우는 주로 남자의 이동이유로 나타나, 여자의 경우 出嫁와 求職이 移動을 결정하며 男子는

表 3 - 16. 出他理由別 出他地の 性・ 연령 (口洞)

	求職 및 직장 이동		結婚		學業		기타		家族移動		計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0 ~ 4	-	-	-	-	-	-	-	-	2	4	2	4
5 ~ 9	-	-	-	-	-	-	-	-	-	1	-	1
10 ~ 14	1	1	-	-	-	-	1	-	1	-	3	1
15 ~ 19	17	18	-	11	4	4	-	1	-	2	21	36
20 ~ 24	7	13	1	35	-	2	8	-	-	3	16	53
25 ~ 29	7	-	3	8	-	-	1	-	7	4	18	12
30 ~ 34	1	-	1	-	-	-	-	-	2	1	4	1
35 ~ 39	1	-	-	-	-	-	-	-	-	-	1	-
40 ~ 44	-	-	-	-	-	-	-	-	-	1	-	1
45 ~ 49	-	1	-	-	-	-	-	-	-	-	-	1
50 ~ 54	-	-	-	-	-	-	-	1	-	-	-	1
55 ~ 59	-	-	-	-	-	-	-	1	-	1	-	2
60 ~	-	-	-	-	-	-	-	1	1	1	1	2
計	34	33	5	54	4	6	10	4	13	18	66	115

求職과 學業상의 이유로 農村部落을 떠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口洞을 살펴보면 人洞과 마찬가지로 出嫁가 出他者 集團의 性比(57.4)를 결정하고 있다. 單身移動의 경우 出他者의 연령층도 人洞과 같은 10代 후반(男子의 35.8%, 女子의 35.1%)과 20代 초반(男子의 30.2%, 女子의 51.6%)에 집중되어 있으나, 女子의 경우 口洞은 10代 후반에 求職 및 직장이동으로 많이 나가 20代 초반에 出嫁로 많이 나간 人洞과 대비된다. 求職 및 직장이동의 경우 男女 모두 15세~19세에 가장 많이 나갔다. 결국 口洞에 있어서는 女子의 경우 出嫁와 求職이 移動을 결정하며 男子는 求職으로 대부분 떠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人洞과 口洞의 比較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곳은 女子의 出他理由이다. 人洞은 女子의 21.7%가 經濟的인 이유, 71.7%가 出嫁인데 비해 口洞은 女子의 34.0%가 經濟的인 이유, 55.7%가 出嫁로 나타났다.

이는 時期別 女兒의 出産力이 크게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즉 60년대 전반까지 女子가 部落 바깥으로 나가는 이유는 거의가 出嫁였으나 70年代부터 經濟的인 이유의 비중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出他者와 農村居住家族의 家口主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表 3 - 17>과 <表 3 - 18>에서처럼 子女와 兄弟姊妹가 대부분 나가 있다. 農村居住家

表 3 - 17. 單身出他者와 現家口主와의 관계 (人洞)

	出 他 理 由				計
	求職 및 직장이동	學 業	結 婚	기 타	
長 男	4	9	-	1	14
次男이하	12	4	-	1	17
長 女	3	1	11	-	15
次女이하	9	1	9	-	19
兄	1	-	-	-	1
남 동 생	14	1	-	1	16
자 매	1	-	23	-	24
배 우 자	-	-	-	1	1
母	-	-	-	1	1
計	44	16	43	5	108

表 3 - 18. 單身出他者와 現家口主와의 관계 (口洞)

	出 他 理 由				計
	求職 및 직장이동	學 業	結 婚	기 타	
長 男	8	-	-	1	9
次男이하	16	4	-	3	23
長 女	2	1	17	1	21
次女이하	20	2	12	-	34
兄	2	-	-	1	3
남 동 생	7	-	3	5	15
자 매	10	3	25	1	39
배 우 자	1	-	-	1	2
母	1	-	-	2	3
기 타	-	-	3	1	4
計	67	10	60	16	153

族이 형성된 시기와 出生力의 차이로 인해 出生序列에 따라 出他理由가 다르게 나타나는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表 3 - 19>와 <表 3 - 20>에서는 子女의 경우만을 비교하여 現 農村居住家族에 남아

表 3 - 19. 同居子女와 出他子女의 연령비교 (人洞)

	아 들			딸*		
	同 居 者	出 他 者 的 出他時연령	出 他 者 的 현재연령	同 居 者	出 他 者 的 出他時연령	出 他 者 的 현재연령
0 ~ 4	9	-	-	3	-	-
5 ~ 9	3	2	-	5	-	-
10 ~ 14	6	1	-	10	3	-
15 ~ 19	12	15	-	9	5 (1)	1
20 ~ 24	9	10	12	3	24 (17)	8 (1)
25 ~ 29	5	3	12	3	2 (2)	5 (2)
30 ~ 34	2	-	5	-	-	6 (5)
35 ~ 39	-	-	1	-	-	9 (7)
40 ~ 44	-	-	1	-	-	3 (3)
45 ~ 49	-	-	-	-	-	2 (2)
계	46	31	31	33	34 (20)	34 (20)

* () 안의 숫자는 出嫁로 인한 出他者의 수만을 가리킨다.

있는 子女와 出他子女의 연령을 비교해 보았다. 이러한 비교는 調査部落을 分析單位로 하여 각각의 出生團地(cohort)²⁰⁾에서 어느 정도 나가 있고,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人洞을 보면, 아들의 경우 20 ~ 24 세의 出生集團은 21 명인데 그중 57.1 %인 12 명이 나가 있고 25 ~ 29 세의 出生集團은 17 명으로 그중 70.6 %인 12 명이 나가 있다. 30 ~ 34 세의 출생집단은 7 명 중 71.4 %인 5 명이 나가 있다. 딸의 경우는 20 ~ 24 의 出生集團이 11 명인데 그중 7 명은 求職의 이유로 1 명은 出嫁로 나갔으며 27.3 %인 3 명만이 農村居住家族에 남아 있다. 25 ~ 29 세 出生集團에서는 8 명중 3 명이 求職 차 나갔으며 2 명이 出嫁로 나가 37.5 %인 3 명이 남아있다. 아들과 딸

表 3 - 20. 同居子女와 出他子女의 연령비교 (口洞)

	아 들			딸*		
	同居者의 연 령	出 他 者 的 出 他 時 年 령	出 他 者 的 現 在 年 령	同居者의 연 령	出 他 者 的 出 他 時 年 령	出 他 者 的 現 在 年 령
0 ~ 4	6	-	-	5	-	-
5 ~ 9	12	-	-	11	-	-
10 ~ 14	12	1	-	13	1	-
15 ~ 19	21	15	3	16	17 (6)	3
20 ~ 24	14	9	8	3	30 (18)	12 (4)
25 ~ 29	7	11	9	3	5 (5)	14 (9)
30 ~ 34	2	2	9	-	-	10 (4)
35 ~ 39	1	-	4	-	-	4 (3)
40 ~ 44	-	-	4	-	-	5 (4)
45 ~ 49	1	-	-	-	-	3 (3)
50 ~ 54	-	-	-	-	-	1 (1)
55 ~ 59	-	-	1	-	-	1 (1)
計	76	38	38	51	53 (29)	53 (29)

* () 안의 숫자는 出嫁로 인한 出他者의 수만을 가리킨다.

을 비교해 보면 20 ~ 24 세 出生集團에서 차이를 보여 준다. 즉 남자는 57.1 %가 나갔으나 女子는 72.2 %나 나가 있다. 女子 出他者의 出生集團만을 보면 30 代 이후의 사람들은 대부분 出嫁로 인해 나갔으나 20 代의 出生集團에서는 반대로 求職의 이유가 대부분이다.

口洞의 경우는 20 ~ 24 세의 아들 出生集團은 총 22 명인데 그중 36.4 %인 8 명이 나가 있고 25 ~ 29 세의 出生集團은 16 명으로 56.3 %인 12 명이 나가 있다. 30 ~ 34 세의 出生集團은 11 명 중 81.8 %인 9 명이 나가 있다. 딸은 20 ~ 24 세의 出生集團이 15 명인데 8 명은 求職의 이유로 4 명은 出嫁로 나갔으며 20 %인 3 명만이 農村居住家族에 남아있다. 25 ~ 29 세 出生集團에서는 17 명 중 5 명이 求職 때문에 나갔으며 9 명이 出嫁로 나갔고 17.7 %인 3 명만이 남아 있다.

口洞에서도 人洞과 마찬가지로 20 ~ 24 세 出生集團에서 아들과 딸의

出他가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두 부락간의 性別 出生集團에서 出他的 비율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결국 앞서 문제의 제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人口移動을 家口單位의 전략으로 보아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다.

나. 出他家族員의 移入

현재 調査部落에서 居住하고 있는 사람중 出他하였다가 1960년대 이후 다시 農村居住家族에 합류한 귀환이동자에 대한 특성은 <表 3 - 21>과

表 3 - 21. 1960年代以後 귀환이동자(人洞)

家口 번호	現家口主 와의관계	현재의 나 이	家口로들 어온시기	出他時期	出他理由	移住地	移住地에 서의직업	돌아온이유
22	家口主本人	52	1962	1961	고용살이	상 주	고용살이	농 사 지 을 사 람 없 다
23	家口主本人	49	1968	1965	고용살이	동일면	고용살이	
34	家口主本人	38	1973	1968	농 촌 이 따분해서	대 구 점	원	
28	次 男	22	1975	1969	학 업	대 구 학	생	
21	家口主本人	32	1980	1977	취 업	대 구 운 전	사	농 사 지 을 사 람 없 다
30	三 男	25	1980	1979	구 직	대 구 노 동		
5	長 男	22	1981	1979	구 직	대 구 공 원		여 름 에 는 공 장 이 는 다 시 집 가 해 위
6	三 男	21	1983	1980	구 직	봉 화 노 동		
23	次 男	20	1983.4	1982.7	취 업	대 구 공 원		
36	長 女*	28	?	?	구 직	대 구 공 원		

* 4년간 대구에서 거주.

<表 3 - 22>와 같다. 單身 귀환이동자들은 대부분 出他地에서의 居住期間이 2 ~ 3 년으로 60年代는 다른 農村에서 농업노동에 종사하였고, 70年代 이후는 都市 非公式 部門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다. 귀환가구가 이동의 경우는 出他地에서의 居住期間이 긴 편이며, 나가 있는 동안 부모가 年老해졌거나 다른 兄弟의 分家로 인해 농사지를 사람이 없어 들어온 경우

表 3 - 22. 1960年代 以後 귀환이동자(口洞)

現家口主 와의관계	현재 나이	家口로들 어온시기	出他時期	出他理由	移住地	移住地에 서의 직업	돌아온 이유
本人*	41	1982	1972	구 직	울산/구미	상 업	父 사 망
本人*	30	1982	1975	취 업	서울/진해	상 업	농사지을사람 없
本人*	38	1980	1972	취 업	서울/부산	상 업	母 사 망
本人	25	1979	1978	취 업	부 산	철공소공원	
本人	48	1973	1963	구 직	대 구	장 사	몸이안 좋아서
本人	39	1973	1972	바람써러	대 구	노 동	
本人	29	1972	1970	구 직	대 구	공 원	
本人	31	1972	1966	구 직	대 구	공 원	
本人	64	1971	1951	구 직	동 일 면	농업노동	
本人*	46	1970	1965	누 에 치 려 고	동 일 면	농 업	
長 男*	31	1980	1972	직장이동	대 구	운 전 사	농사지을사람 없
女동생	23	1979	1975	구 직	서울/대구	공 원	
孫	20	1977	1967	부모따라	점 촌	학 생	
長 男 ¹⁾	27	?	?	취 업	대 구	공 원	
本人 ²⁾	31	?	?	구 직	경산/서울	공 원	농사지으려고

1) 4년간 대구에서 거주.

2) 경산 2년, 서울 1년 거주.

* 표시는 귀환家口移動을 하였다.

가 대부분이다. 물론 單身 귀환이동자도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들어온 경우가 많으며, 都市에서 아퍼 휴양차 다시 들어오거나, 季節的 失業이나 出嫁 준비 등 다시 都市로 나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경우도 있다. 이는 出他者와 農村本家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중요한 사회적 관계라는 점을 말해 주고 있어, 日本의 경우와는²¹⁾ 대조적인 現象이라 하겠다.

다. 全家族移動

調査對象家族에서 分家하여 全家族移動으로 轉出한 事例는 <表3-23>

表 3 - 23. 家 口 移 動 の 口 例

農村居住家族의 가구주와의관계	떠날때 나 이	移住時期	移住地	移住時職業	現 職 業	비 고
(人洞)						
兄	30	1967	서 울		의무관매원	
長 男	34	1982	구 미	회사원	회 사 원	자 녀 교 육
동 생	30	1967	옥 성	농 업	공 무 원	
동 생	32	1981	대 구		상 업	
작은아버지	30	1953	동일面	농 업	농 업	
長 男	27	1980	대 구	농 업	회 사 원	
長 男	28	1966	인 천	농 업	상 업	
長 男	27	1980	구 미	농 원	공 원	
동 생	43	1973	대 구		노 동	
長 男	43	1974	부 산	농 업	건 축 업	기술살리기위해
큰 兄	42	1973	대 구	농 업	무 직	자 녀 교 육
들 째 兄	32	1968	왜 관	농 업	운 전 사	
(口洞)						
父	67	1982	영 동	무	노 동	생활어려워마로 사는게 편하다
長 男	26	1967	동일郡	농 업	운 전 사	
長 男	26	1978	대 구	무	상 업	
동 생	27	1965	용 문	농 업	운 전 사	
長 男	31	1982	울 산	농 업	공 원	
子 婦	41	1981	왜 관		공 원	
동 생	31	1978	동일面	농 업	농 업	
次 男	28	1979	동일面	농 업	장 사	
長 男	29	1978	구 미	농 업	공 원	
次 男	26	1982	동일面	농 업	농 업	

과 같다.

人洞에서 나간 12家口 중 7家口가 長男의 地位에서 결혼 후 이동하였는데 子女教育 때문에 나갔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다. 또한 2家口는 移住하기 전에는 구미市로 출퇴근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결혼 후 조금 살다 근무지인 구미市로 아주 이사하였다.

口洞에서 나간 10 家口 중 4 家口가 長男의 地位에서 나갔으며 다른 農村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調查部落에 거주하고 있는 家族의 家口主의 동생과 次男이었다. 口洞에서 나간 家口 중 父母가 따로 살려고 部落을 떠난 事例는 1981 년도에 현재 口洞에서 살고 있는 家口와 함께 轉入하였다가 생활이 어려워 따로 사는 것이 편하다고 1 년만에 나간 경우이다. 이외는 반대로 家族員의 합류로 家口移動이 끝난 事例로는 人洞에서 최근 나간 허○해氏네 家族이 있다. 허○해氏는 6 - 7 년전 논 1,000 평, 밭 1,000 평 팔아서 자형하고 같이 금은방하다 현재 독립하여 大邱市에서 금은방을 경영하고 있다. 人洞에는 부모와 23 세된 여동생이 있었는데 母親이 죽자 82 년도 大邱市로 완전 이주하였다. 아버지가 짓던 땅은 현재 마을사람에게 소작을 주었다. 이 事例는 出他한 家族員으로 다른 家族員들이 합류하는 경우인데 家族員(冊)의 死亡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表 3 - 24>은 調查部落에 全家族移動으로 轉入한 家口의 時期를 나

表 3 - 24. 全家族 口入의 時期

	人 洞	口 洞
60 년대 이전	0	3
60 년대	1	6
70 년대	5	9
80 년대	1	11
計	7	29

타낸다. 口洞에서 많이 나타나는 80 년대의 轉入에 대해서는 調查部落의 概要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특수작물과 축산업을 하기 좋은 지형적 여건 때문에 일어나는 現象이다. 1983 년에 移住해 온 노○열氏의 事例를 보면, 그는 퇴직공무원으로 연금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축산업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는 암소 2 마리를 키우면서 논 805 평을 짓고 있다. 현재의 2 마리를 키워서 경험이 쌓이면 큰 목장을 할 계획인데 읍내(왜관) 생활의 習性이 農村에 잘 맞지 않아 어느 정도 갈등을 겪고 있으며, 農村生活이 생각했

던 것보다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농촌으로 들어온 근본 목적은 아들의 大學 학자금 준비를 위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려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그의 친구들도 연금으로 소를 키우고 있는 자기를 잘한 결정이라고 격려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다른 퇴직공무원으로 轉入한 사람은 연고지가 아닌 農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農村部落의 배타성으로 무척 힘들다고 이야기하였다. 결국 農村地域으로의 轉入은 그 地域의 특성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6. 村落人口學의 方向

두 부락에서의 人口變動을 1945 년 이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지만 그보다 앞선 시기에 일어난 人口變動과 비교될 때 農村人口移動에 대한 보다 정확한 意味를 찾아낼 수 있다 하겠다. 이러한 比較를 통해 部落水準에서의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도(carrying capacity)의 變化와 家族의 경지규모의 변화, 家族에 대한 價値觀의 변화, 그리고 農村外的 여건(특히 都市와의 관계)의 變化간의 相互關係 속에서 人口移動을 다른 人口現象과 관련된 家口單位의 전략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겠다. 또한 子女의 移出로 남게되는 老夫婦만의 生活이 都市와 農村에서 각각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를 비교할 때 農村居住家族의 構成과 크기의 변화가 농촌의 社會構造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

村落人口學²¹⁾은 작은 집단의 人口를 분석하게 되는 데, 時代와 地域을 달리한 여러 農村部落에서 연구될 때 地域社會의 諸特性이 人口移動의 方向과 規模를 어떻게 규정지워 주는지, 또한 人口移動이 하나의 地域社會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하겠다.

〈 註 〉

- 1) 金大換 1966 “社會移動으로서의 離農現象”, 「韓國社會學」, 第2집, p 39.
그러나 그는 工業化가 合理的으로 조정될 때 離農現象은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단서를 붙였다.
- 2) 金炯國 1976 “國土開發과 人口移動”, 「韓國의 人口問題와 對策」(金善雄編), 韓國開發研究院, p. 229.
- 3) United Nations 1973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Population Trends」, Population Studies No. 50.
- 4) 尹瑾燮 (1973 “農村人口移動과 관련된 社會經濟的 및 社會心理的 要因의 分析”, 「農大論文集」 4 : 113 - 130, 全北大學校)의 研究는 5년간 轉出家口와 계속 居住한 家口간의 諸 背景變수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吳炯振·王仁權 (1973 “農村人口의 選擇의 特性”, 「韓國農業教育學會誌」 5(1): 49 - 54)의 研究는 全國 統計에 나타난 都市人口와 農村人口를 對比시켰다. 李漢淳 (1971 “韓國內 人口移動의 研究(II)- 移動의 人口構成과 理由를 中心으로”, 「人口問題論集」 13 : 104 - 141)의 研究도 人口動態에 관한 센서스 資料를 바탕으로 移動者의 特性과 理由를 분석하였다. 文承珪 (1972 “農村子女의 移出에 관한 研究”, 서울大 人口 및 開發問題研究所)의 研究는 子女들의 移住地, 移住子女와 本家間의 相互作用, 그리고 移住의 거리 등에 미치는 要因에 대한 分析이다.
- 5) 尹鍾周 1966 “서울市 移入人口에 관한 研究”, 「人口問題論集」 第2號 및 第3號.
金漢超 1975 “우리 나라 大都市 轉入人口의 社會的 性格”, 「釜山大 法學研究」第24卷.
- 6) Wood, Charles H. 1981 “Structural Changes and Household Strategies :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Study of Rural Migration”, 「Human Organization」 40 (4): 338 - 344.
- 7) 金一鈺 1972 “人口移動에 관한 社會心理的 小考”, 「人口問題論集」, 15 : 5 - 8, 參照.
- 8) Baker, Paul T. and William T. Sanders, 1971 “Demographic Studies in Anthrop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 : 151 - 178.
- 9) Hackenberg, Robert A. 1974 “Genealogical Method in Social Anthropology:

„The Foundations of Structural Demography”, [Handbook of Social and Cultural Anthropology] (J. Honigman ed.), Chicago : Rand McNally.

- 10) 이에 대해서 金大換 (1971 「農村女性の 勞働力の 實態 및 利用에 관한 研究」 梨大農村問題研究所, p 22)은 정확한 수치로 이를 밝힐 수는 없지만 離農하여 都市에 流入하는 人口 중 그것이 家族單位の 移動일 경우 그 離農의 제의를 아내로부터 받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말하고 있다.
- 11) Pryor, Robin J., 1979 “Conclusion : Internal Migration in South-East Asia - Patterns, Problems and Policies”, [Migration and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 : A Demographic Perspective], (R. Pryor ed.), Kuala Lumpur : Oxford University Press, p 330.
- 12) 서울近郊 同族部落의 人口移動을 研究한 李容淑 (1979 “서울近郊 農村의 人口移動에 관한 研究 : 京畿道 楊州郡 別內面 廣田里의 事例”, 「人類學論集」 5 : 1 - 48)의 論文에서도 同族과 他姓의 性別·연령층 人口構成이 틀린 이유로 他姓의 경우 20대와 30대의 移入이 많기 때문이라고 說明하였다(15 p).
- 13) 洪思媛 1973 「韓國의 人口와 人口政策」 韓國開發研究院, p 38.
- 14) 6.25 동란으로 인한 人口移動은 자료수집의 어려움과 本章에서의 중요도를 생각하여 취급하지 않았다.
- 15) 李容淑(前掲論文, p 19)의 研究에서도 서울근교 농촌의 人口移入增加의 2대 요인으로 商業農 發達과 서울로의 出退勤可能性을 들고 있다.
- 16) 呂重哲 1979. “韓國農村의 家族週期和 家族類型”, 「韓國文化人類學」 第9輯, 韓國文化人類學會, pp 25 - 37.
- 17) 庾詰仁 1981 “農村家族構造의 家族類型論的 分析”, 「農村經濟」 4(2), 韓國農村經濟研究院, pp 103 - 116.
- 18) 金瑗東 1980 “農村社會의 變化와 爭點 - 人間要素와 社會組織을 中心으로”, 「70年代 한국사회」, 한국사회학회編, 평민사, pp 186 - 187.
- 19) 出他者 集團의 性比는 87.0이다.
- 20) 社會變動에 관한 研究에서 出生集團(cohort)의 중요성은 다음의 論文에서 잘 나타나 있다.

Ryder, Norman B. 1965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6): 843 - 861.

- 21) 이에 대해서는 Vogel의 다음 論文을 參照.

Vogel, Ezra F., 1967 “Kinship Structure, Migration to the city and

Modernization in Modern Japan”, [Aspects of Social Change in Japan]
(R.P. Dore ed.),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91 - 111.

22) 村落人口學的 研究의 例로는 다음과 같은 報告書가 있다.

石川英夫, 半間清榮, 福田隆治 1980 「農村血族の繼承と擴散の動態」, 綜合研究開發機構.

村落人口學의 性格에 대해서는 특히 앞의 報告書에 실린 小林和正의 論文
“家族と人口—村落レベルの調査との関連について—”을 參照할 것.

第 4 章

農村人口移動을 통한 經濟的 關係： 마을, 農家 및 지역간을 중심으로

오늘날 韓國社會變動에 있어 가장 괄목할 만한 現象의 하나로는 農村人口의 급격한 감소를 들 수 있다. 農村人口는 1960 年代 전반만 하여도 全體人口에서 60 %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던 것이 1969 년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되기 시작하다가 1970 年代를 지나면서 絶對數에 있어서 까지 감소하는 現象을 보였다. 이를 1970 ~ 80 年間に 국한하여 보아도 農村人口는 매년 2.26 %씩 감소하여 同期間에 약 322 만명이나 감소되었다. 이로써 全體人口에서 農村人口가 차지하는 비율도 1970 年의 50.2 %에서 1980 年에는 33.6 %로 크게 줄었다.

이와 같이 農村人口가 감소하게 된 원인은 여러가지 社會現象의 複合的인 結果에 의한 것이지만 그 근본적인 요인은 農村 - 都市간의 人口轉出入에 의한 純移動이 農村地域에 不利하게 나타난데서 찾아볼 수 있다.

農村人口의 감소를 유발한 農村人口의 轉出類型은 全家族員이 轉出하는 全家族 移動과 家族員의 일부만이 轉出하는 部分家族移動이 있다. 農村居住地로부터 他地域으로 轉出하는 理由도 여러가지 要因이 複合된 動機에서 유발되고 있다.

原居住農村地域에서 轉出하는 農村人口는 農村本家와의 家族的 結合이나 居住農村地域과의 社會・經濟的 紐帶 속에서 그들과 經濟的 關係를 갖

는다.

그러나 轉出農村人口와 그들 農村本家간에 형성하는 經濟的 關係는 轉出動機 農村本家와의 家族關係, 轉出者和 農村本家の 社會・經濟的 背景에 따라 그 樣相이 달리 나타날 것이다. 뿐더러 農村地域에서 人口轉出이 일반적인 現象이긴 하지만 轉出地域의 社會・經濟的 環境에 따라 地域水準에서의 轉出現象도 각기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轉出者和 형성하는 經濟關係의 樣相 또한 地域간에 달라질 것이다.

轉出者和 農村本家간에 형성하는 經濟關係를 여러가지 類型이나 形態로 分類할 수 있다. 우선 資源의 흐름을 중심으로 본 경제관계에는 轉出者和 農村本家 쌍방간에 資源의 교류가 있는 유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들 중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으로만 資源이 이동하는 유형이다. 또한 교환되는 資源의 내용을 중심으로 볼 때 現金이나 現物만을 또는 現金과 現物을 동시에 교환하는 형태로 經濟關係를 分類할 수 있다.

그렇다면 農村人口移動을 통해 流出者和 農村간에 형성하는 經濟關係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調查資料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명코자 함이 本章의 目的이다. 이를 살펴봄에 있어 本章에서는 8개 調查마을을 중심으로 農村人口의 轉出現況과 經濟關係者數를 보고 經濟關係의 類型, 內容, 經營主와의 關係, 資本額의 流出入規模, 流出人 地域을 중심으로 ① 조사마을수준간, ② 農村本家の 階層간의 經濟的 關係者數와 그 特徵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農村人口流出로 인하여 都市와 農村간에 형성되는 接合現象을 資本의 流出人을 통해 살펴보았다.

本 研究에서는 農村轉出人口를 農村本家에서 流出한 家族員을 지칭한 것으로 그 대상자는 經營主를 중심으로 祖父母, 父母, 兄弟姊妹, 子女, 妻孫子에 이르는 直系家族員(경영주가 女子일 경우에는 男便家系를 중심으로 한 直系家族員)이 포함된다.

또한 資料의 不足으로 深層的인 分析을 하지 못하고 概括的인 現況을 分析하는 水準에 미치고 있으나 農村人口移動으로 인한 農村地域과 流出者간의 형성하는 經濟的 關係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1. 調査地域の 人口流出

本節에서는 8개 마을 調査에서 나타난 離農人口의 특징을 간략하게 기술하려고 한다.

本調査가 가지는 한계점 때문에 이를 全國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이라고는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① 이번 調査에서 파악된 離農者는 調査마을(農村)에 親戚이 남아있는 경우만 調査되었으므로 現在(조사시점 : 1983년 8월) 마을의 별거가족(部分 家族離農)은 파악할 수 있었으나 과거 시점의 部分家族離農 또는 全家族 離農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離農者에 관한 情報은 現在 마을에 남아있는 親戚, 연고자(구체적으로는 면접대상이 된 家口主)를 통해 蒐集된 것이므로 실제 離農者의 見解와는 다를 수도 있다. ③ 8個 調査部落에서의 全家口 調査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8個 部落이 全國 農村을 代表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弱點 때문에 본절에서는 調査의 상세한 記述은 피하고 뚜렷이 드러나는 特徵만 간략하게 기술하려고 한다. 다만 기존의 전국통계에서는 파악될 수가 없는 몇가지 社會學的 變數들에 관한 結果를 보고함으로써 장래의 보다 체계적인 調査研究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表 4 - 1>에서 주목할 만한 現象으로는 첫째 전 기간을 통한 離農者의 數가 60年代 후반부터 급증하여 70年代 초반 수그러졌다가 80年代에 다시 급격히 늘고 있는데 이는 2장의 분석과 일치하는 것으로 본 調査의 타당도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특히 장남의 部分家族 離農이 現在에 올 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은 2장에서도 본 것처럼 傳統的 家族觀이 變化하고 있는 것으로 祖上의 墓를 지키고 祭祀를 지내는 것을 장남이 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이것은 産業化의 趨勢와 함께 生活의 基盤이 農村에서 都市로 이전됨에 따라, 장남에게 토지를 물려주지 않고 교육비 負擔을 많이 하여 社會적으로 천시되고 있는 農業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傾向으로도 해

表 4 - 1. 가족과의 관계별 떠난 해

	~ 60	61 ~ 65	66 ~ 70	71 ~ 75	76 ~ 80	81 ~ 83	계
가 구 주			1			1	2
배 우 자				5	3	2	10
장 남	15	8	19	15	25	36	118
그 외 아 들	6	5	13	40	31	64	159
딸	33	27	47	63	84	76	330
형 제 자 매	202	77	87	73	99	52	590
형제자매가족	2		12	8	3	1	26
며 느 리		1	5	8	9	7	30
손 자 녀		1	4	9	7	12	33
기 타 친 척	8	1	2	5	5	7	28
계	266	120	190	226	266	258	1,326

석될 수 있다.” 또한 經地規模가 협소한 家族經營 形態가 지배적인 現在의 農業條件에서 볼 때 토지의 분할상속으로 인한 耕地規模의 협소화 → 빈곤의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負擔을 막기 위하여 家族의 分散에 의해 家族이 適應하는 樣相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農村所得 構造의 變化 및 都市 農村의 送金關係 중에서 나타났던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다. 이 경우 韓國家族이 그 類形論의 측면에서 볼 때 “直系家族이 그 理想型”²⁾이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産業化의 趨勢에서 “家族”이 分散을 통해 적응 變化하여 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깊은 研究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딸의 경우도 現在에 이를 수록 離農이 늘고 있는데 70年代 工業化가 여성 勞動力을 많이 必要로 하는 勞動集約의 部門에서 많이 進行된 것에 對應하는 것 같으며 이에 따른 女性의 社會的 參與의 욕이 전통적 家族構造의 變化에 미치고 있는 影響力을 發見할 수 있다.

1) 이에 관해서는

김춘동, “이농이 小農의 再生産構造에 미친 영향”, 「人類學論集」, 제 6 집 1983, 參照.

2) 庚詒仁, “農村家族構造의 家族類型論의 分析”,

「農村經濟」, 1981. 6.

<表 4 - 2>에서는 離農 당시의 婚姻狀態가 미혼인 경우에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역시 靑年層이 이농하기 쉽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別居, 離婚, 死別의 경우 매우 적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의 離農後 移住地에서의 適應力이 매우 낮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表 4 - 2. 가족과의 관계별 당시 혼인상태

관계 \ 당시 혼인 상태	비해당 [○]	미 혼	유배우	별 거	이 혼	사 별	계
가 구 주			2				2
배 우 자		1	10				11
장 남	1	89	28		1		119
그 외 아 들		150	14				164
딸	171	167					338
형 제 자 매	332	214	130		5		681
형제자매가족		13	12			1	26
며 느 리			28			1	29
손 자 녀		33					33
기 타 친 척	6	6	10	1		7	30
계	510	673	234	1	6	9	1,433

○ 비해당은 出嫁나 男子가 결혼의 목적으로 移出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表 4 - 3. 가족과의 관계별 떠나간 이유

관계 \ 이 유	취 업	학 업	결 혼 가	가 족 합	군 입 대	피 수 난 물	일 씀 어	고 향	계
가 구 주			1				1		2
배 우 자	6		1	2				1	10
장 남	55	41	12	1	11				120
그 외 아 들	85	51	9		16		2		163
딸	106	47	171	14					338
형 제 자 매	176	31	432	14	21	2	2		678
형제자매가족	2			5	18			1	26
며 느 리	1			5	23				29
손 자 녀	5	1		27					33
기 타 친 척	7		12	10	1				30
계	443	171	648	109	49	2	6	1	1,428

<表 4-3>에서는 이들이 농촌을 떠난 이유가 家族移動, 就業, 學業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家族移動은 分家, 結婚 등 家族의 要因에 의한 이농으로 이 表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結婚을 위한 移動을 제외하고 이는 다시 그 가족이 왜 이농하였느냐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다시 學業, 就業 등의 요인으로 환원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就業을 위해 이농하는 것이 가장 많고 學業이 그 다음으로 나타난다. 이 표에서는 “就業”이라는 肯定的 姿勢에 의한 이농이 많고 “노동하기 싫어서”라는 否定的 姿勢에 의한 이동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表 4-4>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현재 농촌주민들의 대답은 “농사짓기 싫어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4-4.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유

이	유	사 랑 수	%
농사짓기 싫어서		76	24.1
수지계산이 맞지 않아서		62	19.6
먹고 살기 위해		46	14.6
더 잘살려고		17	5.4
직장따라		13	4.1
기술 배우려고		1	0.3
자녀교육		21	6.6
토지부족		19	6.0
발전성이 없어서		12	3.8
도시가 농촌보다 나아서		13	4.1
문화시설이 없어서		6	1.9
깨끗한 생활을 못하니까		9	1.6
사회적 멸시 때문에		10	0.3
자녀들이 싫어하니까		11	0.3
세대차이 때문에		12	0.3
모르겠다		10	3.2
무응답		12	3.8
계		350	100.0

이는 실제로 農村住民들이 삶에 대한 어떤 姿勢와 價値觀을 가지고 있느냐의 差異를 나타내 주고 있다기 보다는 農業의 객관적 열세라는 외적 要因이 個人的 가치관, 태도에 어떻게 影響을 주고 개개의 農村住民에 의해 어떻게 表現되었는가에서 오는 차이 또는 調査者の 調査方法의 差異등이 複合적으로 作用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양적 통계분석에 의한 태도, 가치관의 分析 또는 이에 근거한 pull factor-push factor의 인과적 說明이 매우 어려운 것임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업의 경우 장남과 그외 아들을 합친 아들의 比重이 딸의 比重보다 훨씬 높은 것은 앞의 家族構造의 變化에도 불구하고 남존여비관념(=전통적 家族構造)가 엄연히 農民의 價値觀을 규정짓는 요소로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表 4-5>에서는 離農이유별로 볼 때 現在에 가까와질 수록 就業, 學業을 위한 離農은 比重이 커지고 반면에 家族離農이 감소하고 있는 傾向을 알 수 있다.

<表 4-6>에서는 당시 婚姻狀態別 離農理由를 알 수 있으며 <表 4-7>에서는 떠날때 나이별 離農理由 또 <表 4-8>에서는 최초 이주지별 離農理由를 알 수 있다. 이 表들은 2장의 人口 및 주택센서스 標本調査의 경우와 比較하여 본 調査의 타당도를 입증해 주는 資料로도 될 수 있다.

表 4-5. 이농이유별 떠나간 해

떠나간해 이유	~ 60	61 ~ 65	66 ~ 70	71 ~ 75	76 ~ 80	81 ~	계
취업	27	31	43	59	82	68	310
학업	15	6	16	25	25	45	132
가족이동	170	56	92	86	103	54	561
기타	5	2	3	2	7	14	33
계	217	95	154	172	217	181	1,036

表 4 - 6. 이농이유별 당시 혼인상태

이유 \ 당시 혼인 상태	비해당	미 혼	유배우	별 거	이 혼	사 별	계
취 업		362	76		1	3	442
학 업		171					171
가 족 이 동	509	87	146	1		6	749
기 타		47	10				57
계	509	667	232	1	1	9	1,420

表 4 - 7. 이농이유별 당시 나이

이유 \ 나 이	0 ~ 9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이상	계
취 업	2	195	166	41	18	7	2	7	438
학 업	10	134	22	2				1	169
가 족 이 동	43	129	417	54	15	11	17	45	731
기 타		6	40	5		1	3	2	57
계	55	464	645	102	33	19	22	55	1,395

表 4 - 8. 이농이유별 최초 이주지

이유 \ 최초 이주지	서 울	대도시	시	읍	농 촌	본 가 → 동네	본 동	모 름	계
취 업	122	176	86	15	34	2	2	3	440
학 업	16	61	83	3	7				170
가 족 이 동	82	111	115	41	315	25	45	10	744
기 타	5	5	6	5	14	1		14	49
계	225	353	290	64	370	28	47	27	1,404

<表 4 - 9>는 農民들에게 지금 사시는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移住할 意思를 물은 것으로 離農意思와는 差異가 있으나 대략의 잠재적 離農層을 보여줄 수 있는 資料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移住意思가 없다고 한 사람중에는 都市生活 適應에 대한 능력이나 자신이 없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農村에서의 生活도 지탱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각 階層間의 존재 形態에 대해 調査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表 4 - 10>는 移住意思가 있는 사람들의 아직 移住하지 못한 理由를 물은 것이다. 여기서 보면 이들 대부분이 移住 = 移農으로 생각하고 대답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질문지(questionnaire)의 순서상 離農에 관한 질문이 계속된 후에 이 질문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따라서 <表 4 - 9>의 移住意思도 거의 離農意思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

表 4 - 9. 이 주 의 사

		이 주 의 사	
있	다	74	23.3
모 르 겠	다	12	3.8
없	다	231	72.9
계		317	100.0

表 4 - 10. 아직 못나간 이유

	사 랑 수	비 율
경제적 이유	38	50.0
토지매각 힘들	13	17.1
자녀가 부르지 않아	3	3.9
기술이 없어	2	2.6
부친 병환중	10	13.2
자녀 졸업후	6	7.9
부모님 승락이 없어	1	1.3
현재 농사수확	1	1.3
모르겠다	2	2.6
계	76	100.0

여기서 보면 “經濟의 理由”와 “토지매각이 힘들어서” “부친이 병환 중 이어서”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技術(학력)이 없어서”라는 對答이 의외로 적게 나왔는데 이는 被調査者가 家口主였던 關係로 결국 全家族移動에 대한 조사가 되므로 靑年層의 調査 즉 單身移動의 경우와는 다르게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부모님 승락이 없어서”라는 對答도 매우 적게 나왔는데 이것도 調査者의 연령이 30~50 대이고 대부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지 않아 影響力이 없을 것이고 單身移動까지 고려하면 실제보다 낮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離農意思와 離農沮止 要因에 관한 研究는 잠재적 離農層의 性格 및 農村社會構成의 特徵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를 정확히 調査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調査地域의 人口流出을 마을별로 살펴보면 <表 4 - 11>과 같다. 총 1,530 명을 마을당, 가구당으로 보면 191.3명과 4.7명이 각각 조사마을과 調査家口에서 유출되었다.

表 4 - 11. 현재 거주지별로 본 농촌인구이동자

조 사 마 을	조 사 농가수	현 재 거 주 지						
		합 계	도 시			농 촌	외 국	미 상
			소 계	대도시 ¹⁾	중소도시			
소 산	37 호	202(100.0) (5.46)	112 (55.4)	79 (39.1)	33 (16.3)	86 (42.6)	-	4 (2.0)
현 동	46	218(100.0) (4.74)	122 (55.9)	67 (30.7)	55 (25.2)	87 (39.9)	2 (0.1)	7 (3.3)
대 성	21	103(100.0) (4.90)	67 (65.0)	48 (46.6)	19 (18.4)	34 (33.0)	-	2 (1.9)
중 리	45	210(100.0) (4.67)	111 (52.9)	90 (42.9)	21 (10.0)	99 (47.1)	-	-
오 향	45	176(100.0) (3.91)	96 (54.5)	36 (20.5)	60 (34.0)	76 (43.2)	1 (0.6)	3 (1.7)
망 정	31	158(100.0) (5.10)	122 (77.2)	101 (63.9)	21 (13.3)	33 (20.9)	2 (1.3)	1 (0.6)
무 림	65	277(100.0) (4.26)	165 (59.5)	117 (42.2)	48 (17.3)	106 (38.3)	2 (0.7)	4 (1.4)
과 산	34	186(100.0) (5.47)	146 (78.5)	107 (57.5)	39 (21.0)	37 (19.8)	1 (0.5)	2 (1.1)
총 계	324	1,530(100.0)	941 (61.5)	645 (42.2)	296 (19.3)	558 (36.5)	8 (0.5)	23 (1.5)
마을당 인구이동자수(명)	농가당 인구이동자수(명)	191.3	117.6	80.6	37.0	69.8	1	2.9
가구당 인구이동자수(명)	가구당 인구이동자수(명)	4.70	2.90	2.00	0.90	1.70	0.02	0.07

1) 대도시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시 포함.

2) 가구당 평균 인구이동자수 임.

마을별 家口當 平均 流出家族員數를 보면 오항마을의 3.91명으로부터 파산동마을의 5.47 명의 分布를 보이고 있다. 또한 流出家族員의 現居住地를 중심으로 家族員의 轉出狀況을 보면 총유출가족원 1,530 명의 42.2%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5個 大都市에 集中되어 있고 19.3%가 기타 중소도시로 轉出하고 있어 流出家族員의 61.5%가 도시지역으로 轉出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農村地域으로 轉出한 家族員은 36.5%에 불과했다.

한편 각 마을별 家族員의 地域別 轉出狀況을 보면 파산동마을이 農村地域에 轉出하여 居住하는 비율이 19.8%로 가장 낮는데 비하여 중리마을은 47.1%로 가장 높았다. 반면 大都市로 轉出, 居住하고 있는 流出家族員의 比率을 보면 망정마을이 63.9%로 가장 높았으나 오항마을은 가장 낮은 20.5%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소도시로 轉出·居住하고 있는 比率은 오항마을이 34.0%로 가장 높은데 비하여 중리마을은 10.1%에 지나지 않았다.

8개 調査마을을 통하여 볼 때 오항마을의 輸出家族員중 大都市에 살고 있는 比率이 유별나게 中小都市로 輸出한 比率보다 월등히 낮았다. 이는 이 마을의 중요한 경제적 문화적 生活圈인 춘천시의 影響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轉出家族員중 農村地域으로 流出한 比率이 망정(20.9%), 파산동(19.8%), 무림동(38.3%)마을에서 比較的 낮았다. 이것은 이들 마을과 인접하고 있는 구미시의 影響 때문인 것으로 보아진다.

2. 마을 水準으로 본 經濟關係

農村人口가 流出地域을 떠나는 理由는 주로 個個人에 관련된 여러 가지 要因의 複合的인 動機에서 연유된다. 그러나 個人的 移住動機는 流出地域의 社會, 經濟的 環境에 따라 影響을 받는다. 뿐더러 周邊都市의 社會, 經濟的 環境條件에 따라 農村人口의 流出量과 移住目的이 각기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農村人口 移動을 통해 流出者와 農村 間에 형성하는 經濟關係의 내용이나 樣相이 마을간에 어떠한 特性을 보이고 있나를 보고자 한다.

가. 經濟關係 類型 및 內容

유출가족원과 農村家口間에 형성하는 經濟關係의 類型 및 內容을 마을 水準에서 본 것이다<表 4 - 12>

表 4 - 12. 경제관계 유형별 관계자

조 사 마 율	인 구 이 동 자	합 계	본가로부터 유출적 경제 관계				본가로의 유입적 경제 관계			
			소 계	현 금	현 금+ 현 물	현 물	소 계	현 금	현 금+ 현 물	현 물
소 산	202(100.0)	29(14.4) (100.0)	14(6.9) (48.3)	3	—	11	15(7.4) (51.7)	11	3	1
현 동	218(100.0)	73(33.5) (100.0)	48(22.0) (65.8)	4	8	36	25(11.5) (34.2)	17	1	7
대 성	103(100.0)	12(1.7) (100.0)	9(8.7) (75.0)	2	1	6	3(2.9) (25.0)	2	1	—
증 리	210(100.0)	44(21.0) (100.0)	40(19.0) (90.9)	6	9	25	4(1.9) (9.1)	4	—	—
오 향	176(100.0)	37(21.0) (100.0)	31(17.6) (83.8)	7	15	9	6(2.9) (16.2)	3	3	—
망 정	158(100.0)	23(14.6) (100.0)	9(5.7) (39.1)	4	2	3	14(8.9) (60.9)	7	5	2
무 립	277(100.0)	42(15.2) (100.0)	13(4.7) (31.0)	1	—	12	29(10.5) (69.0)	18	8	3
과 산	186(100.0)	43(23.1) (100.0)	28(15.1) (65.1)	—	6	22	15(8.1) (34.9)	4	8	3
합 계	1,530(100.0)	303(19.8) (100.0)	192(12.5) (63.4)	27	41	124	111(7.3) (36.6)	66	29	16

<表 4 - 12>에 의하면 農村家口에서 流出家族員에게 資源을 流出하는 經濟關係를 맺고 있는 家族員은 流出者 1,530 명 가운데 12.5%에 해당하는 192명이다. 반대로 農村本家에 資源을 流入함으로써 經濟的 關係를 맺고 있는 家族員은 總流出人口의 7.3%인 111 명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經濟的 關係를 숫적인 면에서 볼 때 農村本家(農村)마을에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마을수준으로 經濟的 關係를 맺고 있는 流出家族員을 보면 각각 다음과 같다. 즉 대성마을은 총유출가족원 중에서 11.7%인 12명만이 經濟

의 關係를 맺고 있는데 비하여 천동마을의 比率은 33.5%나 되었다. 유형별 경제관계 家族員을 보면 중리마을에서는 44명 가운데 40명(90.9%)이 農村本家에서 資源을 流出하는 經濟關係者인데 비하여 農村本家로 資源을 유입하는 家族員은 4명(9.1%)에 지나지 않아 8개마을 가운데 가장 불리한 經濟的 關係가 農村本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항마을도 중리마을과 마찬가지로 農村本家和 流出家族員과의 경제적 關係에서 農村本家に 不利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무림동마을, 망정마을, 소산마을에서는 農村本家로 資源을 유입시키는 流出家族員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農村本家に 有利하게 經濟的 關係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農村本家和 流出家族員간 交換되는 內容을 중심으로 經濟的 關係를 보기로 하자 全體의으로 볼 때 現金만의 流入出에 의해 經濟的 關係를 맺고 있는 比率은 30.7%(93명)이었고 現金과 現物을 동시에 주고 받는 자의 比率이 23.1%(70명), 단지 現物만을 交換하는 比率은 46.2%(140명)이었다.

이를 流出과 流入으로 區分하여 살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流出的 經濟關係에서는 現金만을 流出하는 家族員이 192명 가운데 14.1%인 27명이었고 現金과 現物을 동시에 流出하는 比率은 21.4%(41명), 現物만을 流出하는 比率은 64.6%(124명)이었다.

반면에 農村本家로 流入되는 資源의 內容으로 본 經濟的 關係에 있어서는 現金만을 流入시키는 比率이 59.5%(66명), 現金과 現物을 동시에 流入시키는 比率은 26.1%(29명), 現物만을 流入시키는 比率은 14.4%(16명)이었다.

經營主와의 關係別로 資源流出的인 經濟關係를 맺고 있는 家族員을 본 것이 <表 4-13>이다.

이에 의하면 經營主와 아들간에 資源流出的 經濟關係를 맺는 比率이 全體의 47.4%나 되고 있다. 그 다음이 형제자매로써 그 比率은 26.1%(51명)이었다. 그러나 딸이 차지하는 比率은 21.9%로 나타나 經營主의 子女들과 資源流出的 經濟關係를 맺고 있는 比率이 약 70%에 달하였다

表 4 - 13. 경영주와 관계별 자본유출적 경제관계자

조 사 마 을	경제 관계 자	남 편 · 처				부 모				형 제 자 매				아 들				딸			
		소계	현금	현금 + 현물	현물	소계	현금	현금 + 현물	현물	소계	현금	현금 + 현물	현물	소계	현금	현금 + 현물	현물	소계	현금	현금 + 현물	현물
소 산	14 (100.0)				1 (7.1)			1	8 (57.1)			8	5 (35.7)	3		2					
현 동	48 (100.0)	1 (2.1)			1				9 (18.8)			9	33 (68.8)	4	7	22 (10.4)		1		4	
대 성	9 (100.0)				1 (11.1)			1	1 (11.1)			1	4 (44.4)	1		3 (33.3)	1	1		1	
중 리	40 (100.0)				2 (5.0)	1		1	15 (37.5)	2	1	12	12 (30.0)	4	4	4 (27.5)		3		8	
오 향	31 (100.0)	1 (3.2)			1				8 (25.8)		3	5	15 (48.4)	5	8	2 (22.6)	1	5		1	
망 정	9 (100.0)	1 (11.1)			1								4 (44.4)	1	1	2 (44.4)	3	1			
무 립	13 (100.0)								3 (23.1)			3	5 (38.5)	1		4 (38.5)				5	
파 산	28 (100.0)								8 (28.6)			8	13 (46.4)		5	8 (25.0)		1		6	
계	192 (100.0)	3 (1.6)			3	4 (2.1)	1	3	52 (27.1)	2	4	46	91 (47.4)	19	25	47 (21.9)	5	12		25	

이는 총 移住者の 經營主와의 關係에 따른 分布 <表 4-14>와 비교해 볼 때 어떤 關係에 있는 사람이 資源流出의인 經濟關係를 더 많이 맺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아들이 전체 이주자의 19.7%에 불과하나 총자본유출적 經濟關係자의 47.4%에 달하고 있어 아들한테 현금 및 현물 등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다. 또한 형제자매는 전체 이주자의 47.5%에 해당하나 出嫁 및 分家が 주된 이유가 되므로 經濟關係에서는 27.1%만을 차지하고 있다. 딸에 있어서는 전체 이주자의 23.6%, 經濟關係자의 21.9%를 차지하고 있어 아들 다음으로 딸이 두번째의 중요한 資源流出의 經濟關係者가 된다.

마을單位로 보면 經營主와의 關係 構成比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는 마을별로 總 이주자의 構成比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주자의 移住理由에 따라 經濟關係를 맺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이에 영향주는 구조적인 원인으로는 각 마을이 처한 社會經濟的 特性을 들 수 있다.

表 4-14. 經營主와의 關係別 移住者의 數

	數	比 率
남 권 처	13	0.9
아 들	283	19.7
딸	338	23.6
형 제 자 매	681	47.5
기 타	118	8.2
계	1,433	99.9

農村本家로 資源을 流入시키는 經濟關係에 있어서는 <表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들이 점유하는 比率이 50.5%로써 가장 높고 딸과 형제자매는 각각 25.2%, 1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構成比도 전체 移住者の 經營主와의 關係에 따른 分布와 비교해 볼 때 아들에게서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딸이 두번째 중요한 資源流入의 經濟關係者가 된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각 마을水準에서는 經濟關係를 맺고 있는 家族員의

表 4 - 15. 경영주와 관계별 자본유입적 경제관계자

조 사 마 율	경제 관계 자 수	남 편 · 처				부 모				형 제 자 매				아 들				딸			
		소계	현금	현금 현물	현물	소계	현금	현금 현물	현물	소계	현금	현금 현물	현물	소계	현금	현금 현물	현물	소계	현금	현금 현물	현물
소 산	15 (100.0)	1 (6.7)	1							2 (13.3)	2			9 (60.0)	6	3		3 (20.0)	2		1
현 동	25 (100.0)	1 (4.0)	1							6 (24.0)	4		2	14 (56.0)	10	1	3	4 (16.0)	2		2
대 성	3 (100.0)									1 (33.3)	1			1 (33.3)	1			1 (33.3)		1	
중 리	4 (100.0)													1 (25.0)	1			3 (75.0)	3		
오 항	6 (100.0)									3 (50.0)	1	2		1 (17.7)	1			2 (33.3)	1	1	
망 정	14 (100.0)									1 (7.1)	1			7 (50.0)	3	4		6 (42.9)	3	1	2
무 립	29 (100.0)	2 (6.9)	2			1 (3.4)	1			4 (13.8)	3	1		16 (55.2)	7	6	3	6 (20.7)	5	1	
파 산	15 (100.0)									5 (33.3)		2	3	7 (46.7)	2	5		3 (20.0)	2	1	
계	111 (100.0)	4 (3.6)	4			1 (0.9)	1			22 (19.8)	12	5	5	56 (50.5)	31	19	6	28 (25.2)	18	5	5

關係가 마을간에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子女들과의 경제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現象은 農村家族의 機能으로 보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의외로 형제자매들과 맺는 比率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家族結合紐帶로 兄弟姊妹(특히 未婚 兄弟姊妹)를 부양하거나 冠婚喪祭를 비롯한 哀慶事를 통하여 형제간에 經濟的인 협조를 많이 하는 데서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마을별 農村本家에서 流出家族員에게 보낸 現金額別로 본 經濟關係는 <表 4 - 16> 와 같다.

<表 4 - 16>에 의하면 지난 1년간 現金을 보내면서 經濟的 關係를 유지한 家族員은 總 65 명이었다. 이중에서 年間 50~100만원의 現金을 보낸 家族員의 比率는 36.8%이었으며 20~50만원의 現金을 보낸 比率는 25.0%이었다. 반면에 150만원 이상의 現金을 보낸 比率도 14.7%나 되었는데 비하여 10만원 미만의 現金을 보낸 比率는 7.3%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같이 農村本家에서 100만원 이상의 現金을 보냄으로써 經濟的 關係를 유지한 家族員의 比率이 30.9%나 되는 점에 주목을 요한다.

表 4 - 16. 본가에서 송금한 현금액별 경제관계

조사마을	현금구분별								계
	5만원 이하	5 ~ 10만원	10 ~ 20만원	20 ~ 50만원	50 ~ 100만원	100 ~ 150만원	150 ~ 200만원	200만원 이상	
소 산		1 (33.3)	1 (33.3)	1 (33.4)					3 (100.0)
현 동				3 (25.0)	1 (8.3)	4 (33.3)		4 (33.4)	12 (100.0)
대 성		1 (33.3)				1 (33.3)	1 (33.4)		3 (100.0)
중 리	1 (6.7)	1 (6.7)		2 (13.3)	6 (40.0)	3 (20.0)	2 (13.3)		15 (100.0)
오 향		1	2	3	12 (54.5)	3 (13.6)	1 (4.5)		22 (100.0)
망 정				3 (50.0)	3 (50.0)				6 (100.0)
무 림					1 (100.0)				1 (100.0)
과 산			1 (16.7)	1 (16.7)	2 (33.3)			2 (33.4)	6 (100.0)
계	1 (1.5)	4 (5.9)	4 (5.9)	13 (19.1)	25 (36.8)	11 (16.2)	4 (5.9)	6 (8.8)	68 (100.0)

調査마을別로 家族員에게 보낸 現金額別로 본 經濟關係者를 보면 마을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調査마을 중에서 소산마을은 1年間 송금한 現金額 規模가 모두 50만원 미만의 經濟關係者이었는데 비하여 현동마을에서는 100만원 이상을 보냄으로써 經濟的 關係를 맺은 家族員의 8명이나 되었다.

한편 마을간 農村本家에서 받은 現金을 중심으로 經濟關係者를 본 것이 <表 4 - 17>이다.

<表 4 - 17>에 의하면 農村本家に 現金을 보낸 家族員은 95명이었다. 이 중에서 연간 10~50만원의 現金을 보낸 家族員의 比率은 52.6%이었고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보낸 家族員은 9.4%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10만원 미만의 현금을 보낸 家族員의 比率도 21.1%나 되었다.

表 4 - 17. 본가로 송금된 현금액별 경제관계

조사마을	현금 규모별								
	계	5만원 이하	5 ~ 10만원	10 ~ 20만원	20 ~ 50만원	50 ~ 100만원	100 ~ 150만원	150 ~ 200만원	200만원 이상
소 산	14 (100.0)		2 (14.3)		6 (42.9)	2 (14.3)	4 (28.6)		
현 동	18 (100.0)			5 (27.8)	7 (38.9)	4 (22.2)	2 (11.1)		
대 성	3 (100.0)	1 (33.3)			1 (33.3)	1 (33.4)			
중 리	4 (100.0)			1 (25.0)	3 (75.0)				
오 향	6 (100.0)	3 (50.0)		1 (16.7)	2 (33.3)				
망 정	12 (100.0)		2 (16.6)	4 (33.3)	4 (33.3)	2 (16.7)			
무 립	26 (100.0)	6 (23.1)	1 (3.8)	5 (19.2)	6 (23.1)	6 (23.1)		1 (3.8)	1 (3.8)
파 산	12 (100.0)	5 (41.7)	2 (16.7)	2 (16.7)	1 (8.3)	1 (8.3)	1 (8.3)		
계	95 (100.0)	15 (15.8)	7 (7.4)	18 (18.9)	30 (31.6)	16 (16.8)	7 (7.4)	1 (1.0)	1 (1.0)

또한 마을별로 現金을 보낸 經濟關係者를 보면 중리와 오항마을에서는 本家に 보낸 現金額 規模가 모두 50 만원 미만이었다. 이에 비하여 무림동 마을에서는 150 만원 이상의 現金을 農村本家に 流入시킨 家族員도 2명이나 되었다.

<表 4 - 16>와 <表 4 - 1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現金의 流出入額 規模로 본 經濟關係에 있어서 마을간에는 오히려 마을쪽에 유리하게 經濟關係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全體의으로 볼 때는 農村地域에 불리한關係가 형성되고 있다. 즉 農村本家에서 100 만원 이상의 現金을 流出시킨 家族員數는 21 명이나 되었는데 비하여 동일금액을 本家に 보낸 家族員數는 단지 9 명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50 만원 미만의 現金額을 보낸 家族員數는 22 명이었는데 비하여 農村本家에서는 70 명으로부터 동일액의 現金을 받았다.

이를 개발마을을 中心으로 보면 소산과 무림동 마을에서는 現金流出入의 經濟關係者에 있어 農村本家に 流入하는 家族員이 많은데 비하여 중리와 오항마을에서는 農村本家에서 現金을 流出시키는 家族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農村本가와 流出家族員間에 교환되는 現物의 內容別로 본 經濟的 關係는 <表 4 - 18>에서와 같다.

<表 4 - 18>에 의하면 調査마을 全體水準에서 流出家族員에게 쌀 및 기타곡류를 보내는 經濟關係者의 比率이 32.7%(54명), 農水産物을 보내는 比率이 24.8%이었다. 이에 비하여 부식류나 의류를 보내는 比率은 각각 5.5%(9명)과 1.2%(2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쌀 및 기타곡류에다 부식류 또는 기타 農水産物을 같이 보내는 經濟關係者의 比率도 35.8%(59명)이나 되었다.

이와같이 農村마을의 本가가 그 流出家族員에게 보내는 現物에는 주로 쌀 및 기타 곡류가 대부분이다.

이를 調査마을별로 보면 마을간에 큰차이가 있다. 오항, 중리, 현동마을에서는 다른 마을에서 보다 부식류를 보낸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취학을 위해 인근 도시에서 자취하고 있는 子女家族員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진다.

表 4 - 18. 보낸 현물종류별 경제관계

조 사 마 율	현 물 종 류 별						
	① 쌀 및 기타곡류	② 부식류 (가공식품 포 함)	③ 기 타 농수산물	④ 의 류	① + ②	① + ③	①+②+③ 계
소 산	3 (27.3)	1 (9.1)	7 (63.6)				11 (100.0)
현 동	11 (25.0)	2 (4.5)	6 (13.6)		8 (18.2)	12 (27.3)	44 (100.0)
대 성	4 (57.1)		1 (14.3)			2 (28.6)	7 (100.0)
중 리	4 (11.8)		22 (64.7)		2 (5.9)		34 (100.0)
오 향	1 (4.2)		3 (12.5)			2 (8.3)	24 (100.0)
망 정	5 (100.0)						5 (100.0)
무 립	7 (58.3)	2 (16.7)	2 (16.7)			1 (8.3)	12 (100.0)
과 산	19 (67.9)	4 (14.3)		2 (7.1)	2 (7.1)	1 (3.6)	28 (100.0)
계	54 (32.7)	9 (5.5)	41 (24.8)	2 (1.2)	12 (7.3)	18 (10.9)	165 (100.0)

表 4 - 19. 받은 현물종류별 경제관계

조 사 마 율	현 물 종 류 별						
	① 쌀 및 기타곡류	② 부식류 (가공식품 포 함)	③ 기 타 농수산물	④ 의 류	⑤ 전기· 전자제품	⑥ 기 타 소 비 재	⑦ 생산 장 비 계
소 산		1 (25.0)		3 (75.0)			4 (100.0)
현 동		1 (12.5)		3 (37.5)	2 (25.0)	1 (12.5)	8 (100.0)
대 성				1 (100.0)			1 (100.0)
중 리							
오 향		1 (33.3)		2 (66.7)			3 (100.0)
망 정	1 (14.3)	1 (14.3)		4 (57.1)	1 (14.3)		7 (100.0)
무 립	1 (9.1)	3 (27.3)		5 (45.5)		2 (18.2)	11 (100.0)
과 산		9 (81.8)				2 (18.2)	11 (100.0)
계	2 (4.4)	16 (35.6)		18 (40.0)	3 (6.7)	5 (11.1)	45 (100.0)

한편 流出家族員이 本家에 보낸 現物內容을 中心으로 經濟關係를 보면 <表 4-19>와 같다.

<表 4-19>에 의하면 流出家族員이 農村本家에 보낸 現物中 副食類나 의류가 대부분이었다. 8개 調査마을을 통하여 流出家族員이 주로 부식류나 의류를 많이 보내고 있는 것은 本家를 방문할 때 肉類, 酒類를 비롯하여 옷가지를 父母에게 사다주는데서 온 現象으로 보아진다.

現金의 流出入과 마찬가지로 現物의 流出入도 調査마을에서 流出的 經濟關係를 맺고 있는 家族員의 數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年間 農村本家和 流出家族員간 輸出入된 現金과 現物을 現金化하여 合計한 總資本額의 規模別로 마을간의 經濟關係 家族員數를 보면 <表 4-20>, <表 4-21>과 같다.

表 4-20. 본가에서 유출된 총자본액수별 경제관계

조사마을	총 자 본 액 수 별						
	계	10만원 이 하	10 ~ 50만원	50 ~ 100만원	100 ~ 150만원	150 ~ 200만원	200만원 이 상
소 산	14 (100.0)	10 (71.4)	3 (21.4)	1 (7.2)			
현 동	48 (100.0)	9 (18.8)	28 (58.3)	3 (6.3)	3 (6.3)	1 (2.1)	4 (8.3)
대 성	9 (100.0)	1 (11.1)	6 (66.7)		1 (11.1)	1 (11.1)	
중 리	40 (100.0)	25 (62.5)	3 (7.5)	7 (17.5)	3 (7.5)	2 (5.0)	
오 향	31 (100.0)	4 (12.9)	11 (35.5)	12 (38.7)	3 (9.7)		1 (3.2)
망 정	9 (100.0)	6 (66.7)	3 (33.3)				
무 립	13 (100.0)	7 (53.8)	4 (30.8)	2 (15.4)			
과 산	28 (100.0)	12 (42.9)	12 (42.9)	2 (7.1)			2 (7.1)
계	192 (100.0)	74 (38.5)	70 (36.5)	27 (14.1)	10 (5.2)	4 (2.1)	7 (3.6)

1) 총자본액 = 현금 + 현물의 현금화액임.

먼저 <表 4-20>는 마을별 流出된 總資本額 規模別 經濟關係者 수를 본 것이다. 全體의으로 볼 때 10만원 미만의 金額을 보낸 經濟關係者 수는 74명(38.5%)이었고 10~50만원을 보낸 자가 70명(36.5%)이었다. 이에 비하여 100만원 이상의 金額을 보낸 流出家族員도 21명(10.9%)나 되었다.

이를 마을단위로 보면 마을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소산, 망정, 무림동마을에서는 연간 100만원 이상의 金額을 보낸 家族員은 단 1명도 없는데 비하여 현동, 대성, 중리, 오항마을에서는 그 比率이 10% 이상이나 되었다.

한편 <表 4-21>은 流出家族員이 農村本家に 보낸 總資本額의 規模를 中心으로 經濟關係를 본 것이다.

表 4-21. 본가로 유입된 총자본액수별 경제관계

조사마을	총 자 본 액						
	계	10만원 이하	10 ~ 50만원	50 ~ 100만원	100 ~ 150만원	150 ~ 200만원	200만원 이상
소 산	15 (100.0)	3 (20.0)	5 (33.3)	3 (20.0)	4 (26.7)		
현 동	25 (100.0)	3 (12.0)	15 (60.0)	5 (20.0)	2 (8.0)		
대 성	3 (100.0)	1 (33.3)	1 (33.3)	1 (33.4)			
중 리	4 (100.0)		4 (100.0)				
오 항	6 (100.0)	3 (50.0)	3 (50.0)				
망 정	14 (100.0)	4 (28.6)	8 (57.1)	2 (14.3)			
무 립	29 (100.0)	5 (17.2)	16 (55.2)	6 (20.7)		1 (3.4)	1 (3.5)
과 산	15 (100.0)	10 (66.7)	3 (20.0)	1 (6.7)	1 (6.7)		
계	111 (100.0)	29 (26.1)	55 (49.5)	18 (16.2)	7 (6.3)	1 (0.9)	1 (0.9)

이에 의하면 全體的으로 보아 10 ~ 50 만원 規模의 金額을 農村本家에 보낸 家族員의 比率이 가장 많은 49.5%(55명)이고 10만원 미만을 보낸 比率은 26.1%(29명)이었다. 이에 비하여 100만원 이상을 보낸 比率은 8.1%(9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를 마을별로 보면 중리·오항마을에서는 50만원 이상을 보낸 家族員은 1명도 없었으나 소산, 현동, 파산동, 무림동 마을에서는 50만원 이상을 보낸 家族員의 比率이 소산마을의 46.7%를 위시하여 각 마을에서 상당히 높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農村本家和 流出家族員間에 流出入되는 總資本額으로 볼 때 소산, 무림동 마을을 제외한 6개 마을에서는 本家쪽에 불리한 經濟關係를 형성하는 家族員이 더 많았다.

어떤 이유로 現金이 家族員에게 流出되고 流入된 現金이 어떻게 使用되고 있나를 中心으로 각 마을별 經濟關係者 狀況을 보자

表 4 - 22. 현금의 송금목적별 경제관계

조 사 마을	송 금 목 적				
	계	생 활 비	학 비	용 돈	기 타
소 산	3 (100.0)	1 (33.3)		2 (66.7)	
현 동	12 (100.0)		10 (83.3)	1 (8.3)	1 (8.4)
대 성	3 (100.0)			3 (100.0)	
중 리	15 (100.0)		13 (86.7)	2 (13.3)	
오 항	22 (100.0)	1 (4.5)	20 (90.9)	1 (4.6)	
망 정	6 (100.0)	3 (50.0)	3 (50.0)		
무 림	1 (100.0)		1 (100.0)		
파 산	6 (100.0)	4 (66.7)	2 (33.3)		
계	68 (100.0)	9 (13.2)	49 (72.1)	9 (13.2)	1 (1.5)

<表 4-22>은 農村本家が 어떤 목적으로 家族員에게 現金을 보내고 있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의하면 소산, 대성마을은 家族員의 教育費를 위해 現金을 보낸 經濟關係者가 한명도 없는데 비하여 오항, 중리, 현동마을은 그 比率이 80% 이상이나 되었다.

한편 소산과 대성마을에서는 家族員의 용돈충당을 위해, 망정과 과산동마을은 生活費를 위해 現金을 보낸 比率이 각각 높았다.

한편 <表 4-23>는 家族員이 本家に 보낸 現金이 어디에 使用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에 의하면 全體의으로 볼 때 現金이 生活비나 용돈으로 利用되는 經濟關係者의 比率이 64.3%이고 營農資金, 學費 등에 現金이 使用되고 있는 比率은 15.8%에 불과하였다.

이와같이 農村本家에서 소비지향적으로 現金을 使用하는 經濟關係者의 比率이 월등히 높았는데 이는 부정기적으로 小額의 現金을 보내줌으로써 이를 生活비나 용돈 등으로 필요에 따라 충당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表 4-23. 본가에서의 현금사용처별 경제관계

조 사 마 율	사 용 처 별									
	계	생활비	교육비	용 돈	영 농 자 금	경 조 비 용	의료비	생활비 교육비	저 축	기 타
소 산	14 (100.0)	7 (50.0)	1 (7.1)	1 (7.1)		1 (7.1)	2 (14.3)	2 (14.3)		
현 동	18 (100.0)	2 (11.1)	1 (5.6)	4 (22.2)	7 (38.9)		2 (11.1)	1 (5.6)		1 (5.6)
대 성	3 (100.0)	1 (33.3)					1 (33.3)			1 (33.3)
중 리	4 (100.0)	1 (25.0)	2 (50.0)	1 (25.0)						
오 항	6 (100.0)	1 (16.7)	2 (33.3)	3 (50.0)						
망 정	12 (100.0)	11 (91.7)				1 (8.3)				
무 림	26 (100.0)	18 (69.2)		3 (11.5)		2 (7.7)		1 (3.8)	2 (7.7)	
과 산	12 (100.0)	1 (8.3)		8 (66.7)	2 (16.7)			1 (8.3)		
계	95 (100.0)	41 (43.2)	6 (6.3)	20 (21.1)	9 (9.5)	4 (4.2)	5 (5.3)	5 (5.3)	2 (2.1)	2 (2.1)

이를 마을별로 보면 현동마을은 38.9%가 영농비에, 중리, 오항마을에서는 流入된 現金을 家族員의 學費 充당을 위해 사용한 者의 比率이 각각 50.0%(2명)과 33.3%(2명)이나 되었다.

<表 4 - 24>는 農村本家에서 資本을 流出하는 家族員의 職業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의하면 全體的으로 볼 때 農村本家が 資源을 流出하는 家族員 가운데는 學生이 31.8%, 無職(가정주부 포함)이 14.7%, 商業이 11.5%, 會社員등 관리직·사무직 종사자가 11.5%이었다.

表 4 - 24. 직업별 자본유출적 경제관계

경제 관계자직업	조사마을	계	소 산	현 동	대 성	중 리	오 항	망 정	부 림	파 산
전문직·기술직	11 (5.7)	1 (7.1)	8 (16.7)							2 (7.1)
관 리 직 · 사 무 종 사 자	22 (11.5)	2 (14.3)	5 (10.4)	1 (11.1)	3 (7.5)	2 (6.5)				9 (32.1)
농 어 업	4 (2.1)		2 (4.2)	1 (11.1)	1 (2.5)					
판 매 종 사 자	22 (11.5)	3 (21.4)	8 (16.7)		3 (7.5)			1 (11.1)	4 (30.8)	3 (10.7)
운 수 적 직 업	5 (2.6)		1 (2.1)	1 (11.1)			1 (3.2)			2 (7.1)
기 능 공 및 생산공정종사자	16 (8.3)	2 (14.3)	1 (2.1)		5 (12.5)	1 (3.2)	3 (33.3)		1 (7.7)	3 (10.7)
단 순 노 무 자	8 (4.2)	1 (7.1)	4 (8.3)					1 (11.1)	1 (7.7)	1 (3.6)
서 비 스 종 사 자	3 (1.6)				3 (7.5)					
학 생	61 (31.8)		12 (25)	4 (44.4)	15 (37.5)	22 (71.0)	4 (44.4)		1 (7.7)	3 (10.7)
군 인	8 (4.2)	1 (7.1)	3 (6.3)		1 (2.5)	1 (3.2)			1 (7.7)	1 (3.6)
기 타 자 영 업	4 (2.1)	2 (14.3)		1 (11.1)						1 (3.6)
무 직 (가정주부포함)	28 (14.6)	2 (14.3)	4 (8.3)	1 (11.1)	9 (22.5)	4 (13.0)			5 (38.5)	3 (10.7)
계		192 (100.0)	14 (100.0)	48 (100.0)	9 (100.0)	40 (100.0)	31 (100.0)	9 (100.0)	13 (100.0)	28 (100.0)

이를 마을별로 보면 오항마을(71%)을 비롯하여 망정, 대성, 중리마을에서는 學生의 比率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무림, 중리마을에서는 무직자의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農村本家로 資本을 流入시키는 經濟關係者의 職業을 본 것이 <表 4-25>이다. 이를 보면 全體的으로 家族員 중에서 기능공 및 생산공정 종사자(21.6%), 판매업종사자(18.9%), 관리직·사무직종사자(17.1%), 무직자(9.9%)가 많았다. 그러나 마을별로 볼 때는 뚜렷한 특성을 찾을 수가 없다.

表 4 - 25. 직업별 자본유입적 경제관계

경제 관계자직업	조사마을	제	소 산	현 동	대 성	중 리	오 항	망 정	부 립	파 산
전문직·기술직		8 (7.2)		5 (20.0)					1 (3.4)	2 (13.3)
관 리 직 · 사 무 종 사 자		19 (17.1)	1 (6.7)	2 (8.0)	2 (66.7)	1 (25.0)		1 (7.1)	5 (17.2)	7 (46.7)
농 어 업		1 (0.9)							1 (3.4)	
판 매 종 사 자		21 (18.9)	3 (20.0)	6 (24.0)				2 (14.3)	8 (27.6)	2 (13.3)
운 수 적 직 업		4 (3.6)							3 (10.3)	1 (6.7)
기 능 공 및 생 산 공 정 종 사 자		24 (21.6)	3 (20.0)	1 (4.0)	1 (33.3)	2 (50.0)	1 (16.7)	8 (57.1)	6 (20.7)	2 (13.3)
단 술 노 무 자		7 (6.3)	1 (6.7)	4 (16.0)			2 (33.3)			
서 비 스 직 종 사 자		6 (5.4)				1 (25.0)	2 (33.3)	2 (14.3)		1 (6.7)
학 생										
군 인		4 (3.6)		3 (12.0)					1 (3.4)	
기 타 자 영 업		6 (5.4)	3 (20.0)	2 (8.0)				1 (7.1)		
무 (가정주부포함)		11 (9.9)	4 (26.7)	2 (8.0)			1 (16.7)		4 (13.8)	
계		111 (100.0)	15 (100.0)	25 (100.0)	3 (100.0)	4 (100.0)	6 (100.0)	14 (100.0)	29 (100.0)	15 (100.0)

나. 마을단위로 본 資本流出入額

지금까지 農村人口移動을 통해 流出家族員과 本家間에 형성되는 經濟的關係에 있어 調査마을간에 어떤 特性이 있나를 經濟關係者數를 中心으로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하여 마을 水準에서의 流出家族員과 農村本家에 형성하는 經濟的 關係에 대한 각종 정보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마을간 流入入되는 總資本額을 中心으로, 둘째, 그 損益關係를 살펴보고 그 손익關係를 유발한 要因이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農村마을에서 각 용도별로 使用되는 金額을 中心으로 農村人口移動이 마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表4-26>에서 나타난 마을단위로 流入入된 資本額과 마을간 損益關係를 中心으로 農村人口移動이 마을 經濟에 미친 영향을 보기로 한다.

이를 보면 마을간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소산, 무림동 마을은 農村本家에서 流出家族員에게 보내는 總資本額보다 家族員으로 부터 받은 總資本額이 많음으로써 農村本家로 資本이 流入 移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2개 마을을 除外한 6개 마을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農村人口 流出로 인하여 流出되는 資原額이 流入되는 資本額을 초과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마을간에 이러한 現象이 일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그것은 결론적으로 교육비로 유출되는 現金의 많고 적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가로의 流入資本額이 流出額을 초과하는 소산과 무림동마을에서는 8개 마을 중 流出家族員의 教育費로 지출된 現金額이 전혀 없거나 가장 적었다.

반면에 流出資本額이 流入資本額을 초과하고 있는 현동, 오항, 중리, 파산동 마을에서는 教育費로 지출되는 資本額의 비중이 압도적 이었다. 이와 같이 마을水準間에는 교육비로 流出된 金額의 많고 적음에 따라 마을 經濟에 미치는 損益關係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全體的으로 볼때는 마을에서 유출된 總資本額은 현금 51,380천 원 현물 24,380천 원으로 모두 75,760천 원이었으나 流入된 資本額은 現金 32,020천 원, 現物 3,010천 원으로 總 35,020천 원에 지나지 않아 무려

表 4-26 자 본 유 출 입 액 으 로 본 손 익

단위 : 천원

조 사 마 율	자 본 유 출 액					자 본 유 입 액					손 익		
	계	송금목적별현금유출액			현물유 출 액	계	사용처별현금유입액			현물유 입 액	합 계	현금액	현물액
		소 계	교육비	기 타			소 계	생활비	기 타				
소 산	1,478 (100.0)	370 (25.0)	— (25.0)	370 (75.0)	1,108 (75.0)	7,560 (100.0)	7,450 (98.5)	3,500 (46.4)	3,940 (52.1)	110 (1.5)	6,082	7,080	△ 998
현 동	25,330 (100.0)	15,370 (60.7)	15,170 (59.9)	200 (0.8)	9,960 (39.3)	7,790 (100.0)	6,760 (86.8)	1,020 (13.1)	5,740 (73.7)	1,030 (13.2)	△ 17,540	△ 8,610	△ 8,930
대 성	3,955 (100.0)	2,560 (64.7)	2,560 (64.7)	— (35.3)	1,395 (35.3)	1,010 (100.0)	810 (80.2)	500 (49.5)	310 (30.7)	200 (19.8)	△ 2,945	△ 1,750	△ 1,195
중 리	13,361 (100.0)	11,400 (85.3)	10,220 (76.5)	1,180 (8.8)	1,961 (14.7)	750 (100.0)	750 (100.0)	150 (20.0)	600 (80.8)	—	△ 12,611	△ 10,650	△ 1,961
오 항	17,656 (100.0)	13,030 (73.8)	12,870 (72.9)	160 (0.9)	4,626 (26.2)	780 (100.0)	710 (91.0)	300 (38.5)	410 (52.5)	70 (9.0)	△ 16,876	△ 12,320	△ 4,556
망 정	3,670 (100.0)	2,850 (77.7)	1,950 (53.1)	900 (24.6)	820 (22.3)	3,640 (100.0)	3,090 (84.9)	3,040 (83.5)	50 (1.4)	550 (15.1)	△ 30	240	△ 270
무 립	2,152 (100.0)	500 (23.2)	500 (23.2)	— (76.8)	1,652 (76.8)	10,830 (100.0)	10,130 (93.5)	6,200 (57.2)	3,930 (36.3)	700 (6.5)	8,678	9,630	△ 952
파 산	8,158 (100.0)	5,300 (65.0)	4,000 (49.0)	1,300 (16.0)	2,858 (35.0)	2,660 (100.0)	2,310 (86.8)	100 (3.8)	2,210 (83.0)	350 (13.2)	△ 5,498	△ 2,990	△ 2,508
계	75,760 (100.0)	51,380 (67.8)	47,270 (62.4)	4,110 (5.4)	24,380 (32.2)	35,020 (100.0)	32,010 (91.4)	14,820 (42.3)	17,190 (49.1)	3,010 (8.6)	△ 40,740	△ 19,370	△ 21,370
평 균	9,470	6,423	5,909	514	3,048	4,378	4,001	1,853	2,149	376	△ 5,093	△ 2,421	△ 2,671

40,740 천 원의 資本額이 農村人口 流出로 인해 農村 本家에서 초과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마을당으로 보면 理金 6,423 천원 現物 3,048 천원 합계 9,470천원이 1년간 마을 外部로 流出되는데 비하여 마을로 流入된 總資本額은 4,378 천원 (現金 4,001 천원 現物 376 천원)에 지나지 않아 마을당 무려 5,093 천원의 資本이 초과 流出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農家水準에서 본 經濟關係

農村本가와 그 流出家族員間에 형성되는 經濟的 關係가 經濟的 背景變數에 따라 어떠한 特性이 있나를 보고자함이 본절의 주 관심사이다.

農村本가를 떠난 家族員은 本가와 家族의 結合에서 社會, 經濟的, 心理的으로 關係를 맺는다. 또한 家族의 유대에서 流出家族員은 農村家族과 생계적 단위로 연결되고 있다. 이로써 자신의 불안정한 생활근거나 생계위험을 農村本가에 전가하거나 또는 전가 받는다. 이때 農村本가가 그들의 流出家族員에 作用하는 社會保障의 機能의 정도는 本가의 經濟的 能力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農村家口의 經濟的 지위를 區分하는 尺度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나 본 研究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經營面積을 기준으로 하여 經濟的 地位를 6 등급 하였다.

가. 階層에 따른 經濟關係의 특성

農村本가의 階層別 經濟的 關係者 數를 본 것이 <表 4-27>이다.

<表 4-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經濟的 關係를 맺고 있는 家族員은 총 303 명이다. 이들의 계층별 분포를 보면 1.0 ~ 1.5ha의 階層이 全體의 30.7 % (93 명)로써 가장 많고 0.5 ~ 1.0ha 階層이 17.8 % (54 명), 0.5ha 미만과 2.0ha 이상 계층이 각각 16.8 % (51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經濟關係를 類型別로 區分하여 보면 階層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表 4-27 경제관계 유형별 관계자

경영규모	계	자본유출적경제관계				자본유입적경제관계			
		소계	현금	현금+현물	현물	소계	현금	현금+현물	현물
무농	9 (3.0)	5 (2.6) (100.0)	1 (3.7) (20.0)		4 (3.2) (80.0)	4 (3.6) (100.0)	2 (3.0) (50.0)	2 (7.4) (50.0)	
0.5 ha	51 (16.8)	20 (10.4) (100.0)	2 (7.4) (10.0)	4 (9.8) (20.0)	14 (11.3) (70.0)	31 (27.9) (100.0)	19 (28.8) (61.3)	10 (37.0) (32.3)	2 (11.1) (10.5)
0.5 ~ 1.0 ha	54 (17.8)	32 (16.7) (100.0)	5 (18.5) (15.6)	3 (7.3) (9.4)	24 (19.4) (75.0)	22 (19.8) (100.0)	15 (22.7) (68.2)	5 (18.5) (22.7)	2 (11.1) (9.1)
1.0 ~ 1.5 ha	93 (30.7)	63 (32.8) (100.0)	8 (29.6) (12.7)	14 (34.1) (22.2)	41 (33.1) (65.1)	30 (27.0) (100.0)	15 (22.7) (50.0)	7 (25.9) (23.3)	8 (44.4) (26.7)
1.5 ~ 2.0 ha	45 (14.9)	32 (16.7) (100.0)	4 (14.8) (12.5)	10 (24.4) (31.3)	18 (14.5) (56.3)	13 (11.7) (100.0)	11 (16.7) (84.6)	1 (3.7) (7.7)	1 (5.6) (7.7)
2.0 ha 이상	51 (16.8)	40 (20.8) (100.0)	7 (25.9) (17.5)	10 (24.4) (25.0)	23 (18.5) (57.5)	11 (9.9) (100.0)	4 (6.1) (36.4)	4 (14.8) (36.4)	3 (16.7) (27.2)
계	303 (100.0)	192 (100.0) (100.0)	27 (100.0)	41 (100.0)	124 (100.0)	111 (100.0) (100.0)	66 (100.0) (59.5)	27 (100.0) (24.3)	18 (100.0) (16.2)

있다. 그러나 經濟關係를 類型別로 區分하여 보면 階層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資源流出的 經濟關係에 있어서는 1.0~1.5 ha 階層에서 經濟關係表의 比率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資源流入의 經濟關係에 있어서는 0.5 ha 미만 계층에서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階層을 단순화하고 階層別 經濟關係者의 분포 比率을 보면 輸源流出的 經濟關係에서는 1~2 ha의 階層에, 資本流入의 經濟關係에 있어서는 1.0 ha 미만 階層에 經濟關係者의 약 과반수가 각각 집중되어 있다. 한편 2.0 ha 이상의 階層에는 資源流出的 經濟關係者의 약 21%가 資源流入의 經濟關係者의 약 10%가 분포되어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經濟規模가 큰 階層일수록 資本流出的 經濟關係者의 比率이 많아지는 반면에 資本流入의 經濟關係者의 比率은 적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經營規模가 큰 階層에서는 農村所得만으로도 가계비를 충당할 수 있어 本家の 剩餘資本이 流出家族員에게 이전되는 반면에 經營規模가 작은 階層에서는 家計費를 農村所得만으로 충당할 수 없어 流出家族員이 本家の 家計費 일부를 부담하는데서 오는 現象으로 보아 지다

階層別 經營主와 關係別 經濟關係를 본 것이 <表 4-28>이다.

<表 4-28>에 의하면 資源流出的 經濟關係에서 無農層을 제외한 전 階層에서 아들과 經濟關係를 맺는 比率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형제자매와 딸과 맺는 비율을 比較할 때 0.5ha미만 2.0ha이상 階層에서는 형제자매와 1.0~1.5ha, 1.5~2.0ha의 階層에서는 딸과 經濟關係를 맺는 比率이 약간 높았다.

表 4-28 경영주와 관계별 경제관계

계 층	자 본 유 출 적						자 본 유 입 적					
	계	남편처	부모	형제 자매	아들	딸	계	남편처	부모	형제 자매	아들	딸
무 농	5 (100.0)		2 (40.1)	3 (60.0)			4 (100.0)				4 (100.0)	
~0.5ha	20 (100.0)			7 (35.0)	11 (55.0)	2 (10.0)	31 (100.0)	2 (6.5)		2 (6.5)	19 (61.3)	8 (25.8)
0.5~1.0	32 (100.0)		1 (3.1)	10 (31.3)	11 (34.4)	10 (31.3)	22 (100.0)		1 (4.5)	7 (31.8)	6 (27.3)	8 (36.4)
1.0~1.5	63 (100.0)	1 (1.6)		16 (25.4)	29 (46.0)	17 (27.0)	30 (100.0)	1 (3.3)		5 (16.7)	16 (53.3)	8 (26.7)
1.5~2.0	32 (100.0)			6 (18.8)	19 (59.4)	7 (31.8)	13 (100.0)			6 (46.2)	4 (30.8)	3 (23.1)
2.0ha~	40 (100.0)	2 (5.0)	1 (2.5)	10 (25.0)	21 (52.5)	6 (15.0)	11 (100.0)	1 (9.1)		2 (18.2)	7 (63.6)	1 (9.1)
계	192 (100.0)	3 (1.6)	4 (2.1)	52 (27.1)	91 (47.4)	42 (21.9)	111 (100.0)	4 (3.6)	1 (0.9)	22 (19.8)	56 (50.5)	28 (25.2)

한편 資本流入의 經濟關係를 보면 0.5ha미만과 1.0~1.5ha 2.0ha 이상 階層에서는 아들의 比率이 높았으나 0.5~1.0ha 階層과 1.5~2.0ha 階層에서는 각각 딸과 형제자매와 맺는 比率이 아들보다 높았다.

그러나 全體的으로 볼 때 아들과 맺는 經濟關係의 比率이 높았는데 이는 家族制度나 家族의 機能으로 보아 당연한 일이다.

流出家族員에게 보낸 現金額의 規模를 中心으로 階層間의 經濟的 關係를 본 것이 <表 4-29>이다.

<表 4-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階層이 클수록 流出家族員에게 많은 現金을 보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無農을 포함하여 1.0ha 미만 階層에서는 流出家族員에게 보낸 現金의 規模가 小額이 많아 年間 100만원 이상의 金額을 보낸 比率은 7.0%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1.0~2.0ha와 2.0ha 이상의 階層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現金을 보낸 比率이 각각 33.3%와 47.1%나 되었다.

表 4-29 본가에서 송금한 현금액별 경제관계

계층별	현금 액 별								
	계	5만원 이하	5~10만원	10~20만원	20~50만원	50~100만원	100~150만원	150~200만원	200만원 이상
무 농	1 (100.0)	1 (100.0)							
~ 0.5ha	6 (100.0)			1 (16.7)	1 (16.7)	3 (50.0)		1 (16.7)	
0.5 ~	8 (100.0)			2 (25.0)	3 (37.5)	3 (37.5)			
1.0 ha	22 (100.0)		3 (13.6)	1 (4.5)	3 (13.6)	8 (36.4)	2 (9.0)	1 (4.5)	4 (18.2)
1.0 ~	14 (100.0)				4 (28.6)	5 (35.7)	4 (28.6)		1 (7.1)
1.5 ha	17 (100.0)		1 (5.9)		2 (11.8)	6 (35.3)	5 (29.4)	2 (11.8)	1 (5.9)
1.5 ~	17 (100.0)								
2.0 ha	17 (100.0)								
2.0 ~	17 (100.0)								
이 상	17 (100.0)								
계	68 (100.0)	1 (1.5)	4 (5.9)	4 (5.9)	13 (19.1)	25 (36.8)	11 (16.2)	4 (5.9)	6 (8.8)

반면에 流出家族員이 農村本家に 보낸 現金額 規模를 보면 <表 4-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經營規模가 적은 階層에서 比較的 많은 現金을 農村本家に 주는 比率이 높게 나타났다. 無農을 포함하여 1.0ha 미만의 階層에서는 연간 100만원 이상의 現金을 農村本家に 보낸 比率이 11.3%(3명)인데 비하여 1.0~2.0ha 階層에서의 比率은 8.8%에 지나지 않았으며 2.0ha 이상 階層에는 단 1명도 없었다.

階層간 유출된 總資本額 規模別 經濟關係者를 본 것이 <表 4-31>이다.

表 4-30. 본가로 송금된 현금액별 경제관계

계층별	현금 규모별								
	계	5만원 이하	5~10만원	10~20만원	20~50만원	50~100만원	100~150만원	150~200만원	200만원 이상
무농	4 (100.0)			2 (50.0)		2 (50.0)			
~0.5ha	29 (100.0)	1 (3.4)	2 (6.9)	7 (24.1)	14 (48.3)	2 (6.9)	2 (6.9)		1 (3.4)
0.5~1.0	20 (100.0)	6 (30.0)	1 (5.0)	2 (10.0)	5 (25.0)	3 (15.0)	2 (10.0)		
1.0~1.5	22 (100.0)	3 (13.6)	3 (13.6)	2 (9.1)	7 (31.8)	7 (31.8)		1 (5.0)	
1.5~2.0	12 (100.0)	1 (8.3)		3 (25.0)	3 (25.0)	2 (16.7)	3 (25.0)		
2.0ha~	8 (100.0)	3 (37.5)		2 (25.0)	2 (25.0)	1 (12.5)			
계	95 (100.0)	14 (14.7)	6 (6.3)	18 (18.9)	31 (32.6)	17 (17.9)	7 (7.4)	1 (1.1)	1 (1.1)

表 4-31. 본가에서 유출한 총자본액별 경제관계

계층별	현금 규모별								
	계	5만원 이상	5~10만원	10~20만원	20~50만원	50~100만원	100~150만원	150~200만원	200만원 이상
무농	5 (100.0)	5 (100.0)							
~0.5ha	20 (100.0)	8 (40.0)	2 (10.0)	4 (20.0)	2 (10.0)	3 (15.0)		1 (5.0)	
0.5~1.0	32 (100.0)	12 (37.5)	5 (15.6)	6 (18.8)	6 (18.8)	3 (9.4)			
1.0~1.5	63 (100.0)	15 (23.8)	10 (15.9)	7 (11.1)	12 (19.0)	12 (19.0)	2 (3.2)	1 (1.6)	4 (6.3)
1.5~2.0	32 (100.0)	3 (9.4)		7 (21.9)	12 (37.5)	5 (15.6)	4 (12.5)		1 (3.1)
2.0ha~	40 (100.0)	5 (12.5)	3 (7.5)	8 (20.0)	9 (22.5)	7 (17.5)	4 (10.0)	2 (5.0)	2 (5.0)
계	192 (100.0)	48 (25.0)	20 (10.4)	32 (16.7)	41 (21.4)	30 (15.6)	10 (5.2)	4 (2.1)	7 (3.6)

이에 의하면 無農을 포함하여 經營規模가 적은 階層에서는 小規模의 資本額을 보낸 流出家族員의 比率이 높았다. 이에 비하여 經營規模가 큰 階層에서는 比較的 많은 資本額을 보낸 比率이 높은 경향이였다. 이를 좀더 자세히 보면 無農層과 1.0ha 미만 階層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資本額을 보낸 比率이 56.1%인데 비하여 1.0~2.0ha와 2.0ha이상의 階層에서는 각각 29.5%와 12.5%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에 100만원 이상의 資本額을 보낸 比率을 보면 1.0ha 미만 階層은 1.8% 밖에 되지 않았는데 비하여 1.0~2.0ha와 2.0ha 이상 階層에서는 각각 12.6%와 20.0%나 되었다.

한편 農村本家에 보낸 總流入資本額 規模別 經濟關係를 보면 <表 4 - 32>와 같다.

表 4-32. 본가로 유입된 송자본액별 경제관계

계층별	총 자 본 액 규 모 별								
	계	5만원 이하	5~10 만원	10~20 만원	20~50 만원	50~100 만원	100~150 만원	150~200 만원	200만원 이상
무 농	4 (100.0)			2 (50.0)		2 (50.0)			
~ 0.5ha	31 (100.0)	2 (6.5)	3 (9.7)	5 (16.1)	16 (51.6)	2 (6.5)	2 (6.5)		1 (3.2)
0.5~1.0ha	22 (100.0)	5 (22.7)	3 (13.6)	3 (13.6)	5 (22.7)	3 (13.6)	2 (9.1)	1 (4.5)	
1.0~1.5ha	30 (100.0)	4 (13.3)	7 (23.3)	4 (13.3)	8 (26.7)	7 (23.3)			
1.5~2.0ha	13 (100.0)	2 (15.4)		3 (23.1)	3 (23.1)	2 (15.4)	3 (23.1)		
2.0ha ~	11 (100.0)	2 (18.2)	1 (9.1)	4 (36.4)	2 (18.2)	2 (18.2)			
계	111 (100.0)	15 (13.5)	14 (12.6)	21 (18.9)	34 (30.6)	18 (16.2)	7 (6.3)	1 (0.9)	1 (0.9)

이에 의하면 經營規模가 적은 階層일수록 다액의 資本額을 流入시키는 比率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階層別로 보면 無農을 포함한 1.0ha미만 階層에서는 10만 미만의 資本額을 보낸 比率이 22.8%인데 비하여 1.0~2.0ha와 2.0ha이상 계층은 각각 30.2%와 27.3%나 되었다. 이에 비하여 100만원 이상의 資本額을 보낸 比率을 보면 1.0ha미만 階層이 10.5%인데 비하여 1.0~2.0ha 계층은 7.0%이었고 2.0ha이상 계층에서는 단 1명도 없었다.

農村本家에서 流出家族員에서 現金을 보낸 目的別 經濟關係를 본 것이 <表 4-33>이다.

表 4-33. 현금의 송금목적별 경제관계

계 층 별	송 금 목 적				
	계	생 활 비	교 육 비	용 돈	기 타
무 농	1 (100.0)			1 (100.0)	
~0.5 ha	6 (100.0)	2 (33.3)	4 (66.7)		
0.5~1.0ha	8 (100.0)	4 (50.0)	4 (50.0)		
1.0~1.5ha	22 (100.0)	1 (4.5)	16 (72.7)	4 (18.2)	1 (4.5)
1.5~2.0ha	14 (100.0)	2 (14.3)	10 (71.4)	2 (14.3)	
2.0 ha ~	17 (100.0)		15 (88.2)	2 (11.8)	
계	68 (100.0)	9 (13.2)	49 (72.1)	9 (13.2)	1 (1.5)

<表 4-33>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無農層을 제외한 全階層에서는 教育費로 送金한 比率이 다른 目的으로 보낸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全體의으로 그 比率이 72.1%나 되었다.

그러나 教育費를 제외한 여타의 送金目的에 있어서는 階層間에 鴻미로 온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經營規模가 적은 계층에서는 流出家族員의

生活費로 送金한 比率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經營規模가 큰 계층에서는 生活費 보다는 용돈으로 送金한 比率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이 經營規模가 적은 1.0ha 미만 階層에서 農村本家 流出家族員의 生活費를 부담하는 比率이 높았는데 이는 이들 階層의 流出家族員이 都市地域의 비공식 부문에 고용하는 등 社會的 適應力이 낮아 生活이 不安定할 때 生計費를 農村本家에 전가하기 때문으로 보아진다.

한편 流出家族員이 보낸 現金을 어떻게 使用하고 있나를 中心으로 經濟關係를 본 것이 <表 4-34>이다.

이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1.0ha 미만 階層은 流出家族員이 보내 준 現金을 生活費로 1.0~1.5ha, 2.0ha 이상 階層은 용돈으로 1.5~2.0ha 階層은 營農資金으로 使用하는 比率이 높았다.

이와같은 것은 經營規模가 적은 계층은 農村本家の 所得만으로 家計費를 充당할 수 없어 流出家族員이 그 일부를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表 4-34. 본가에서의 현금사용처별 경제관계

계층별	현금사용처별									
	계	생활비	교육비	용돈	영농자금	경조비용	의료비	생활비 교육비	저축	기타
무농	4 (100.0)	2 (50.0)						2 (50.0)		
~ 0.5ha	29 (100.0)	23 (79.3)	3 (10.3)	1 (3.4)			1 (3.4)	1 (3.4)		
0.5~1.0ha	20 (100.0)	8 (40.0)	1 (5.0)	5 (25.0)	1 (5.0)	3 (15.0)	2 (10.0)			
1.0~1.5ha	22 (100.0)	5 (22.7)	1 (4.5)	6 (27.3)	4 (18.2)	1 (4.5)	1 (4.5)	1 (4.5)	2 (9.1)	1 (4.5)
1.5~2.0ha	12 (100.0)	2 (16.7)	1 (8.3)	2 (16.7)	4 (33.3)			1 (8.3)		1 (8.3)
2.0ha ~	8 (100.0)	1 (12.5)		6 (75.0)			1 (12.5)			
계	95 (100.0)	41 (43.2)	6 (6.3)	20 (21.1)	9 (9.5)	4 (4.2)	5 (5.3)	5 (5.3)	2 (2.1)	2 (2.1)

이에 비하여 經營規模가 큰 階層은 家計費를 農村所得으로 충당할 수 있어 流出家族員이 보내 주는 現金을 不勞所得의 移轉所得으로 생각하고 이를 용돈으로 使用하는자가 많은데서 온 것으로 받아 들여진다.

그러나 全體的으로 流出家族員이 보내 現金을 營農費나 教育費등 生産的인데 投資하지 못하고 消費的으로 使用하고 있는 比率이 월등하게 높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農村은 現金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다가 流出家族員이 부정기적으로 現金을 보냄으로써 必要에 따라 現金을 使用하기 때문에 해석된다.

農村本家로부터 資本을 流出받는 家族員의 職業을 中心으로 階層間의 經濟關係를 본 것이 <表 4-35>이다.

이에 의하면 경제적 관계에서 자원의 流出이 있는 家族員의 職業과 階層間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流出 家族員의 職業은 학생밖에 없었다. 즉 經營規模가 큰 階層일수록 農村本家에서 資本이 流出하는 家族員 중 학생의 比率이 높았다.

한편 農村本家로 資源을 流入시키는 家族員의 職業을 中心으로 經濟關係를 본 것이 <表 4-36>이다. 이에 의하면 階層과 경제적 관계에서 자원의 流入이 있는 家族員의 職業間에는 뚜렷한 차이점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기능공 및 생산공정종사자(21.6%), 판매업종사자(18.9%), 관리직·사무직(18.0%)에 있는 가족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나. 經營規模別 資本流出入에 의한 손익

지난 1년동안 農村本家와 그 移出家族員間에 流出入된 資本額을 中心으로 農村人口流出이 本家に 미친 經濟的 손익관계를 經營規模別로 보면 <表 4-37>에서와 같다.

이에 의하면 農村人口 移出이 農村本家の 經濟的 손익에 미친 양향은 계층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無農層에서는 1,656 천 원이 0.5ha 미만 계층은 5,682 천 원이 0.5~1.0ha 계층에서는 2,541 천 원의 이전적 所得이

농촌인구 이동에 따른 경제적 관계에서 발생되었다. 그러나 1.0~1.5 ha, 1.5~2.0 ha, 2.0 ha 이상 계층은 각각 20,205 천원, 10,704 천원, 19,710 천원 상당의 자본이 초과 지출됨으로써 農村人口移動에 의한 經濟的 關係에서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損益關係를 1인당으로 보면 階層間에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無農層의 階層에서는 經濟關係에 있는 流出家族員당 平均 7.1 천원이 보내진데 비하여 191.1 천원을 받음으로써 184.0천원의 이전적 所得을 보았다. 이에 비하여 2.0ha이상 계층에서는 433.7 천원을 보냈는데 비하여 47.3천 원밖에 받지 못함으로써 結果的으로 1인당 386.5천 원의 자본이 農村本家에서 초과 流出되었다.

表 4-35. 職業別 階層間 資本流出의 徑路關係

경제관계지직업 \ 계 층	무 농	~0.5 ha	0.5 ~ 1.0 ha	1.0 ~ 1.5 ha	1.5 ~ 2.0 ha	2.0ha~	계
전 문 직 · 기 술 직			1 (3.1)	3 (4.8)	2 (6.3)	4 (10.0)	10 (5.2)
관 리 직 · 사 무 종 사 자	1 (20.0)	2 (10.0)	1 (3.1)	11 (17.5)	4 (12.5)	3 (7.5)	22 (11.5)
농 어 업	1 (20.0)		2 (6.3)			1 (2.5)	4 (2.1)
관 매 종 사 자	1 (20.0)	4 (20.0)	3 (9.4)	10 (15.9)	3 (9.4)	1 (2.5)	22 (11.5)
운 수 적 직 업			2 (6.3)	1 (1.6)		3 (7.5)	6 (3.1)
기능공 및 생산공정종사자		4 (20.0)	6 (18.8)	4 (6.3)	1 (3.1)	1 (2.5)	16 (8.3)
단 순 노 무 자		1 (5.0)	2 (6.3)	3 (4.8)	1 (3.1)	1 (2.5)	8 (4.2)
써 어 비 직 종 사 자		1 (5.0)		1 (1.6)	1 (3.1)		3 (1.6)
학 생	1 (20.0)	4 (20.0)	5 (15.6)	19 (30.2)	14 (43.8)	18 (45.0)	61 (31.8)
군 인		1 (5.0)		2 (3.2)	3 (9.4)	2 (5.0)	8 (4.2)
기 타 자 영 업		1 (5.0)	2 (6.3)	1 (1.6)			4 (2.1)
무 직 (가정주부)	1 (20.0)	2 (10.0)	8 (25.0)	8 (12.7)	3 (9.4)	6 (15.0)	28 (14.6)
계	5 (100.0)	20 (100.0)	32 (100.0)	63 (100.0)	32 (100.0)	40 (100.0)	192 (100.0)

이와 같이 無農層을 포함하여 1.0 ha 미만 階層에서 流出家族員과 經濟的 關係에서 農村本家が 이전적 所得을 얻고 있는 것은 現金의 송금목적 및 本家로 流入된 現金의 使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 계층에서는 家族員의 教育비로 지출된 資本額이 아주 적은 한편 農村本家が 그들의 家計費를 農村所得만으로 충족할 수 없음으로써 流出家族員이, 일부를 부담하는데서 온 결과이다. 반면에 1.0 ha 이상 계층에서는 教育비로 지출되는 資本額이 많은데다가 農村所得만으로 그들의 家計費를 충당할 수 있음으로써 流出家族員이 本家の 生計費를 부담할 압박감이 적은데서 本家の 자본이전이 적었기 때문으로 보아진다.

表 4-36. 職業別 階層間 資本流入의 溢漏關係

경제관계자직업 \ 계 층	무 농	~0.5 ha	0.5 ~ 1.0 ha	1.0 ~ 1.5 ha	1.5 ~ 2.0 ha	2.0 ~ ha	계
전 문 직 · 기 술 직		1 (3.2)	1 (4.5)	2 (6.7)		3 (27.3)	7 (6.3)
관 리 직 · 사 무 종 사 자	2 (50.0)	3 (9.7)	2 (9.1)	10 (33.3)	2 (15.4)	1 (9.1)	20 (18.0)
농 어 업				1 (3.3)			1 (0.9)
관 매 종 사 자		7 (22.6)	5 (22.7)	6 (20.0)	2 (15.4)	1 (9.1)	21 (18.9)
운 수 적 직 업		1 (3.2)	2 (9.1)	1 (3.3)			4 (3.6)
기능공 및 생산공정종사자		10 (32.3)	6 (27.3)	6 (20.0)	1 (7.7)	1 (9.1)	24 (21.6)
단 순 노 무 직		2 (6.5)	1 (4.5)		1 (7.7)	3 (27.3)	7 (6.3)
서비스직종사자		2 (6.5)		1 (3.3)	2 (15.4)	1 (9.1)	6 (5.4)
군 인			1 (4.5)		2 (15.4)	1 (9.1)	4 (3.6)
기 타 자 영 업		2 (6.5)	2 (9.1)	1 (3.3)	1 (7.7)		6 (5.4)
무 직 (가정주부)	2 (50.0)	3 (9.7)	2 (9.1)	2 (6.7)	2 (15.4)		11 (9.9)
계	4 (100.0)	31 (100.0)	22 (100.0)	30 (100.0)	13 (100.0)	11 (100.0)	111 (100.0)

表 4-37. 자 본 유 출 입 액 으 로 본 손 익

124

단위 : 천원

계 총		자 본 유 출 액					자 본 유 입 액					손 익		
		계	송금목적별 현금유출액			현 물 유출액	계	사용처별 현물유입액			현 물 유입액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교육비	기 타			소 계	생활비	기 타				
무 농	64	10	—	10	54	1,720	1,690	1,250	440	30	1,656	1,680	△ 24	
	(100.0)	(15.6)		(15.6)	(84.4)	(100.0)	(98.3)	(74.0)	(24.3)	(1.7)				
~ 0.5 ha	4,948	3,700	3,400	300	1,248	10,630	9,890	6,850	3,040	740	5,682	6,190	△ 508	
	(100.0)	(74.8)	(68.7)	(6.1)	(25.2)	(100.0)	(93.0)	(64.4)	(28.6)	(7.0)				
0.5 ~ 1.0 ha	4,799	2,670	1,870	800	2,129	7,340	7,060	4,180	2,880	280	2,541	4,390	△1,849	
	(100.0)	(55.6)	(39.0)	(16.6)	(44.4)	(100.0)	(96.2)	(56.9)	(39.2)	(3.8)				
1.0 ~ 1.5 ha	27,395	18,930	17,390	1,540	8,465	7,190	6,370	1,870	4,500	820	△20,205	△12,560	△7,645	
	(100.0)	(69.1)	(63.5)	(5.6)	(30.9)	(100.0)	(88.6)	(26.0)	(62.6)	(11.4)				
1.5 ~ 2.0 ha	16,434	11,670	10,470	1,200	4,764	5,730	5,510	950	4,560	220	△10,740	△ 6,160	△4,544	
	(100.0)	(71.0)	(63.7)	(7.3)	(29.0)	(100.0)	(96.2)	(16.6)	(79.6)	(3.8)				
2.0 ha ~	22,120	14,400	14,140	260	7,720	2,410	1,490	720	770	920	△19,710	△12,910	△6,800	
	(100.0)	(65.1)	(63.9)	(1.2)	(34.9)	(100.0)	(100.0)	(48.3)	(51.7)	(61.7)				
계	75,760	51,380	47,270	4,110	24,380	35,020	32,010	14,820	17,190	3,010	△40,740	△19,370	△21,370	
	(100.0)	(67.8)	(62.4)	(5.4)	(32.2)	(100.0)	(91.4)	(42.3)	(49.1)	(8.6)				
1인당금액		395	268	246	21	127	315	288	134	155	27	134	64	71

4. 農村人口 移動과 都市 農村間의 接合現象

韓國經濟가 1960年代 초반부터 착수된 經濟開發計劃에 의하여 農業依存的 經濟構造에서 輸出主導型的 工業化로 전환되면서 급속한 成長을 하였다. 이러한 經濟成長 과정을 통하여 社會內部에는 資本主義的 生産體系가 급속히 發展되었다. 또한 이러한 生産樣式이 經濟構造를 지배함에 따라 農業·農村部門과 都市 産業部門間의 關係도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면서 그 結合關係 樣態도 변모 되었다.

일반적으로 國民經濟에서 農村·農業部門은 都市 産業部門에 대하여 勞動力 供給源으로, 商品市場으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農業·農村 - 都市·産業部門間의 關係는 韓國經濟가 産業化가 진척되어 生産體系가 資本主義化됨에 따라 상호보완적에서 점차 종속적 결합관계로 전락 되었다. 이는 韓國의 産業化가 資本의 유기적 구성도가 높은 生産裝備과 技術을 外國으로부터 導入, 輸入된 원자재를 값싼 國內勞動力을 利用 가공하여 海外市場에 輸出하는 式的 工業化를 推進하는 데서 야기되었다. 韓國經濟의 産業化 과정에서 農村·農業部門은 産業化를 위한 原料供給源이나 商品市場으로 기능이 제한되고 단지 값싼 勞動力의 제공과 더불어 生産費 절감에 必要한 低賃金 지지를 위한 값싼 農産物의 供給만을 都市産業部門으로부터 요구 받았다. 이러한 都市産業部門의 요구는 결국 農村으로부터 많은 勞動力의 流出과 더불어 生産費 정도만을 보장하는 低穀價政策을 실시함으로써 農村農業部門의 획기적인 發展이 저해 되었다.

産業化過程에서 農村·農業部門의 勞動力 流出은 脫農化에 의한 것이었다. 都市部門으로의 農村人口의 脫農化 類型은 全家口員이 脫農하는 것과 家口員의 일부만이 脫農하는 類型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가지 유형에서 農村 勞動力의 流出은 주로 部分家族 脫農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農村地域의 家口戶數의 감소율 보다 농촌人口의 감소비율이 월등히 높은데서도 알 수 있다.

全家族 脫農이거나 部分家族 離農이거나 農村地域에서 流出된 勞動力은 직·간접적으로 農村·農業部門과 유대를 지속한다. 農村部門에서 流出된 人的資源을 매개로 하여 農業·農村部門과 都市産業部門이 맺게되는 構造的 統合關係를 보려고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理論이 生産樣式接合(articulation of modes of production)이다.

生産樣式的 接合論은 불란서를 中心으로한 베이, 메이야스, 테레이 등 經濟人類學者들이 제 3세계에서 農村的 前資本的 혹은 小商品生産的인 特性의 구명을 통하여 前資本制가 보존됨과 더불어 資本制와의 接合을 통하여 다양한 變動을 보이며 勞動力을 제공하고 剩餘를 이전한다는 사실을 주장한데서 비롯되었다.

生産樣式接合이란 하나의 社會構成體에 두 개 이상의 상이한 生産樣式이 존재하면서 하나의 지배적인 生産樣式的 再生産에 다른 生産樣式이 從屬적으로 기여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 나라에 있어 農村人口가 都市産業部門으로 流出을 통해 都市, 農村間에 接合되는 現象은 都市産業部門의 低賃金政策과 農村社會가 그 構成員에게 作用하는 자체부양적 속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産業化는 農村部門과 都市産業部門間에 균형적인 分業化를 성립하지 못한 채 外國에서 輸入된 生産 장비와 기술과 原資材를 國內의 값싼 勞動力을 利用 가공하여 海外市場에 輸出하는 것을 內用으로 하였다.

이런 가운데 國際競爭力の 提高를 위하여 都市産業고용자의 임금을 억제하기 위한 低賃金政策을 견지 하였다. 이러한 저임금政策으로 都市産業 근로자들의 상당수는 메이야스(Meillassoux)가 주장한 바와 같이 고용기간 동안의 자신의 생계유지에 必要한 費用인 직접 임금수준의 임금밖에 받지 못한 채 勞動者 家族의 生計費, 失職期間의 生計費(실업수당, 질병수당)와 같은 間接賃金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農村社會도 그가 주장한 것처럼 社會, 經濟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手段들을 내포하는 自體扶養的인 構成體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農村社會의 속성에 의해 農村部門은 都市部門에 就業하고 있는

家族員에 대하여 生計費를 보조하거나 또는 資本主義 生産樣式이 제공하지 않으려는 社會保障의 機能을 代行한다.

메이야스(Meillassoux)에 의하면 農村社會가 都市部門에 고용되어 있는 農村家族員에게 社會保障의인 機能을 통하여 再生産비용을 보전하고 이러한 關係를 통해 農村社會가 都市部門에 構造的으로 종속되는 接合狀態에 놓여지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農村人口의 都市流出로 인한 農村-都市部門間의 接合關係에서 農村部門의 資原이 都市部門으로 더 많이 流出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農村部門과 都市部門間에 流出되는 資源의 양이나 흐름은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를 살펴봄에 있어 본 절에서는 ①農村-都市部門間에 資本이 어떠한 關係에 있는 家族員과 流出入되며, 그流出入량은 각 계층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나? ②農村的 資本은 都市地域으로 어느 정도 流出되고 있으며 또 都市地域의 資本이 어느 정도 農村으로 유입되고 있나? ③또한 都市·農村間에 資源이 流出入되는 주요인은 무엇인가에 국한하여 살펴보았다.

가. 階層別 經營主와 關係別 資本流出入額

農村人口의 都市流出로 農村-都市間에 流出入되는 資本額을 階層別, 經營主와의 關係別로 보면 <表 4-38>과 같다.

<表 4-38>에 의거 階層別로 農村, 都市間의 資本流出入의 經濟關係者數를 보자 이에 의하면 農村에서 資本이 流出되는 經濟關係者는 모두 167名, 農村으로 資本을 流入시키는 經濟關係者는 103名으로 총 270名에 달하는 家族員이 農村-都市間의 資本流出入의 經濟關係를 맺고 있었다.

階層別로 經濟關係者數를 보면 無農層과 0.5ha 미만 계층에서는 農村으로 資本을 流入하는 經濟關係者가 都市로 農村資本을 流出하는 經濟關係者보다 많았다. 그러나 0.5ha 이상 각 階層에서는 農村資本을 都市로 流出시키는 經濟關係者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經濟關係者를 經營主와의 關係別로 區分하여 각 계층별 構成을 보면 무농층은 형제자매와 아들로, 0.5ha 미만과 2.0ha 이상階層은 남편

표 4-38. 경 영 주 와 관 계 별 자 본 유 출 입 액

단위 : 천원

계 증 별	경 영 주 와 관 계															합 계		
	남 편 · 처			부 모			형 제 자 매			아 들			딸					
	과부족	유출	유입	과부족	유출	유입	과부족	유출	유입	과부족	유출	유입	과부족	유출	유입	과부족	유출	유입
무 농							△ 30	30	-	1.720	-	1.720				1.690	30	1.720
								(100.0)				(100.0)					(100.0)	(100.0)
~ 0.5 ha	2.560	-	2.560				△ 71	1.101	1.030	1.623	3.667	5.290	1.570	180	1.750	5.682	4.948	10.630
			(24.1)					(22.3)	(9.7)		(74.1)	(49.8)		(3.6)	(16.5)		(100.0)	(100.0)
0.5 ~ 1.0				1.650	150	1.800	△ 621	841	220	930	3.110	3.040	428	1.648	2.130	2.441	4.749	7.190
					(3.2)	(25.0)		(17.7)	(3.1)		(44.4)	(42.3)		(34.7)	(29.6)		(100.0)	(100.0)
1.0 ~ 1.5				350	250	600	△ 1.407	1.617	210	△ 17.375	20.625	3.250	△ 507	3.017	2.510	△ 18.939	25.509	6.570
					(1.0)	(9.1)		(6.3)	(3.2)		(80.9)	(49.5)		(11.8)	(38.2)		(100.0)	(100.0)
1.5 ~ 2.0							111	409	520	△ 9.435	12.435	3.000	△ 2.400	3.490	1.090	△ 1.724	16.334	4.610
								(2.5)	(11.3)		(76.1)	(65.1)		(21.4)	(23.6)		(100.0)	(100.0)
2.0 ~	△ 400	400	-				△ 2.020	2.060	40	△ 12.040	12.930	890	△ 4.550	5.210	660	△ 19.010	20.600	1.590
		(1.9)						(10.0)	(2.5)		(62.8)	(55.9)		(25.3)	(41.5)		(100.0)	(100.0)
계	2.160	400	2.560	2.000	400	2.400	△ 4.038	6.058	2.020	△ 34.577	51.767	17.190	△ 5.405	13.545	8.140	△ 39.860	72.170	32.310
		(0.6)	(7.9)		(0.6)	(7.4)		(8.4)	(6.3)		(71.7)	(53.2)		(18.8)	(25.2)		(100.0)	(100.0)

처, 형제자매, 아들과 딸로 0.5~1.0ha와 1.0~1.5ha 계층은 부모, 형제자매, 아들 및 딸로 經濟關係者가 각각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經濟關係者와 流出入되는 資本額을 中心으로 각 階層에서의 주요 經濟關係者를 보면 0.5ha 이하 계층에서와 같이 형제자매가 資本流出면에서 딸보다 중요한 經濟關係者이지만 資本流入에서는 그렇지 못하는등 계층간에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들과 딸이 전계층에 걸쳐 중요한 經濟關係者가 되었다.

한편 전체적으로 농촌-都市間 流出入되는 資本額을 經營主와 關係別로 보면 農村에서 流出되는 總資本額 72,170 천원(100%) 중에서 아들에게 51,767 천원(71.7%), 딸에게 13,545 천원(18.8%), 형제자매에게 6,058 천원(8.4%), 남편, 처나 부모에게 각각 400 천원(0.6%)가 流出되어 아들과 딸들에게만 전체의 90.5%에 달하는 65,312천원이 유출되었다.

이에 비하여 農村으로 流入된 資本額은 流出額의 44.8%인 32,310천원으로 이중 아들에게서 17,190 천원(53.2%) 딸에게서 8,140 천원(25.2%) 남편, 처에게서 2,560 천원(7.9%), 부모에게서 2,400천원(7.4%) 형제자매에게서 2,020 천원(6.3%)가 각각 流入되었다.

이와같이 經營主의 아들과 딸과 流出入되는 資本額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農村家口를 하나의 家計단위로 볼 때 아들이나 딸이 핵심적인 구성원이 되기 때문인에서 연유된 結果로 해석된다. 또한 아들과 딸에게 유출된 資本額의 비율이 90.5%인데 비하여 이들로부터 유입된 자본액의 비율은 78.4%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는 자녀들 가운데 상당수가 就業이 아닌 학업을 위해 都市地域으로 流出했기 때문으로 보아진다.

여하튼 지난 1년동안 農村人口의 都市流出로 인해 72,170 천원의 農村資本이 都市地域으로 流出된데 비하여 都市資本은 32,310 천 원밖에 農村으로 流入되지않아 그 差額인 39,860 천 원이 都市地域으로 초과 流出되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階層別로 보면 無農層 0.5ha 미만 0.5~1.0ha 階層에서는 각각 1,690 천원 5,682 천원 2,441 천 원씩의 都市資本이 農村으로 초과 流入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 都市移動者の 職業別 資本流出入

앞에서 農村 - 都市間의 資本流出入額의 總量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農村資本이 都市로 超過流出되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이러한 초과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理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를 規明함과 동시에 農村資本의 초과유출현상이 메이야스(Meillassoux)가 주장한 바와 같이 都市産業部門의 고용자에 대한 생계비 보조등에서 起因된 것인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經濟關係를 맺고 있는 都市居住 農村移住 家族員을 職業別로 區分하고 農村과의 資本流出入을 본 것이 <表 4-39>이다.

<表 4-39>에 의하면 農村資本의 都市로의 流出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學業을 위해 都市地域으로 移住한 家族員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農村에서 都市로 流出된 總資本額 72,170 천원 가운데 도시지역으로 移住하여 學校에 다니고 있는 家族에게 流出된 金額이 75.7%에 해당하는 54,625 천원이나 되었다. 또한 各都市地域으로 流出된 農村資本額중에서 教育費로 流出된 比率을 보면 서울 50.4%, 부산 50.4%, 대구 56.6%, 인천 35.7%, 광주 99.2%, 기타 都市 83.0%로 나타나고 있어 個別都市로의 農村資本의 教育費로 流出된 비율이 인천시를 제외하고 모두 높았다.

그러나 메이야스가 主張한 바와 같이 都市産業부문의 고용자에게 유출된 金額은 全體 流出額의 24.3%인 17,545 천 원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들 金額은 <表 4-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無職에서부터 전문직, 기술직에 이르기 까지 10개의 직업범주에 달하고 있는 家族員에게 流出되었다.

한편 農村으로 資本을 流入시킨 家族員의 職業도 전문직·기술직에서 무직자에 이르는 직업범주에 속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農村으로 流入된 總資本額도 32,310 천 원이나 되고 있음으로써 이들에게 유출된 금액보다도 오히려 14,765 천 원이 農村으로 초과流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체적인 職種別로 農村資本의 都市로의 초과유출상황을 볼 때 은수직 직업, 단순노무자, 무직자에 있는 家族員으로 초과流入된 農村資本

表 4-39. 직업별 도시지역별 자본 유출입액

단위 : 천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기타도시			합계		
	과부족	유출	유입	과부족	유출	유입	과부족	유출	유입	과부족	유출	유입	과부족	유출	유입	과부족	유출	유입	과부족	유출	유입
전문직·기술직	2,128	92	2,220				△ 340	420	80							△ 490	1,200	710	1,298	1,712	3,010
	(5.4)	(73.8)					(24.5)	(2.7)								(70.1)	(23.6)		(100.0)	(100.0)	
관리직	531	1,289	1,820	220	80	300	1,260	480	1,740							990	1,560	2,550	3,001	3,409	6,410
	(37.8)	(28.4)		(2.3)	(4.7)		(14.1)	(27.1)								(45.8)	(39.8)		(100.0)	(100.0)	
사무종사자	1,390	1,220	2,610	300	850	1,150	510	630	1,140	△ 150	150					1,440	600	2,040	3,490	3,450	6,940
	(35.4)	(37.6)		(24.6)	(16.6)		(18.3)	(16.4)		(4.3)						(17.4)	(29.4)		(100.0)	(100.0)	
판매종사자	△ 295	305	10	△ 100	100	-	△ 110	120	10							270	-	270	△ 235	525	290
	(58.1)	(3.4)		(19.0)			(22.9)	(3.4)								(93.1)			(100.0)	(100.0)	
운수적직업	600	600	1,200	240	190	430	620	360	980	740	-	740	△ 35	35	-	2,206	344	2,550	4,371	1,529	5,900
	(39.2)	(20.3)		(12.4)	(7.3)		(23.5)	(16.6)					(2.3)			(22.5)	(43.2)		(100.0)	(100.0)	
기능공및생산	△ 10	200	190	250	150	400	△ 230	230		△ 200	300	100				△ 300	750	450	△ 490	1,630	1,140
	(12.3)	(16.7)		(9.2)	(35.1)		(14.1)			(8.8)						(46.0)	(39.5)		(100.0)	(100.0)	
공정종사자	370	-	370	115	35	150	450	-	450				△ 10	10	-				925	45	970
	(38.1)			(77.8)	(15.5)								(22.2)						(100.0)	(100.0)	
서비스직	△ 5,400	5,400	-	△ 1,840	-		△ 4,135	4,135		△ 250	250	-	△ 10,090	10,090	-	△ 32,910			△ 54,625		
	(9.9)			(3.4)			(7.6)			(0.5)			(18.5)			(60.2)			(100.0)		
종사자	△ 300	300	-				△ 300	300								600	500	1,100	0	1,100	1,100
	(27.3)						(27.3)									(45.5)	(100.0)		(100.0)	(100.0)	
학	3,190	140	3,330	△ 300	300	-										500			3,390	440	3,830
	(31.8)	(86.9)		(68.2)												(13.1)			(100.0)	(100.0)	
생	1,098	1,162	2,260	△ 109	109	-	△ 428	628	200				△ 40	40	-	△ 1,506	1,766	260	△ 985	3,705	2,720
	(31.4)	(83.1)		(2.9)			(17.0)	(7.4)					(1.1)			(47.7)	(9.6)		(100.0)	(100.0)	
군인	3,302	10,708	14,010	△ 1,224	3,654	2,430	△ 2,703	7,303	4,600	140	700	840	△ 10,175	10,175	-	△ 29,200	39,630	10,430	△ 72,170	32,310	
	(14.8)	(43.4)		(5.1)	(7.5)		(10.1)	(14.2)		(1.0)	(2.6)		(14.1)			(54.9)	(32.3)		(100.0)	(100.0)	
기타자영업																					
무직(가정주부)																					
계	3,302	10,708	14,010	△ 1,224	3,654	2,430	△ 2,703	7,303	4,600	140	700	840	△ 10,175	10,175	-	△ 29,200	39,630	10,430	△ 72,170	32,310	
	(14.8)	(43.4)		(5.1)	(7.5)		(10.1)	(14.2)		(1.0)	(2.6)		(14.1)			(54.9)	(32.3)		(100.0)	(100.0)	

은 총 1,710 천 원에 달하였다.

또한 農村－都市間에 流出入된 資本가운데 現金만을 가지고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다시 보면 <表 4-40> 및 <表 4-41>에서와 같다. 즉 <表 4-40>에서 보면 1年동안 農村에서 都市地域으로 流出된 現金總額 49,400 천원가운데 학비로 流出된 金額이 93.5%인 46,210 천 원이나 되고 있었다. 그러나 都市産業부문의 종사 家族員의 生活費로 보낸 金額은 4.9%인 2,400 천 원이었고 용돈을 비롯하여 기타 용도로 보낸 金額은 1.6%에 달하는 790 천원에 지나지 않았다. 이를 階層別로 보아도 0.5~1.0 ha 계층을 제외한 全階層에서 流出家族員의 學費를 위해 現金額을 都市地域으로 流出시킨 比率이 각각 90% 이상이나 되었다.

表 4-40 목적별 송금한 현금액

		단위 : 천원			
송금목적 계층별	합 계	생 활 비	학 비	용 돈	기 타
무 농	-	-	-	-	-
~ 0.5 ha	3,700(100.0)	300(8.1)	3,400(91.9)		
0.5 ~ 1.0	2,670(100.0)	800(30.0)	1,870(70.0)		
1.0 ~ 1.5	17,920(100.0)	300(1.7)	17,030(95.0)	70(0.4)	520(2.9)
1.5 ~ 2.0	11,670(100.0)	1,000(8.6)	10,470(89.7)	200(1.7)	
2.0 ~	13,440(100.0)		13,440(100.0)	-	
계	49,400(100.0)	2,400(4.9)	46,210(93.5)	270(0.5)	520(1.1)

한편 <表 4-41>에 의하면 지난 1年동안 都市에서 農村으로 流入된 現金額은 모두 29,570 천원으로 이가운데 47.3%인 14,000천원이 生活費로 使用되고 14.7%인 4,340천원이 生活費와 教育費로 使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階層別로 보면 經營規模가 적은 계층일수록 都市에서 流入된 現金을 生活費나 子女學費에 使用한 比率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無農層, 0.5ha 미만, 0.5~1.0ha 계층에서는 그比率이 50% 이상이나 되었다.

또한 <表 4-3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都市産業部門 종사자의

生活費로 農村에서 流出된 現金보다는 오히려 農村家族員의 生活費를 위해 도시에서 流入된 現金額이 많으며 그 격차는 經營規模가 적은 계층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表 4-41. 사용처별 현금 유입액

단위 : 천원

계 층 별	사 용 처 별									
	계	생활비	학 비	용 돈	영 농 자 금	경 조 비 용	의료비	생활비 학 비	저 축	기 타
무 농	1,690 (100.0)	1,250 (74.0)						440 (26.0)		
~ 0.5 ha	9,890 (100.0)	6,850 (69.3)	800 (8.1)	50 (0.5)			30 (0.3)	2,160 (21.8)		
0.5~1.0	6,960 (100.0)	4,080 (58.6)	200 (2.9)	490 (7.0)	120 (1.7)	70 (1.0)	2,000 (28.7)			
1.0~1.5	5,870 (100.0)	1,870 (31.9)	150 (2.6)	260 (4.4)	760 (12.9)	50 (0.9)	500 (8.5)	500 (8.5)	1,500 (2.6)	280 (0.5)
1.5~2.0	4,390 (100.0)	950 (21.6)	1,700 (38.7)		500 (11.4)			240 (5.5)		1,000 (22.8)
2.0~	770 (100.0)			470 (61.0)			300 (39.0)			
계	29,570 (100.0)	14,100 (47.7)	2,850 (9.6)	1,270 (4.3)	1,380 (4.7)	120 (0.4)	2,830 (9.6)	3,340 (11.3)	1,500 (5.1)	1,280 (4.3)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볼 때 우리 나라에 있어 農村人口의 都市流出로 인해 農村과 都市間에 이루어지는 資本의 流出入現象을 보면 메이야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都市部門 종사자의 生計費나 都市部門이 제공하지 않으려는 社會보장적 기능을 農村社會가 대행하려는데서 流出되기 보다는 家族員의 教育費로 流出되는 경향이 절대적 이었다. 반면에 學生을 除外한 都市部門 고용자와의 資本流出入에 있어서는 오히려 都市資本이 農村으로 더 많이 流入되고 있으며 이는 계층이 낮을수록 더욱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

5. 要 約

본장은 마을과 家口를 분석단위로 하여 마을간, 階層간 農村人口移動을 통하여 이동가족원과 本家간에 형성되는 경제적 관계의 내용을 살펴보고, 나아가 農村-都市간의 資本流出入現況과 이에 관련된 몇가지 社會的現象을 규명코자 하였다.

8개 조사마을 324호의 조사가구에서 유출한 人口移動者는 총 1530명이었고, 이 가운데 本家와 經濟關係에 있는 人口移動者는 303名이었다. 303名 중에는 本家에서 資本을 유출함으로써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 이동자가 192명이었고 本家로 資本을 유입시키는 경제관계자는 111명이었다.

이들 303명을 대상으로 農村本家間에 맺는 경제적 관계를, 마을을 분석 수준으로 하여 8개 조사마을을 각각 비교할 때 마을간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資本流出入額에 의한 損益關係이었다. 즉 소산과 무림동마을에서는 農村人口移動으로 인한 경제적 관계에서 유출가족원으로부터 本家が 받는 資本額이 유출가족원에게 보낸 資本額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마을은 農村本家が 유출가족원에게 보낸 金額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와 같이 마을간 資本流出入額의 差額에 의한 損益이 農村마을쪽에 유리하게 나타나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유출가족원이 농촌본가에 보내는 자본액의 다소보다는 오히려 농촌본가에서 유출가족원에게 보내는 자본액중 교육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많고 적음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수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즉 階層別 농촌인구이동으로 인한 資本流出入額의 差額에 의한 損益關係를 보면 무농층, 0.5ha이하, 0.5~1.0ha 계층에서는 유출가족원으로 부터 받은 資本額이 보낸 金額을 훨씬 초과하였다. 그러나 그외의 계층에서는 農村本家が 유출가족원에게 보낸 資本額이 훨씬 많음으로써 농촌본가에서는 資本이 초과이전되었는데 그 이유도 바로 이들 계층에서 教育費로 유출된 資本額이 월등하게 많았기 때문이었다.

· 한편 農村人口의 都市流出로 인한 農村과 都市간의 資本의 流出入狀況을 보면 階層間, 都市間에 있어서 각기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즉 階層을 중심으로 볼 때 무농층, 0.5ha이하, 0.5~1.0ha 계층에서는 都市資本이 農村으로 초과 流入되었는데 비하여 그 외의 階層에서는 農村資本이 都市지역으로 초과 유출되었다. 이러한 이유도 바로 이들 階層에서 가족원의 教育費로 都市地域으로 유출되는 액수가 많은데 있었다.

또한 農村에서 각 도시로 유출된 資本額가운데 教育費로 유출된 비용을 보면 서울 50.4%, 부산 50.4%, 대구 56.6%, 인천 35.7%, 광주 99.2%, 기타 중소도시가 83.0%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출가족원과 본가간의 경제적 관계에서 教育費로 유출되는 資本額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損益關係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농촌자본의 도시로의 유출을 억제하여 이를 생산자본으로 활용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고등학교를 농촌지역에서 마칠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교육시설의 확장 및 교육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第 5 章

社會變動으로서의 離農

1. 社會變動과 離農現象

社會變動이란 社會構造속에 內在하고 있는 모든요소, 즉 物質的, 精神的, 規範的, 制度的 또는 組織的 諸상태의 양적, 질적변화를 말한다. 이와 같은 社會變動에 대해서 페르디난드 토니스는 19세기 産業化된 社會를 경험하면서 계마인샤프트型에서 계질샤프트型의 변화로 보았다. 원시·共同體의 經濟社會(Autarkie)나 교환적 性格이 농후한 봉건사회에서 本源的 資本축적과 技術革新에 의한 家內수공업에서 工場制 수공업의 發展, 合理的 經營에 의한 生産樣식의 발전이 産業化의 根本的 추세라면 社會變動에서 계마인샤프트型에서 계질샤프트型으로의 變化를 당연한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는 農村人口가 都市로 流入되면서 都市에 거주하는 個人이 종래의 전통적 관습, 사고방식, 가치규범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都市가 확장되면서 農村地帶를 잠식하고 그 도시권이 확대됨으로써 都市의 文化, 制度, 價値가 農村에 흡수되면서 변화하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나 産業構造의 변화에 따른 고용기회의 확대, 이에 따른 人口移動 등은 계질샤프트化하는 社會變動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여기에 反해서 허버트 스펜서는 社會發展이나 그에 따른 社會變動은 生物學的 社會進化 過程에서 발생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른 社會는 自然 환경과 관련된 끊임없는 상호작용에서 살고 있는 하나의 유기적 組織體이다. 生存權에 대한 투쟁은 社會分化的 한계를 긋는 한 社會통제의 根源이다.

生存權에 대한 투쟁이 政治的이고, 종교적인 통제를 통해서 연결되고, 조직되는 한 體制를 그는 軍事的(militärisch)이라고 칭했다. 社會的인 통제의 압력은 점점 약하게 되고, 개인적인 主導權(initiative)가 더 많은 공간을 허락받게 된다. 그리하여 軍事的인 社會(militärische Gesellschaft)는 점점 사회적인 응집력이 物理的인 힘보다 共感和 知識을 통해서 보장 받는 개인적인 사회로 변화된다고 한다. 이리하여 허버트 스펜서에 있어서의 社會變動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異質性에서 확실하고, 안정된 異質性(Heterogenität)의 경향으로 변하는 社會構造로 보았다. 즉 社會變動의 본질적인 측면은 허버트 스펜서에 있어서는 더 이상 퇴보하지 않게 하는 社會의 構造變化를 前題로 한 社會的인 革新이다.

이 두 古典的 理論外에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도 社會變動을 “實存의 生存權에 대한 투쟁”(Kampf ums Dasein)으로 간주하면서 文化發展에 기본적 요소가 “도전과 응전”(challenge and response)이라고 했다. 즉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等式이 社會內외의 변수로 보고 이들의 조화가 발전과 변동을 초래하며 거시적인 측면에서 社會變動으로 해석했다. 또한 윌리엄 오그번 역시 社會變動을 사회體系(socialsystem)의 文化要素에서 보았다. 物質的 文化, 즉 기술적인 生産體系, 그리고 성숙지 못한 文化 즉 社會組織과 生産體系의 이용이나 통제를 관장하는 엘리트 文化이다. 이러한 文化要素의 相互作用과 적응아래 오그번은 社會變動 과정으로부터 文化지체(cultural lag)현상이 생긴다고 보았다.

이와같은 諸論理에서 특히나 토인스나 스펜서의 論理가 産業化된 社會過程에서 生成된 거시적 理論이고 나머지 토인비나 오그번은 그 후 文化發展史的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立場은 오히려 토인스나 스펜서의 접근論理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해방이후의 資本主義的 經濟질서에 의한 社會變動, 더 나아가서는 1960年代以後의

급속한 産業化 過程에서 되니스나 스펜서의 해석은 가능하리라 믿는다. 韓末의 봉건사회와 일제하의 前近代의 經濟構造를 탈피하고 해방 이래 우리의 社會變動 意識이나 점진적인 資本主義의 經濟, 社會的인 價値변화나 社會構造변화는 크게는 본격적인 케펠샤프트型 社會의 변화를 촉진시켰다. 특히나 1960~70년에 걸친 한국의 급격한 産業化를 주도해 온 經濟理念은 한 마디로 經濟第一主義의 개발哲學이라고 할 수 있다 하겠다. 農村보다는 都市를 農業보다는 工業을 위주로 하는 經濟主義的 개발방식은 그 결과로 農業부문의 相對的 落後와 農村의 저발전을 초래하였고 농촌人口의 대규모 離農및 大都市 집중현상을 낳았다. 이러한 社會變動은 한편으로는 生存權에 對한 몸부림이었고 利己心을 바탕으로 한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異質性에서 확실하고, 안정된 사회적 기반의 변화로 볼 수 있다.

1960年代以後 고도 産業化에 따른 農村人口 이동은 한국의 勞動力 市場과 그 공급構造를 변화시켰다. 한국 經濟가 하나의 轉換點을 통과하여 勞動力 市場에 대한 供給이 農村의 過剩人口를 배경으로 무제한으로 供給되던 시기를 지나 都市 非公式 部門으로부터 공급되는 變化를 겪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문장의 대조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우리 나라에서도 農村地域에 다수의 잠재 실업자가 존재하고 있음이 알려져 있지만 특히 農業生産에 있어서의 過剩 就業및 계절적 실업問題가 크게 대두하였다.(농협중앙회, 조사월보, 1967. 3)

農村勞動力 不足의 問題는 우리 나라 農業이 당면한 여러 과제 중에서 가장 긴급을 요하는 政策課題로 등장 하였다.(상동, 1979. 5)

<表 5-1>과 <그림 5-1>은 農村의 전통 부문과 근대적 부문, 도시전통 부문과 근대적 부문의 고용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도시 전통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겠다.

논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전통” 부문이 전통적으로 존재해 온 것이 아니고 근대적인 산업 부문의(2차산업) 발달과 동시에 表裏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라는 개념으로 대치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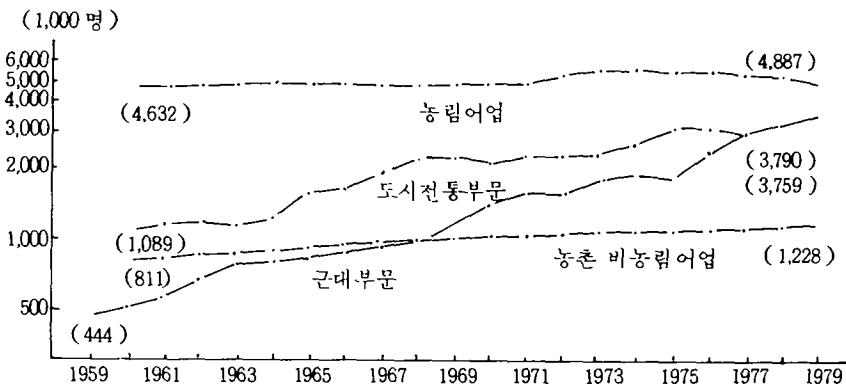
表 5-1. 農村傳統部門, 都市傳統部門, 近代部門의 취업자

(단위: 천명, %)

연 도	총취업자	근대부문	전 통 부 문		
			농림어업	농촌비농림어업	도시전통부문
1960	7,028 (100.0)	496 (7.1)	4,632 (65.9)	811(11.5)	1,089(15.5)
1965	8,206 (100.0)	832 (10.1)	4,810(58.6)	935(11.4)	1,629(19.9)
1970	9,745 (100.0)	1,494 (15.3)	4,916(50.4)	1,068(11.0)	2,267(23.3)
1975	11,830 (100.0)	1,970 (16.7)	5,425(45.9)	1,154(9.8)	3,281(27.7)
1981	14,048 (100.0)	3,472 (24.7)	4,806(34.2)	1,266(9.0)	4,504(32.1)

자료: 배무기, “韓國 勞動經濟의 構造變化” 「經濟論集」 제 11 권으로 된
제 4 호(1982. 12 월)

圖 5-1. 부문별 취업자의 변화, 1959 ~ 1979



자료: Bai Mooki, "Turning point in Korean Economy" in "The Developing Economies,"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Vol. XX, No. 2, 1982, June, Tokyo, Japan) P. 123.

1980年 조형교수의 간접 推定에 의하면 全國의 都市 비공식부문 從事者는 4,1914 천명이며 이는 全國經濟活動 人口의 30.6% 都市經濟活動 人口 780 만의 53.7%가 된다.¹⁾

離農民들 중 靑年層과 학력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공식부문에 就業할 수

있었으나 연령이 그 이상인 사람들은 이른바 都市 비공식부문행상, 노점상, 일고農動者 小規模 수송노동자-에의 就業으로 생계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들 공식부문 就業者들과 비공식부문 취업자들 간에는 가족 친족 관계로 연대가 생겨 있다.

公式部門의 就業者라 하더라도 送業, 就業前 퇴직후의 상태들 중에서 비공식부문에 임시로 就業하는 경우가 우리 나라에서는 허다하다. 이들은 産業化의 過程에서 전통적 就業(農業)으로부터 떠밀려 나오고 새로운 근대적인 취업(공식부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거나 부단히 공식 부문에서 배제되어 온 사람들이 많다. 이 비공식 부문의 就業이 가지는 불안정성은 바로 공식 부문과 관련한 發展의 파생물인 것이다.

都市의 청장년층이라 하더라도 그들 自身이 農村出身이거나 최소한 부모세대는 대부분이 농촌출신이며 여러 가지 形態로 그들의 삶의 뿌리인 農村과 관계를 맺고 있다. 더구나 農業部門의 生産과 工業部門의 生産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용해될 수 없는 통일체(indissoluble unity)로 되어 있는 産業化의 問題는 따로 떼어서 考察될 수 없는 問題이다.

本研究의 2章 産業化와 離農에서 보는바와같이 産業化 過程에서 離農現象이 단지 農業을 생산수단으로 하는 農民이 보다 좋은 생활여건이나 생산수단을 찾아 다른 産業의 고용구조에 전입하는 社會的인 變化라는 측면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면 離農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고 人間의 利己心を 바탕으로 한 社會的인 移動(social mobility)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離農이 農村地域에서 都市나 신흥 工業地帶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離農자체가 한國家의 産業構造와 아울러서 社會的 가치기준적 社會的 移動의 倫理的 반대급부와 관련된 社會經濟的 現象이라는데 우리는 문제를 둘 수가 있다. 産業化와 都市過程에서 地域간의 文化的, 社會的 및 經濟的 諸격차는 人口移動의 한 要因이 되는가 하면 農業生産物이 근본적으로 工業生産物 전반에 대해서 균등한 교환관계가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相對的 빈곤은 더욱더 큰 離農現象을 불러 일으켰다. 農業이나 工業의 균형성장에 따른 農民의 기회상승을 통한 人口移動은 地域간 勞動力의 재분배 및 전체 社會的 生産의 고도화를 초래하여 양자간에 균형적 경제발

진을 통해서 농촌을 떠날려고하는 현재의 잠재적 離農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2. 研究의 問題點과 앞으로의 方向

1960 ~ 70 年代의 大都市 工業偏向的인 經濟開發政策은 農村의 人口를 급격히 감소시켜 農村勞動力의 부족및 都市問題를 동시에 발생시켰고 이의 누적적 악순환은 간과할 수 없는 社會問題로 되고있다. 離農은 農業勞動力의 流出이라는 직접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이들이 不在地主化 함으로써 임대차의 진행 및 資源의 유희화, 농업生産力の 저하를 가져와 식량자급이라는 國家政策의 수행에도 차질을 가져오는 要因이 되고 있다. 또한 農村 共同體의 變化 및 잠재적 이농층의 형성은 국가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있어서나 農村과 都市의 보완적 개발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같은 問題에 대한 認識을 바탕으로 우리는 全國的 수준에서의 離農現象과 農村地域에서의 이주한 사람들의 실태및 社會的 特性을 알아보았고 農村과 都市間의 經濟的, 社會的 關係를 파악함으로써 離農現象을 규명해 보려고 했다. 전국적 수준의 통계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調査地域으로 설정한 8개 마을의 경우에서도 비슷한 연구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즉 離農의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촌가계에서는 교육비의 부담이 크게 나타났다. 교육에 대한 지출은 기회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그것이 離農의 한 要因이 되기도 한다. 부분이농에 있어서 都市에서 農村으로 송금되는 경제수단이 農家家計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부부가족의 離農問題는 어느 정도 윤곽이 파악되었으나 全家族 이농의 경우에는 현재 살고있는 이웃 사람들이나 方位家族(family of orientation)의 구성원들의 견해만이 조사되어 확실한 이유를 알기 어려웠고 또한 연고자가 없이 移住한 事例의 數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였다. 離農을 복잡하고 다양한 個人的 私生活에 관한 問題라고 생각한다면 構造化된

調査方法에 의한 통계해석보다는 非構造化된 調査方法 (例를 들자면 生活史에 대한 분석등) 즉 오늘날 人類學的 측면의 調査方法으로 연구함으로써 離農現象을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다른 研究에서는 離農現象을 人口學的 측면에서만 파악하려는 경향이 보여지는데 本研究는 어느정도 이에서 탈피했다고 보여진다. 물론 여러가지의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離農現象을 완전하게 파악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에 계속해서 離農者의 都市適應 問題를 研究함으로써 都市 - 農村間의 關係와 國民經濟 전반의 맥락 속에서 離農問題와 離農의 저지방법에 대해 접근해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離農問題를 離農의 經濟的 社會的 원인에 대해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보다 보다 중요한 것은 離農現象을 둘러싸고 있는 韓國社會의 經濟的 社會的 價值體系(Wertsystem)가 왜 社會의 지배윤리나 生存倫理로서 계속 남아 있는가 하는 점을 규명해 보는데 있다고 하겠다. 즉 前近代的인 社會的 가치체계가 남아 있는데 그 위에 外國資本과 기술도입에 의한 經濟開發로 물량적 성장은 가능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合理的 社會開發이라는 觀點에서 볼때 많은 問題點을 불러 일으켰고 특히나 社會의 추진세력으로서의 社會的 價值에 대한 問題點을 야기시켰다.

한 個人의 價值觀이나 倫理意識이 그個人만의 利己心의 창출이 아니고 社會構造的인 측면과의 相互作用에 의해서 발전된다고 생각해 본다면 離農現象을 둘러싸고 있는 價值體系와 農村 共同體의 社會體系간의 相互作用을 國民經濟政策 전반의 맥락속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즉 지금까지 진행된 우리社會의 都市化와 産業化가 離農現象을 둘러싸고 있는 社會의 價值體系와는 거시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研究에서 離農現象의 총체적인 접근의 시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1) 조형, “한국의 도시 비공식부문 근로자에 관한 연구”,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1982. 12. PP. 127 - 128.

參 考 文 獻

- 姜大基, 洪東植, 朴大植, 1983, 「農村靑長年들의 離農意思와 그 社會的
要因」, 釜山大學校 社會調查研究所.
- 國土開發研究院, 1982, 「第二次 國土綜合開發計劃: 第2編 人口定着基
盤의 造成」
- 金璟東, 1980, “農村社會의 變化와 爭點 — 人間要素와 社會組織을 中心
으로”, 「70 년대 한국사회」, 韓國社會學會編, 平民社.
- 金大泳, 李孝求, 1976, 「우리나라 人口移動의 特徵」, 韓國開發研究院.
- 金大煥, 1966, “社會移動으로서의 離農現象”, 「韓國社會學」제 2 집.
——, 1971, 「農村女性の 勞動力 實態 및 利用에 관한 연구」, 梨大 農
村問題研究所.
- 金大煥, 李槿洙, 李璋鉉, 金義順, 1974, 「離村女性の 都市生活適應 및 職
業移動에 관한 研究」, 梨大 農村問題研究所.
- 金東一, 1983, “都市化와 農村開發”,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있나」, 현대
사회연구소.
- 金恩實, 1983, 「韓國 都市貧困의 性格에 관한 연구 —奉天洞 無許可 居
住地域 事例를 중심으로」, 서울대 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 金一鐵, 1972, “人口移動에 관한 社會心理的 小考”, 「人口問題論集」15
- 金椿東, 1983, “離農이 小農의 再生産構造에 미친 영향 — 전라북도 정읍
군 이평면 도계 1 리의 사례”, 「人類學論集」제 6 집.
- 金漢超, 1975, “우리나라 大都市 轉入人口의 社會的 性格”, 「法學研究」,
제 24 권, 釜山大學校.
- 金炯國, 1976, “國土開發과 人口移動”, 「韓國의 人口問題와 對策」, 金善
雄編, 韓國開發研究院.

- 농림부 농업경영연구소, 1971, 「都市化 — 工業化에 따른 農村人口移動의 地域的 特徵에 관한 研究, 1960 ~ 1968」.
-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1965, 「韓國農政 20 年史」.
- 文丞珪, 1972, 「農村子女의 移出에 관한 研究」, 서울대 人口 및 發展問題研究所.
- 文八龍, 1981, 「韓國의 農村開發」, 한국개발연구원.
- 문현상, 김홍숙, 1979, 「도시 — 농촌간 인구이동 현황과 가족계획 및 출산 수준의 변동」, 가족계획연구원.
- 문현상, 박병태, 1979, 「우리나라의 장래 추계인구 — 전국 및 지역별 인구의 추계」, 가족계획연구원.
- 朴璟洙, 1981, 「農村出身 都市工業勤勞者의 經濟行爲에 관한 研究」, 서울대 農業經濟學科 碩士學位論文.
- 朴永淑, 1983, 「都心地 貧民의 經濟的 適應方式에 대한 研究」, 梨大 社會學科 碩士學位論文.
- 朴珍道, 1977, 「獨占資本主義下의 農民層 分解論의 展開」, 서울대 經濟學科 碩士學位論文.
- _____, 1980, “階層分化的 分기점으로서의 中農의 意義에 관한 研究”, 「經商論集」 제Ⅱ권 제 2 호, 忠南大學校.
- _____, 1981, “農村住民의 階層構成 및 그 性格에 관한 事例研究”, 「經商論集」, 제Ⅲ권 제 2 호, 忠南大學校.
- _____, 1982, “小農의 經濟法則에 관한 一研究 — 農산물 가격형성론을 중심으로”, 「經商論集」 제Ⅳ권 제 2 호, 忠南大學校.
- 朴泰洵, 1983, 「國土와 民衆」, 한길사.
- 朴玄埰, 1981, 「韓國農業의 構想」, 한길사.
- 裴茂基, 1968, “農地所有變動에 관한 고찰”, 「經濟論集」, 제 7 권 제 4 호, 서울大學校.
- _____, 1982, “한국 勞動經濟의 構造變化”, 「經濟論集」, 제 21 권 제 4 호, 서울大學校.
- 裴震漢, 1978, “農村勞動力 流出과 勞動市場”, 「勞動經濟論集」, 제 4 권

제 2 호, 한국노동경제학회.

徐相穆외, 1981, 「貧困의 實態와 零細民對策」, 韓國開發研究院.

宋丙洛, 1981, 「韓國經濟論」, 博英社.

梁熙王, 1983, 「農家 家計構造를 통해서 본 농민분화에 관한 일 연구」,
서울대 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呂重哲, 1977, “韓國農村的 家族週期와 家族類型”, 「韓國文化人類學」,
제 9 집, 한국문화인류학회.

吳炯煥, 王仁權, 1973, “農村人口의 選擇의 特性”, 「韓國農業教育學會誌」,
제 5 권 제 1 호.

吳浩成, 1981, 「經濟發展과 農地制度」, 韓國農村經濟研究院.

庾結仁, 1981, “農村家族構造의 家族類型論的 分析”, 「農村經濟」, 제 4
권 제 2 호.

尹瑾燮, 1973, “農村人口移動과 관련된 社會經濟的 및 社會心理的 要因의
分析”, 「農大論文集」, 제 4 권, 全北大學校.

尹鍾周, 1966, “서울시 移入人口에 관한 研究”, 「人口問題論集」 제 2 권,
제 3 권

_____, 1970, 「서울시 出生力 및 移入人口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
출판부.

_____, 1971, 「農村出生力 및 轉出人口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 출
판부.

李萬甲, 1973, 「農村社會의 構造와 變動」, 서울대 出版部.

李萬甲, 權泰煥, 愼鎬廈, 1979, 「새로운 工業區地의 形成이 農村社會
構造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한 考察」, 서울대 人口 및 發展問題
研究所.

李英基, 1982, 「1960 年代 以後의 農民層 分解에 관한 연구」, 서울대 農
業經濟學科 碩士學位論文.

李容淑, 1979, “서울근교 농촌의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양주군
별내면 광전리의 사례”, 「人類學論集」, 제 5 집.

이은진, 1981, “農村에서의 貧困”, 「農村經濟」, 제 4 권 제 3 호.

- 李漢淳, 1971, “한국내 人口移動의 研究(Ⅱ) — 移動의 人口構成과 理由를 中心으로”, 「人口問題論集」, 제 13 권.
- 李炯熙, 金鍾德, 1982, “農村의 家族移住에 관한 연구”, 「農村經濟」, 제 5 권 제 1 호.
- 李效再, 許碩烈 編, 1983, 「제 3 세계의 도시화와 빈곤」, 한길사.
- 鄭英一, 1980, “農業勞動力 統計에 관한 음미와 하나의 推計, 1955~78”, 「經濟論集」, 제 19 권 제 4 호.
- _____, 1982, “韓國農業의 構造變化(1960~80)와 그 對應方向”, 「經濟論集」, 제 21 권 제 4 호.
- _____, 1983, “農家所得構造의 推移와 政策方向”, 「農村工業開發과 農業構造調整」, 한국농업정책학회 심포지움 주제논문집.
- 鄭英一, 金一鐵, 1977, “한국 영세농에 관한 사회경제적 연구”, 「社會科學研究報告」, 1, 서울대 社會科學研究所.
- 조옥라, 1982, “현대농민의 경제성 — 전라북도 정읍 도계부락의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제 6 권 제 1 호.
- 조 형, 1982, “한국의 도시 비공식부문 근로자에 대한 연구”, 「논총」, 梨大 한국문화연구원.
- 조혜인, 1978, “한국사회의 과잉도시화 여부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학 연구」, 제 2 집.
- 崔洋夫, 1983, “農村發展과 農村計劃” 大韓國土計劃學會 1983 년 제 2 회 학술발표회 「韓國農村開發의 課題」의 주제발표논문.
- 崔洋夫, 李桐弼, 1983, “農村經濟의 非農業活動과 農村工業開發 — 특히 農業構造調整과 관련하여”, 「農村工業開發과 農業構造調整」, 한국 농업정책학회 심포지움 주제논문.
- 韓國開發研究院, 1982, 「農外所得増大를 위한 綜合對策」.
- _____, 1983, 「主要農業政策改善方案」.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3, 「한국의 가난한 여성에 관한 연구」.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1, 「80 년대 農業政策의 基本方向(案)」.
- _____, 1981, 「80 년대 새 농정방향의 구상」, 정책협의회

시리즈 6.

- _____, 1983, 「2000년을 향한 農村人口의 展望과 對策」, 韓國社會學會(編), 1983,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현대사회연구소. 한길사, 1983, 「한국사회연구 1」.
- 咸淳駿, 1981, “에너지 需給展望과 人口問題”, 「2000 년대를 향한 한국의 인구문제와 정책방향」, 가족계획연구원 / 한국인구학회.
- 許碩烈, 1983, “都市無許可定着地の 雇傭構造에 관한 一考察”, 「한국사회연구 1」, 한길사.
- 洪東植 外, 1982, 「農村社會學」, 서울, 法文社.
- 洪思媛, 1978, 「韓國의 人口와 人口政策」, 韓國開發研究院.
- 渡邊利夫, 1977, “韓國の工業化・人口移動・所得分配”, 「アジア經濟」, 1977년 11월호.
- 石川英夫, 半間清榮, 福田隆治, 1980, 「農村血族의 繼承と擴散의 動態」, 綜合研究開發機構.
- 小林和正, 1980, “家族と人口—村落レベルの調査との関連について”, 「農村血族의 繼承と擴散의 動態」, 石川英夫 外 編, 綜合研究開發機構
- 隅谷三喜男, 1983, 「韓國의 經濟」, 한울출판사 譯.
- _____, 1975, “韓國의 勞動市場”, 「アジア經濟」, 제 16 권 제 3 호 및 제 4 호.
- 十嬰井浩, 1978, “韓國經濟における 農業の位置”, 「アジア經濟」, 1978년 7 월호.
- 創持和雄, 1983, “農地改革 이후의 韓國의 農地賃貸借問題”, 李仁哲 요약 번역, 「農村經濟」, 제 6 권 제 1 호.
- _____, 1983, “韓國における 農村農家人口의 流出 — 60~70 年代におけるその特徴と結果”, 「アジア經濟」, 제 24 권 제 5 호.
- Bai, Moo Ki, 1982, “The turning poing point in the Korean economy,” 「The Developing Economies」 20 (2),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Tokyo, Japan.
- Baker, Paul T. and William T. Sanders, 1971, “Demographic studies in anthrop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

- Bryan, Roberts, 1978, "Migration and agrarian structure," 『Cities of Peasants』, London : Sage Publications.
- (이효재, 허석렬 편역, 『제 3 세계의 도시화와 빈곤』, 한길사, 1983, pp. 57 ~ 84.)
- Duncan, Otis, 1959, "Human ecology and population studies," 『The Study of Population』(Phillip M. Hauser and Otis Duncan eds.),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uerstenberg, Friedrich, 1974, 『Soziologie』, Berlin/New York.
- Hackenberg, Robert A., 1974, "Genealogical method in social anthropology : The foundations of structural demography," 『Handbook of Social and Cultural Anthropology』(J. Honigman ed.), Chicago : Rand McNally.
- Lee and Barringer(eds.), 1971, 『A City in Transition : Urbanization in Daegu, Korea』, Seoul : Hollym.
- Lee, Man-Gap and Herbert R. Barringer, 1978, 『Rural-Urban Migration and Social Mobility : Studies of Three South Korean Cities』, Honolulu : East-West Center.
- Meillassoux, C., 1977, "Historical modalities of the exploitation and overexploitation of labour," 『Critique of Anthropology』, 1981.
- _____, 1981, 『Maidens, Meal and Mone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yor, Robin J., 1979, "Conclusion : Internal migration in South-East Asia — Patterns, problems and policies," 『Migration and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 : A Demographic Perspective』(R. Pryor ed.), Kuala Lumpur : Oxford University Press.
- Ryder, Norman B., 1965,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 (6).
- United Nations, 1973,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Po-

pulation Trends], Population Studies.

Vogel, Ezra F., 1967, "Kinship structure, migration to the city and modernization in modern Japan," 「Aspects of Social Change in Japan」(R. P. Dore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Wood, Charles M., 1981, "Structural change and household strategies: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study of rural migration," 「Human Organization」 40 (4).

統 計 資 料

經濟企劃院, 「人口 및 住宅 센서스」, 1970, 1975, 1980.

_____, 「韓國의 社會指標」, 1981.

_____, 「韓國統計年鑑」, 各년호.

農水産部, 「농업조사」, 1960, 1966, 1970, 1975, 1980.

_____, 「農林統計年報」, 各년호.

_____,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各년호.

新農林社, 「'81 農業機械年鑑」.

總理府 統計局(編), 「日本統計年鑑」, 1975.